

한글

한 권으로 끝내기

국어 영역 **종합편**

정답과 해설



화법/작문/문법

실전

화법

본문 022~026쪽

01 ① 02 ⑤ 03 ⑤ 04 ④ 05 ④

01 말하기 계획

발표자는 도입 부분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온 해충 순위를 언급하며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 뒤에 바로 '집먼지 진드기'라는 중심 화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자 자신을 소개하거나 발표의 주제, 목적, 배경 등을 미리 알리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② 발표자는 시각 자료인 눈에 보이지 않는 집먼지 진드기를 확대한 사진과 집먼지 진드기가 서식하는 대표적 장소의 사진을 제시하여 집먼지 진드기가 우리 생활 공간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③ 발표의 내용을 보면 발표자는 집먼지 진드기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그 이해를 알려 자연스럽게 집먼지 진드기를 퇴치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집먼지 진드기 퇴치 방법 세 가지를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이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으며 발표의 끝 부분에서 각각의 방법을 짧게 요약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⑤ 글쓰이는 집먼지 진드기 퇴치 방법을 잊지 말고 꼭 실천해 보라는 당부의 말로 발표를 끝맺고 있다.

02 담화의 수용 및 평가

발표자는 마지막에 시계를 보면서 정해진 시간이 지난 것을 알고 질의응답 순서를 생략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로 보아 발표자가 정해진 발표 시간을 지키려고 한 것은 알 수 있지만 시간이 남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미리 준비해 두었던 예상 질문이나 그에 대한 응답을 말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발표자는 청중에게 질문한 후 청중의 대답을 듣거나 청중의 반응을 살펴본 후에 다음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② 발표자는 도입부에서 해충 순위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집먼지 진드기의 퇴치 방법 세 가지를 항목화하여 하나씩 설명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핑 먹고 알 먹기'라는 속담을 활용하고 있고, 손가락을 펴는 등의 비언어적 표현으로 중심 화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3 듣기·말하기 전략

찬성 측은 반론에서 ○○ 병원장의 말과 △△시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성화 수술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중성화 수술을 시켰을 경우 주인들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편리의 종류가 무엇인지, 중성화 수술을 받은 동물의 비율이 높은 구와 그렇지 않은 구의 유기견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사회자는 토론을 시작하면서 '중성화 수술'에 대한 개념을 풀이하고,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찬성 측은 입론에서 유기 동물의 발생과 안락사에 처해지는 유기 동물의 개체가 많아지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동물의 개체 수 조절이 어려움을 제시하고, 중성화 수술은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반대 측은 입론에서 "그런데 인간이 ~ 바람직한 일일까요?"라고 질문을 던진 뒤 "이는 결코 ~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대답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④ 반대 측은 반론에서 미국의 뉴저지 주립 러트거스 대학의 연구 논문 내용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다.

04 자료와 매체의 활용

〈보기〉는 중성화 수술의 가격이 비싸고 이 수술이 동물 병원의 수익원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중성화 수술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으며 인간에 의한 일방적인 행위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반대 측 주장의 근거로 이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보기〉는 중성화 수술을 하는 비용이 비싸고 동물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수익을 내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중성화 수술을 긍정적으로 여기기보다는 중성화 수술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나 인간의 배려라는 긍정적인 내용의 근거로 적절하지도 않고 내용 역시 거리가 멀다.

③ 반려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기〉에서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동물의 개체 수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 동물의 질병 유무, 수명 등을 비교한 내용이 등이 언급되어야 한다.

⑤ 〈보기〉는 중성화 수술로 인간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고 있으므로, 동물들의 행복 추구권을 강제로 빼앗으면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

05 담화 내용 생성

대화의 내용을 보면 경민이는 민서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민이는 입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서에게 긍정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 민서는 재수를 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엄마의 반응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민서에게 다른 사람의 기대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조언은 민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앞의 대화를 보면 경민이는 민서에게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부에 운이 작용한다고 말한 내용은 경민이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③ 대화 내용으로 보아 민서의 공부 방법이 효과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으며, 민서 엄마가 원하는 것이 민서의 학습 태도가 좋아지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민서의 엄마는 민서가 선불리 재수를 결정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뿐이다.

⑤ 경민이는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언이다.

01 ⑤ 02 ⑤ 03 ③ 04 ③ 05 ⑤

01 글쓰기 계획

작성된 기사문에서는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 몸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아 비타민 과잉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예로 비타민 E가 결핍되거나 과잉 섭취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첫 부분에서 비타민의 개념을 풀이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② 제목에서 '모자라면 해(害)'와 '넘치면 독(毒)'이 대구를 이루고 있다.

③ 비타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부족하거나 과잉 섭취할 경우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④ 기사문의 끝 부분에 비타민 E 결핍증과 비타민 E 과잉증의 여러 증상을 강조하여 보여 주고 있다.

02 자료 활용 방안

이 글의 예상 독자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이고, 수집한 자료 역시 우리 국민 전체의 국어 능력이 부족하며 이를 위해 국어사전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간 4에는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국어사전 사용을 일상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54.7%가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의 절반도 못 갖추고 있고, (나)에서도 성인이 일상생활에서 모르는 단어를 자주 접하는 비율이 23.8%라고 했으므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국어 능력이 부족함을 추측할 수 있다.

② (나)의 인터뷰를 통해 국어사전을 활용하면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어휘력도 높일 수 있고, 독해 능력과 문법적 지식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ㄹ에서도 국어사전을 통해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고급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다) -ㄷ에서 국어사전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비율이 55.1%이고, '보통이다'와 부정적 대담을 합친 비율이 44.9%이다. (다) -ㄹ에서 국어사전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합하면 84.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를 통해서 국어사전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에 비해 그 효용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다) -ㄱ을 보면 응답한 사람의 절반이 넘는 비율이 사전에 찾지 않고 있는 실태를 알 수 있고, (다) -ㄴ을 보면 수업 시간에 국어사전의 사용을 묻는 질문이므로 학생들 역시 국어사전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제시된 내용에 따라 글쓰기

③은 국어사전을 밤길의 가로등에 비유하고 있고, 국어사전을 곁에 두고 찾아보기를 생활화하자고 했으므로 '곁' 부분의 글쓰기 계획에도 부합한다. '-자'는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청유형으로 끝맺어야 한다는 조건에도 맞는다.

오답 풀이 ① '곁'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고, 청유형으로 끝맺고 있으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② 글의 내용에는 맞지만 청유형 종결 어미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④ 국어사전 이용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글의 내용과 연관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하지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청유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국어사전을 배에 비유하고 있지만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우리말 어휘를 탐구하지는 것은 글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04 글쓰기 전략

글쓰기는 미술반 학생들과 함께 벽화 그리기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참여자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또 글쓰기가 봉사하고 있는 장애 아동 보호 시설 관계자에게서 장애 아동들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제시되어 있지만 장애 아동에게서 직접 어떤 말을 들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신문 기사를 읽고 감동받은 것을 계기로 자신의 생각을 선생님께 말씀드리며 벽화 그리기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② 벽화 그리기 봉사 활동이 육체적으로는 힘든 노동이었지만 달라진 벽을 보고 환호하는 장애 아동들의 모습을 보며 느낀 보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④ 벽화 그리기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거나 미술부실로 찾아오면 된다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⑤ 학생들의 관심을 바라며 봉사 참여자들을 기다린다는 말과 감사의 인사말로 글을 끝맺고 있다.

05 내용의 보완·조정

문장을 이루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주어의 경우 앞뒤 맥락으로 보아 주어가 전제되어 있으면 생략이 가능하므로 ㉠의 경우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고칠 필요가 없는 문장이다. 또한 ㉡의 주어는 바로 앞 문장의 주어인 '우리 미술부 학생들'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서술어 '치유하는'에 걸려 있는 목적어를 각각 쓰게 되면 '환경을 치유하는', '마음을 치유하는'이 되는데 '환경을 치유하는'은 어색하다.

② '하지만'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상반된 내용일 때 쓰인다. 여기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그래서'가 적절하다.

③ '벌리다'는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라는 뜻이고 '벌이다'는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라는 뜻으로 이 두 단어는 서로 구별해서 써야 한다.

④ 교내 환경 미화는 장애 아동을 위한 벽화 그리기 봉사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려는 전체 내용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01 ② 02 ④ 03 ④ 04 ④ 05 ①

01 국어의 규범_한글 맞춤법

'떠날게'는 [떠날께], '떠날수록'은 [떠날쥬록]으로 발음되지만, '떠날게, 떠날쥬록'으로 적는 것은 어미 '-ㄴ게', '-ㄴ쥬록'의 형태를 밝혀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나무가 크다.'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나무가 크다]이므로 이 문장은 ㉠과 같은 원칙을 지켜 적은 것이다.

③ '불러'는 어간 '부르-'와 어미 '-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나 '불러'로 표기한다. '부어'는 어간 '부-'과 어미 '-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나 '부어'로 표기한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어간의 형태를 원래의 형태인 '부르-', '부-'이 아닌 소리 나는 형태로 표기한 것이다.

④ '꽃이', '꽃을'은 각각 [꼬치], [꼬출]로 소리 나지만 발음대로 적지 않고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다.

⑤ '높고', '높아'는 각각 [놉꼬], [놉파]로 발음되지만, 발음대로 적지 않고 '높-'이라는 어간과, '-고', '-아'라는 어미의 형태를 밝혀 적어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02 음운_음운의 변동

'달나라[달라라]', '권력[궐력]'에서는 비음인 'ㄴ'이 유음인 'ㄹ' 앞 뒤라는 음운 환경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법학[바팍], 축해[추카]'에서는 'ㅂ'과 'ㄱ'이 'ㅎ'을 만나 각각 'ㅍ'과 'ㅋ'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② '밥물[밤물]'에서는 파열음인 'ㅂ'이 비음 'ㅁ' 앞에서 비음인 'ㅁ'으로 발음된다. '국민[궁민]'에서 역시 파열음인 'ㄱ'이 비음 'ㅁ' 앞에서 비음인 'ㅇ'으로 발음된다. 두 단어에서 모두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인 'ㅇ, ㄴ, ㅁ'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③ '종은[조은], 날은[나은]'에서는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⑤ '숨이불[숨니불], 단풍잎[단풍닙]'에서는 두 단어의 결합[숨+이불, 단풍+잎]에서 뒤 단어에 'ㄴ'이 첨가되는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난다.

03 단어_단어의 형성

'너보다 빨리 달리는 어렵다.'에서 '달리기'는 서술성이 있으며 그 앞에 부사어 '빨리'가 수식하고 있으므로, 이때 '달리기'의 '-기'는 어간과 결합한 명사형 어미이다. 이에 반해 ㄹ에서 '달리기'는 앞에 관형어 '아침에 하는'이 수식하고 있으므로, 이때 '달리기'의 '-기'는 파생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오답 풀이 ① '얼음'은 서술성이 없으며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이때 '얼음'은 동사의 어간 '얼-'에 접미사 '-음'이 결합한 파생 명사이다.

② '찬란한 꿈'의 '꿈'은 서술성이 없으며, 관형어 '찬란한'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동사의 어간 '꾸-'에 접미사 '-ㅁ'이 결합한 파생 명사이다. '꿈으로써'는 서술성이 있으므로 이때 '꿈'은 어간 '꾸-'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한 동사의 명사형이다.

③ '일하기'는 서술성이 있으며 부사어 '밤새도록'이 수식하고 있으므로, 이때 '일하기'의 '-기'는 명사형 어미이고 '-는 것'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⑤ '돌아오기'는 서술성이 있으며 이때의 '-기'는 어간 '돌아오-'에 붙어 명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명사형 어미이다. ㄹ의 '그 친구가 돌아오기'는 명사절로 안긴문장에 해당한다.

04 문장_문법 요소

일반적으로 사동 접미사를 결합하여 만든 사동문은 직접적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고, 간접적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다. (다)의 ㄴ에서 선생님은 청소 당번만을 '남겼다'라는 사동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이때의 '남겼다'는 간접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의 ㄹ에서 먼저 떠난 사람은 냉장고에 먹을 것을

스스로 직접 남긴 것이므로 이때의 '남겼다'는 직접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주동문인 (가)의 ㄱ의 '넋다'는 문장 성분으로 주어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ㄱ을 사동문으로 바꾼 (가)의 ㄴ과 ㄷ의 '넋하다', '넋게 하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주동문인 (나)의 ㄱ의 '돕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나)의 ㄷ의 '돕게 하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즉 (가)와 (나)의 ㄱ은 사동문이 되면서 서술어의 자리수가 늘어나고 있다.

② (나)에서 '돕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ㄱ을 ㄷ으로 바꿨을 때, ㄱ의 주어인 '동생'은 ㄴ에서 '동생에게'로 바뀌며 부사어가 된다.

③ (나)의 ㄴ에서 '돕다'는 '돕-'에 사동 접미사 '-이-'를 결합하여 만들었으나 이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로 보아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사동사는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게 하다'를 사용하여 만든 사동문은 일반적으로 간접 사동의 의미를 지닌다. ㄹ은 문장의 의미상 주어의 직접적 행위를 의미하는 사동문이므로, '-게 하다'를 결합한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05 국어의 역사_중세 국어의 특징

④의 '기쁜', '뜨른' 등은 앞말의 종성을 뒷말의 초성에 내려 적는 이어적기를 한 예에 해당하지만, ③의 '일흠을'은 '일호를'이 아니라 앞말의 종성을 적고 뒷말의 초성에 'ㅇ'을 적었으므로 끊어적기를 한 예에 해당한다. 한글이 창제된 15세기에는 이어적기가 보편적이었으나 점차 끊어적기가 확대되었다.

오답 풀이 ② ⑥의 '孔公자'는 '공'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것이고, ④의 '사'는 '심'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형태를 이어적기 한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인 경우 '이'를,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인 경우 'ㅣ'를 사용하였다.

③ ③의 '니왜'는 '니'에 접속 조사 '와'와 주격 조사 'ㅣ'가 붙은 형태이다. 접속 조사로 이어진 체언 중 마지막 체언인 '니'에 접속 조사 '와'가 붙었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④ ⑥의 '世尊'가 현대어로 '세존이시여'인 것을 통해 높임을 나타내는 호격 조사로 '하'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⑤ ⑥의 '보습고'가 현대어로 '뵈고'로 해석되어 문장의 객체인 '여래'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로 '-습-'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모의고사 1회

화법/작문/문법

본문 036~043쪽

01 ③	02 ③	03 ②	04 ⑤	05 ⑤	06 ③
07 ⑤	08 ③	09 ⑤	10 ③	11 ②	12 ②
13 ⑤	14 ⑤	15 ③			

01 듣기·말하기 전략

㉠에서 학생 2는 자신이 발표할 내용이 너무 어려워 청중인 반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친구들 앞에서 연습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보완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둘째 문단에서 한자어에 동음이의어가 많아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 셋째 문단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

되는 단어를 접하면 여러 가지 뜻이 모두 활성화된다는 것 등에서 구체적 예를 제시한다면 내용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학생 1이 발표할 주제가 평소 반 친구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학생 2가 청중의 관심을 끌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가)에서 학생 1의 말로 보아, 학생 2는 평소에 발표를 여러 번 해 보았으므로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나)에서 학생 2는 말투나 어조, 성량 등을 조절하는 반언어적 표현과 청중을 둘러본다거나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는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 ⑤ 청중은 우리 반 친구들이고, 너무 어려운 개념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 2는 청중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2 말하기 계획

발표의 처음 부분에서 15세 이상 한국인 중 '읽고 쓰는' 사람의 비율과 '문서에서 글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활용하는' 언어 능력에 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이라고만 말하며 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여러 '국어의 특징' 중에서 '한자어로 인해 동음이의어가 많은 국어의 특징과 한자어 사용 시 유의점'이라는 좀 더 세분화된 주제를 선택하고 있다.
- ② 발표의 처음 부분, 중간 부분에서 질문의 방식으로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④ 단어가 갖고 있는 다른 의미를 많이 알고 있는 독자일수록 문맥에 맞는 뜻을 찾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현상을 제시하고 '부채 효과'라는 용어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국어에서 한자어를 사용할 때는 그 단어가 문맥 속에서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유의 사항을 전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03 담화 과정과 내용 파악

(나)에 따르면 한 단어에 연결된 의미가 많을수록 각 정보의 인출이 느려지고 의미의 처리가 늦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단어의 의미를 많이 아는 독자일수록 머릿속에서 더 많은 의미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중에서 문맥에 맞는 뜻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될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둘째 문단에서 국어의 동음이의어는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고 했으므로, 한자어가 많이 사용된 문장일수록 의미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다.
- ③ 첫째 문단에서 소리는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④ 넷째 문단에서 한 기억 항목에 연결된 정보가 많을수록 각 정보의 인출이 느려진다고 하고 있다. 이는 반대로 연결된 정보가 적을수록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는 말이므로, 동음이의어가 적은 고유어를 사용한다면 의미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 ⑤ 넷째 문단에서 단어의 뜻을 생각하는 데에 너무 치우치면 문장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04 듣기·말하기 전략

면접의 평가 단계에서 면접자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면접의 성과나 피면접자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피면접자 역시 자신의 면

접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이 면접에서는 피면접자 스스로의 평가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면접자는 "긴장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지길 바랍니다."처럼 피면접자가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 ② 면접자는 피면접자가 말하기 대회에 나갔던 경험을 듣고 이를 토대로 대회 참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 ③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말하기 대회 참가 경험을 듣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고 있으며, 피면접자가 면접자의 동아리에 들어와서 큰 활약을 펼칠 것이라며 피면접자를 평가하고 있다.
- ④ 피면접자는 지원 동기를 묻는 면접자의 질문에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강한 어조로' 자신이 동아리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일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대답에서도 명료한 대답과 자신감 있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05 담화의 수용 및 평가

3점 갈잡이

면접에서 면접자는 알고 싶은 것을 직접적으로 묻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질문도 한다. 면접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면접자가 질문을 통해 피면접자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A]에서 면접자는 피면접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해 고쳐 본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를 동아리 활동과 연결해 본다면 면접자의 질문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확인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면접자는 대회 참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묻고 있다. 이 질문은 면접자가 준비를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면접자는 첫 질문에서 직접적으로 지원 동기를 묻고 있으며, [A]에는 이러한 질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면접자는 주로 피면접자의 취미 활동이나 면접자의 성향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으며, 학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 ③ 동아리 활동과 관련 있는 활동을 해 왔는지 묻고자 했다면,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진로 계획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물었을 것이다.
- ④ 리더십을 확인하려 했다면 피면접자 혼자서의 행위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협동했던 경험에 대해 물었을 것이다.

06 글쓰기 계획

학교 친구들에게 폐의약품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글로 '폐의약품 분리수거의 필요성'이라는 글의 주제와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설득한다는 목적은 뚜렷하지만, 글의 제목은 글쓰기 계획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글을 쓰는 목적이 친구들이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고, 글의 주제가 '폐의약품 분리 수거의 필요성'이므로 본문에서 '폐의약품 분리수거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작문 과제 수행 일지'의 글을 쓸 때 유의할 사항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타당한 논거를 든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신문 기사와 그래프 및 도표 자료, 전문가 인터뷰 자료 등을 준비했다고 할 수 있다.
- ④ 예상 독자는 학교 신문을 읽을 학교 친구들이고, 학교 친구들이 폐의약품 분리수거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는 요구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 ⑤ 예상 독자, 글을 쓰게 된 배경, 글을 쓰는 목적, 글을 쓸 때 유의할 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고, <보기 2>와 같이 개요를 정리한 것에서 알 수 있다.

07 내용의 구체화

3점 집약이

〈보기 1〉에 제시된 (가)~(다) 자료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뒤, 작문 맥락과 관련하여 문제점, 필요성, 현재 실태, 해결 방안 중 어느 것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㉔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였으므로, 각 개인이 폐의약품 분리수거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가정 내에서 폐의약품을 잘 분리해 두었다가 폐의약품 수거의 날에 수거 장소에 가져다주도록 독려하는 내용 등이 나와야 한다. 국가가 폐의약품 분리수거 서명 운동을 벌이고, 병원과 약국에 공문을 보내는 것은 정책적 차원의 방안이다.

오답 풀이 ① 서론에서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논의 배경을 제시할 수 있다. (가)와 (나) - 2를 통해 사람들이 폐의약품을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 무분별하게 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며 폐의약품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가)에서는 폐의약품이 생태계 교란,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폐의약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위험성을 근거로 폐의약품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나) - 1은 ○○시의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실태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폐의약품의 분리수거와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 것은 (다)에 제시된, 관리 책임을 맡은 전담 부서가 없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④ 지방 자치 단체가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정하고,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는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폐의약품 분리수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08 제시된 내용에 따라 글쓰기

첫 번째 조건은 글의 흐름과 집필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다. 글을 쓰는 목적이 친구들이 폐의약품 분리수거의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므로 친구들의 동참을 설득하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③에서는 폐의약품의 분리수거와 안전한 처리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의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친구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두 번째 조건은 관용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데, ③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을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 조건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설의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③에서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튼실하게 고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동참할 것을 설득하는 글의 집필 목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관용 표현과 설의법도 사용하지 않았다.

② 학생들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문제 삼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과 집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어떻게 내 돈 서 문은 알고 남의 돈 칠 문은 모를 수 있을까?’에 관용 표현과 설의법은 사용되었다.

④ 글의 흐름에는 맞으나 친구들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집필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가는 토끼 잡으려다 잡은 토끼 놓친다’라는 관용 표현은 사용하였으나 설의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⑤ 글의 흐름과 집필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첫 문장인 ‘하수구에 몰래 버린 화학 물질로 인해 ~ 꼭 현실이 되지 말란 법이 있을까?’에 설의법도 사용되었으나, 관용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09 글쓰기 전략

이 글의 글쓴이는 공연을 보고 난 뒤 공연에 대한 내용과 함께 자신이 공연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감상문의 구성에서 마지막 부분에는 감상 후 글쓴이에게 일어난 변화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글쓴이는 구체적인 감상 내용으로 글을 끝맺고 있을 뿐, 공연을 보고 난 이후에 글쓴이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첫째 문단에서는 친구의 추천, 여러 매체의 평가 등이 동기가 되어 글쓴이가 ‘난타’ 공연을 보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②, ③ 둘째 문단에서는 ‘난타’의 대략적 내용을 소개하고, 대사가 별로 없다는 핵심 특징을 들어 공연을 설명하고 있다.

④ 셋째 문단에서는 ‘난타’ 공연을 보면서 사물을 두들겨 신명 나는 리듬을 만 들어 내는 것이 신기하고,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들이 주변에 많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며 공연을 보면서 느낀 점을 정리하고 있다.

10 내용의 보완·조정

㉔의 문장 전체 주어는 ‘난타는’이다. ㉔을 ‘준비를 마친다’로 수정하면, 공연이 스스로 준비를 마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의미상 어색한 문장이 된다. ㉔이 ‘난타는’과 자연스럽게 호응하기 위해서는 ‘준비한다는 내용이다’로 수정되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든’은 ‘-든지’의 준말로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문맥상 생각을 하는 중이고 생각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미완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는데, 이처럼 미완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던’을 쓴다.

② ‘나’가 공연의 진가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문맥에 맞는 것이다. ‘나’가 평가받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는다.

④ 앞 문장의 ‘이렇듯이’ ‘난타는 대사로 거의 없다’를 가리키고, ‘하지만’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 쓰는 접속 부사이므로, 앞 문장과 ㉔의 위치를 바꿔야 자연스럽다.

⑤ 사물놀이가 어떤 악기 연주로 이루어지는지는 ‘난타’ 공연의 특징과 그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는 데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11 단어·단어의 형성

어근과 어간은 ‘보다’의 ‘보-’처럼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파생어의 경우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으며, 합성어의 경우 어간이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들쭈시다’는 접두사 ‘들-’과 어근 ‘쭈시다’가 결합해 만들어진 말이다. 즉 ‘들-’은 ‘마구’, ‘몹시’ 등의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어근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어근이 단어의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중심 부분인 반면 접사는 어근에 붙어 어근의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들쭈시다’의 어근은 ‘쭈시-’이며, 어간은 ‘들쭈시-’이다.

오답 풀이 ① ‘휘-’는 ‘마구’ 또는 ‘매우 심하게’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이다. 그러므로 어근은 ‘감-’이고, 어간은 ‘휘감-’이다.

③ ‘반짝이다’는 어근 ‘반짝’에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다’가 결합한 말이다. 어간은 ‘반짝이-’이다.

④ ‘정답다’는 어근 ‘정’에 접미사 ‘-답다’가 결합한 말이다. 어간은 ‘정답-’이다.

⑤ ‘군세다’는 ‘군-’과 ‘세-’의 두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이때 어간은 ‘군세-’이다.

12 문장_문법 요소

3점 길잡이

수능에서는 문법 지식을 외우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개념을 토대로 사례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기>에 제시된 '파생적 사동문'의 개념을 이해하고, 선지에서 주체가 객체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문장을 찾아야 한다.

사동문은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으로 나뉘는데, 파생적 사동문은 대개 주어가 객체에게 직접 행위를 한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파생적 사동문에도 주어가 객체에게 간접적인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께서 철호에게 책을 읽히셨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철호가 책을 읽는 행동을 하는 데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철호가 책을 읽는 행동을 하도록 시키거나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주어진 '선생님'이 철호가 책을 읽는 행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철호가 그 행동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동생이 직접 아기가 울도록 만드는 데에 참여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③ 그가 직접 자신의 몸을 바위 뒤에 숨기는 행동을 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④ '나'가 직접적으로 모형 비행기로 하여금 날아가도록 만드는 데에 참여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⑤ 마을 사람들이 직접 힘을 모아 마을 진입로를 넓히는 행동을 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3 음운_음운의 변동

㉠의 '백로'는 [백노]로 발음되는데, 이는 앞의 자음 'ㄱ'과 뒤의 자음 'ㄹ'이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ㄱ'은 'ㅇ'이 되고, 'ㄹ'은 'ㄴ'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백로'는 순행 동화가 아닌 상호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 오답 풀이** ① '신라[실라]'는 앞의 'ㄴ'이 뒤의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변한 것이므로 역행 동화가 일어난 것이다.
 ② '학문[함문]'은 앞의 'ㄱ'이 뒤의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변한 것으로 역행 동화가 일어난 것이다.
 ③ '섬레[섬니]'는 앞의 'ㅂ'과 뒤의 'ㄹ'이 만나 'ㅂ'은 'ㅁ'으로, 'ㄹ'은 'ㄴ'으로 변한 것이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동화가 일어난 것이다.
 ④ '갈날[갈랄]'은 뒤의 'ㄴ'이 앞의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변한 것으로 순행 동화가 일어난 것이다.

14 국어의 규범_로마자 표기법

'묵호항'은 [무코항]으로 발음된다. 'ㄱ'과 'ㅎ'이 축약되어 거센 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묵호항'은 고유 명사로 체언이고, '묵'의 'ㄱ' 뒤에 'ㅎ'이 오고 있다.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거센소리되기라고 하더라도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오는 경우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Mukohang'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고, 'Mukhohang'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Mukohang'을 'Mukhohang'이라고 수정하는 근거는 ㉠이다. '묵'의 'ㄱ'은 수정 전이나 후 모두 'k'로 적고 있으므로 ㉡을 수정 근거로 볼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① ㉠에 따라 소문자 'h', 'b'를 대문자 'H', 'B'로 고쳐야 한다. 그리고 ㉡에 따라 'Binna'를 'Bina'로 고치고 성인 'Hong'과 띄어 써야 한다.
 ② ㉡에 따라 'ㄷ'은 모음 앞에서는 'd'로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에 따라 'ㄹ'은 'l'로 표기해야 한다.
 ③ ㉢에 따라 'ㅂ'은 모음 앞에서는 'b'로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에 따라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④ ㉣에 따라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에 따라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ss'를 's'로 표기해야 한다.

15 국어의 역사_중세 국어의 특징

중세 국어는 받침이 있는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으면 이어적기를 했다. '보미'는 '봄'에 부사격 조사 '이'가, '고지'는 '꽃'의 옛말인 '곶'에 주격 조사 '이'가 붙어 이어적기를 한 예이다.

- 오답 풀이** ① 'ㅅ'과 같이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쓴 것을 합용 병서라고 한다.
 ② 현대어 역에 따르면, '았'은 '안'으로 해석된다. 즉 'ㅅ'이 현대 국어의 '의'와 같이 관형격 조사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④ '무수물', '니세시니'에 사용된 '△(반치음)'은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자음이다.
 ⑤ '두룰'은 '둘'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은 것이다. 목적격 조사 '를, 를, 을, 을' 중에서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경우 '을/을'이 붙는데,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경우 '을'이, 음성 모음일 경우 '을'이 붙는다. '·(아래아)'는 양성 모음이므로 '을'을 붙이고 이어적기를 하여 '두룰'이 된 것이다.

모의고사 2회

화법/작문/문법

본문 044~051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③	05 ②	06 ④
07 ⑤	08 ④	09 ⑤	10 ①	11 ⑤	12 ③
13 ②	14 ①	15 ①			

01 듣기·말하기 전략

강연자는 청소년 흡연 실태와 문제점 및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청소년 흡연의 구체적인 실태와 이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싶을 것이므로 ⑤와 같은 내용의 청중 분석은 적절하다. 그러나 강연자는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제도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마지막 강연을 맡은 강연자는 도입부에서 광고 영상을 먼저 보여 줌으로써 집중력이 떨어졌을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② 강연자는 청소년 흡연율 그래프와 청소년 흡연량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청중에게 심각한 청소년 흡연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③ 강연자는 청소년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한 한국 학교 보건 협회장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청중에게 들려 줌으로써 청소년기 흡연의 해로움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④ 강연자는 강연 주제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을 비흡연 학생들에게는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02 자료와 매체 활용

3점 집합이

제시된 자료는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담배 구입 방법에 대한 그래프로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를 이 강연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파악한다.

제시된 자료(청소년들의 담배 구입 방법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담배 판매처에서 담배를 구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허술한 현실을 드러내므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제시된 자료는 청소년의 담배 구입 방법을 나타내고 있을 뿐, <자료 1>의 청소년 흡연율과의 상관관계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 ② 제시된 자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에 대한 규제가 허술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오히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법의 실효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 ③ 제시된 자료는 이미 흡연을 시작한 학생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흡연의 시작 동기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 ④ 제시된 자료에 나타나듯이 어른들이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경우는 31.4%이지만 이는 전체 방법 중 많은 편이라 볼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것은 강연의 주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03 담화 내용 생성

최 선생은 현행 투표 제도를 보완하지는 의견을 제시하며 투표 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고려한다면 최 선생은 투표소 설치 장소를 유권자의 편의에 맞추고 투표소를 확대 설치하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국민에게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문화를 만드는 것에 해당하므로 정 박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다.
- ② 투표 참여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최 선생의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
- ③ 투표 참여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최 선생의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
- ④ 최 선생은 현 투표 제도를 보완하여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투표율 현황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현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라 할 수 없다.

04 담화의 수용 및 평가

정 박사는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투표율은 저절로 상승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김 의원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근거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및 자치 단체 선거의 실제 투표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최 선생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현 투표 제도를 보완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투표 시간을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박 교수는 심리학과 관련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사회자는 도입부에서 토의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한 후에 토의를 시작하고 있으며, 토의 참여자들의 의견을 간략히 정리하고 발언 순서를 차례대로 짚어 주며 토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05 말하기 계획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청소년 비만의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발표자가 청중인 학부모들이 청소년 비만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발표자는 학부모들에게 우리나라 청소년 비만 실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만의 원인을 설명한 후, 청소년 비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 비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발표자는 비만 치료 전문의의 인터뷰 동영상을 활용하여 청소년 비만 문제의 해결 방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발표자는 “청소년 비만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와 “그럼 청소년 비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청중에게 던지며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 ⑤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표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을 활용하여 청소년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청중인 학부모들도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06 글쓰기 계획

(가)에는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 있지만,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과학자들의 사회적·법적 책임 범위를 규정하겠다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학생은 자신이 본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문제의 실태를 알리는 글을 쓴다고 하였으므로 논의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가)에서 과학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제시하며 문제의 실태를 알린다고 하였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과학 연구 행위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가)에서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를 과학의 연구 특성 측면과 과학자의 사회적 위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가)에서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07 자료 활용 방안

[B]는 과학적 연구는 가치 판단이 전제되며 이러한 가치 판단은 사회적 파급력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과학자의 연구 활동 자체가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의 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A]는 실제로 존재했던 과학자의 사례를 제시한 자료이므로 주관적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A]에서 마리 퀴리는 과학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이를 실천한 인물

이므로,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과학자의 연구 결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사례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A]의 사례는 실제로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따른 책임을 다한 경우이므로, 과학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 사례로 사용 가능하다.

④ [B]는 과학 철학을 전공한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이다. 작성하고자 하는 논설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견해이므로 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08 글쓰기 전략

학생은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 자신의 성격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학생은 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단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조직 방법에서 '수집한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문단을 조직함'이라는 항목에 따라 (나)의 1문단은 자신의 성격(장점과 단점), 2문단은 교내 활동, 3문단은 교외 활동, 4문단은 장래 희망으로 나누어 문단을 조직하였다.

② 입시 담당자가 궁금해 하는 인성적 요소를 1문단에서 소개하면서 고등학교 축제 때의 경험을 제시하여 자신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글쓰이는 교내 토론반 활동을 통해 얻게 된 점을 소개하고 있다. 지식적 측면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태도적 측면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발전시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⑤ (가)의 작문 목적과 예상 독자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나)를 작성한 목적은 예상 독자인 입시 담당자에게 자신의 능력, 인성 등에 대해 소개하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3문단에서 공식적 수상 경력과 개인적 활동을 소개하여 글쓰이가 해당 대학 진학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예상 독자에게 소개하고 있다.

09 제시된 내용에 따라 글쓰기

3점 길잡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내용 중에서 ㉠을 <보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서술하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된 내용상 조건, 표현상 조건을 이해하고 각 선지에서 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 본다.

⑤의 '전문이 좁은 학생에 지나지 않았던 제가 이제 어디를 가든 지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에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훌륭한 외교관'에는 졸업 후 진로가, '소금 같은 존재'에는 희망을 비유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① '뿌리가 희생하여 나무를 키우듯 ~ 국력을 키우는 외교관'에 희망을 비유한 표현이 드러나 있고, '외교관이 되어'에 졸업 후 진로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② '저는 한때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토론반 활동 덕분에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에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토론의 왕 같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에 희망을 비유한 표현이 드러난다. 하지만 졸업 후 진로와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자기 생각만 고집하던 제가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에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국제 기구에서 일하면서'에 졸업 후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희망을 비유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④ '이후 이 방면의 전문가가 되어'에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 있고, '등대 같은 존재'에 희망을 비유한 표현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드러나 있지 않다.

10 내용의 보완·조정

㉠은 친구들에게 건네는 안부 인사로, 신입생 후배를 환영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소개한다는 신입생 환영사의 목적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의 뒤 문단에서 신입생들에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추천하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동아리만이 아니라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비록'은 '~일지라도'와 호응하는 부사어이며, 서술어를 고려했을 때 '이제'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④ '엿지 있다'는 영어의 'edge'에서 나온 말로 '남들과 차별되는 개성이 있다.'의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이는 무분별한 외국어 표현에 해당하므로 우리말 '돋보이는' 정도로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⑤ 이 글은 선배로서 새로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배들을 환영하고 학교생활에 대해 조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글이다. 제시된 초고에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환영의 말이 없으므로 후배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말을 넣는 것이 적절하다.

11 단어_품사

㉠의 '느'는 영화가 문장의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의 '은'은 인생과 예술이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동일한 의미를 더하여 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의 '가'는 철수가 밥을 먹는 행동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이다.

② ㉠의 '와'는 목적어가 되는 '개나리'와 '진달래'를 영화가 좋아하는 꽃이라는 의미로 동등하게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③ ㉡의 '그래'는 청자에게 친구가 떠난 상황을 강조하여 전달하는 보조사이다. 즉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하고 있다.

④ ㉠의 '을'과 ㉡의 '를'은 형태는 다르지만 앞의 단어가 목적어가 되게 하는 목적격 조사이다.

12 문장_문법 요소

3점 길잡이

<보기 1>에 제시된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의 개념을 <보기 2>의 선지에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보기 2>의 대화 속에서 높임의 대상을 파악하고 각 문장의 의미에 맞는 적절한 높임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파악한다.

'계시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의 뜻을 가진 '있다'의 높임말이다. 주체를 직접 높일 때는 '계시다'를 사용하고, 주체와 관련된 사물 등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일 때는 '있으시다'를 사용한다. "선생님께서 과제에 관한 말씀이 계셨니?"에서는 '말씀'을 높여 주체인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여야 하므로 '계셨니?'를 '있으셨니?'로 고쳐 말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의 '오라고'를 '오시라고'로 바꾼다면 이는 '조장들'을 높이는 것이 되므로, '오라고 하셨어'로 써서 '선생님'만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

②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주체의 신체 부분, 개인적 소유물, 관련된 일이나 사물 등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의 '조별 과제'는 높여야 할 대상인 '선생님'과 관련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해 '때문하신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을 '부실하시다고'로 고쳐 쓸 경우 '선생님'이 아닌 '과제 계획'을 높이는 것이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㉔이 쓰인 '다시 작성한 과제 계획을 선생님께 보여 주어야겠다.'에서 '선생님께'는 부사어이므로 객체이다. 즉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을 사용해야 하므로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서술어인 '드리다'를 사용하여 '보여 주어야겠다'를 '보여 드려야겠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3 문장_문장의 짜임

접문장에서는 안긴문장의 꾸밈을 받는 체언이 안긴문장의 한 성분과 같을 때 그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㉔은 원래 '물이(주어)+골짜기에(부사어)+흐르다(서술어)'라는 문장이며, '형은 물을 떠 왔다.'라는 문장 속에 관형절로 안긴문장이다. 이때 안긴문장의 꾸밈을 받는 '물'이 ㉔의 주어와 같으므로 ㉔의 주어가 생략된 것이며, '골짜기'는 주어가 아닌 부사어이다.

오답 풀이 ① ㉔은 문장 속에서 체언인 '물'을 수식하므로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㉔의 '그와 내가 결혼한 사이임'이 뒤에 나오는 서술어 '아는'의 서술 대상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안긴문장은 문장 속에서 목적어 구실을 할 수 있으며, 이는 ㉔ 뒤에 붙은 목적격 조사 '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④ 안긴문장 '그와 내가 결혼한 사이임' 속에는 '사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그와 내가 결혼한'이라는 안긴문장이 또 들어 있다.

⑤ ㉔의 '기러기들이 줄지어'라는 안긴문장은 뒤에 나오는 '날아갔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14 국어의 규범_한글 맞춤법

'귓바[귀뺨/귓뺨]'은 '귀'와 '뺨'이라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이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1-(1)의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허점[허점]'은 '허(虛)'와 '점(點)'이라는 두 개의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로 순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으므로 1-(1)의 예로 추가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넷물'은 순우리말인 '내'와 '물'의 합성어이고 '[넉:물]'로 발음되며, '넉마당'도 순우리말인 '터'와 '마당'의 합성어이고 '[넉마당]'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1-(2)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③ '빗물'은 '[빈물]'로 발음되기 때문에 1-(2)의 조건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④ '넋가'는 '[내:까/넉:까]'로 발음되기 때문에 1-(1)의 조건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⑤ '못자리'는 순우리말인 '모'와 '자리'의 합성어이고 '[모짜리/몬짜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1-(1)의 조건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15 국어의 역사_중세 국어의 특징

〈보기 2〉의 첫 번째 문장은 상대에게 간단한 가부(可否)의 대답을 바라는 판정 의문문이다. '상(賞)'에는 조사 '가'를 붙여 의문문을 실현하고, '벌(罰)'은 받침 'ㄹ' 뒤에 조사 '가'가 변이되어 '아'를 붙여 실현한다. 〈보기 2〉의 두 번째 문장은 '누'라는 미지칭 대명사가 의문사로 쓰인 설명 의문문이다. '누'는 인칭 대명사 중 하나로 분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나 대상을 지칭한다. '누' 뒤에 조사 '고'를 붙여 의문문을 실현한다. '부테'는 '부터'에 주격 조사 'ㅣ'가 붙어 '부처가'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II 독서

실현 1

인문_철학

본문 056~057쪽

01 ④ 02 ⑤ 03 ⑤

[유가 사상에서의 도덕적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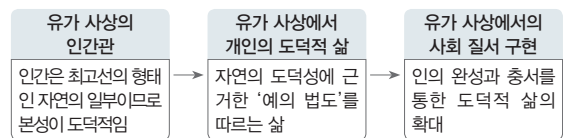
해제 이 글은 유가 사상에서 중시하는 도덕적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가에서는 인간을 최고선인 자연의 속성을 안고 태어난 존재로 보고, 인간이 의식 주관을 통해 이러한 도덕적 본성을 성찰하면서 예의 법도에 따라 성인들의 삶을 배운다면 타인을 이해하고 베푸는 마음인 충서(忠恕)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유가 사상에서는 개인이 도덕적 삶을 실천함으로써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제 유가 사상에서의 도덕적 삶

특징 문답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강조함

구성 1문단 : 인간의 본성이 도덕적이라고 본 공자의 유가 사상
2문단 : 유가의 자연관에 기인한 인간의 도덕적 본성
3문단 : 도덕적 본성을 바탕으로 자연의 질서를 구현하는 유가 사상
4문단 : 유가 사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삶의 실천 방법
5문단 : 개인의 도덕적 삶을 사회 질서 구현으로 확장하는 유가 사상의 충서

한눈에 보기



01 핵심 내용 파악

(라)에서는 유가 사상에서의 도덕적 삶이란 성인들이 찾아낸 인간의 도덕 원리인 '예의 법도'를 따른 삶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라)에는 '예의 법도'의 의미와 도덕적 삶의 실천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나, '예의 법도'의 의미가 변화한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도덕과 질서를 중시한 유가 사상의 특징과 인간의 본성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던 공자의 사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도덕적인 이유를 어질고 성실한 자연의 생명력, 즉 최고선의 상태인 자연에서 찾았던 유가 사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자연의 질서가 구현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유가 사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즉, 개인의 도덕적 삶을 통해 인간 사회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질서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⑤ (마)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삶이 충서를 통해 확대되면 사회 질서를 구현하고 세상을 교화할 수 있다는 유가 사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02 세부 정보 추론

유가 사상에서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고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며 자연의 질서가 구현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풀이 ① (다)에 따르면 유가 사상은 인간에게 자연의 속성을 물려받은 도덕적 본질 외에 육체에서 기인하는 욕망과 본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 사상이 인본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이유와 인간의 욕망과 본질을 구분한 유가 사상의 특성은 긴밀한 연관이 없다.

② (다)에서 유가 사상은 인간의 기질이 깨끗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인간의 기질을 순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 (나)에서 유가 사상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

④ (다)에서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의식 주관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유가 사상에서 인간을 동물보다 우월하게 여기는지는 알 수 없으며, 유가 사상이 인본주의적 사상인 이유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03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다)에서 인간이 욕망과 본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기질이 깨끗하며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의식 주관이 있어서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반성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어서라고 하였다. 따라서 유가 사상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그 기질이 깨끗하고 의식 주관이 있는데, '예의 법도'에 따라 살지 못하여 '명분'에 충실하지 못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보기>에서 정명론의 명분에 따라 사는 삶은 '예(禮)'를 통해 규정된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이 글의 '예의 법도'와 연관 지을 수 있다.

② <보기>에서 명분은 '~답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명분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답지 않게 행동하지 않고 명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의미이므로 이를 이 글의 스스로를 다스려 예에 따라 사는 도덕적 삶과 견줄 수 있다.

④ <보기>의 '자연의 질서가 세상에 구축된다'는 것은 이 글의 (나)에서 설명한 어질고 성실한 자연의 생명력, 즉 최고선에 해당하는 자연의 본성이 구현된 이상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실전 2

인문_심리학

본문 058~059쪽

01 ⑤ 02 ① 03 ③

[또 다른 지적 능력, 메타인지]

해제 이 글은 인간만의 지적 특징인 메타인지 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하는 메타인지 능력의 개념을 설명하고 메타인지 능력이 교육을 받거나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메타인지의 구성 요소인 메타인지적 지식과 메타인지적 기술에 대해 학습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며,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인지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어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주제 메타인지 능력의 개념과 향상 방법

특징 컴퓨터와 인간의 대조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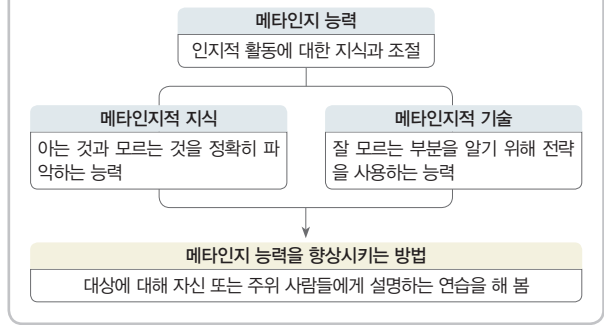
구성 1문단 : 인간이 지닌 특별한 능력인 메타인지

2문단 : 메타인지의 개념과 역할

3문단 : 메타인지적 지식과 메타인지적 기술로 구성되는 메타인지

4문단 :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한눈에 보기



01 핵심 내용 파악

이 글에서는 메타인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메타인지적 지식'과 '메타인지적 기술'을 제시하고 있을 뿐 메타인지의 유형이나 그에 따라 달라지는 학습 양상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하는 메타인지의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② 3문단에서 메타인지적 지식과 메타인지적 기술이라는 메타인지의 두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메타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대상에 대해 설명해 보는 것이 좋다고 서술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메타인지 능력을 통해 수행하거나 배우는 중에 어떤 활동과 능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02 구체적 사례에 적용

⑦은 자신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메타인지의 오류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남들에게 냉장고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메타인지의 판단 오류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③ 학생들에게 시험에 관한 반성을 종이에 쓰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메타인지적 지식과 메타인지적 기술을 동원하여 시험에 대해 성찰하도록 하는 것일 뿐, 자신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생기는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사람들이 수입과 지출에 대해 상반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⑤ 사람들이 행동을 결정할 때 비율을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만 오천 원 중 오천 원은 1/3에 해당하는 금액인 반면, 십만 원 중에서 오천 원은 1/20에 불과한 금액이므로 사람들은 이러한 비중에 따져 달리 행동한다.

03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A 학생들의 경우 기억할 것으로 예상한 단어의 개수와 실제 기억한 단어의 개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이는 A 학생들이 자신들의 사고 과정 전반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A 학생들이 B 학생들보다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A 학생들과 B 학생들 간에 기억해 낸 단어 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에서 학습에 미치는 메타인지 능력의 영향이 기억력보다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실험에서는 연관성 없는 단어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A 학생들이 B 학생들보다 단어들 간의 연관성을 더 잘 찾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④ B 학생들이 A 학생들보다 기억할 것으로 예상한 단어의 개수와 실제 기억한 단어의 개수 차이가 많이 난 것에서, B 학생들이 자신들의 사고 과정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평가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A 학생들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보기>의 실험은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A 학생들이 B 학생들에 비해 사고 과정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법의 변화를 다루지만 민법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에서는 근대 민법에 적용된 원칙과 그것의 수정을 다룬 뿐 국가별 민법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다른 나라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민법의 형성 과정과 공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점을 제시하였으므로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법률과의 차이와 관련한 '특수성'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민법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 뿐, 민법을 통해 바라본 우리 역사를 서술한 글이 아니다. 민법 개정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세부 정보 확인

1문단에서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법의 범위 안에 민법이 들어간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로마의 시민법이 유럽 전체에 보급, 적용되고 이후 시민 혁명을 거쳐 근대 사회의 민법으로 체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근대 민법의 원칙이 수정된 배경으로 빈부 격차와 대기업의 독점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 수정된 민법 원칙들은 개인의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공공복리나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근대 민법의 세 가지 원칙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예외가 발생할 때 수정된 원칙을 통해 이전보다 권리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⑤ 4문단에 법적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설명되어 있다.

03 구체적 사례에 적용

<보기>의 민법 제750조는 근대 민법의 원칙 중에서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과실 책임 원칙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나 3문단에 따르면 과실 책임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오히려 확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예외를 규정한 조항으로, 법적 관계가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A와 B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면, 제103조의 규정대로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③ 제211조는 소유자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 의사대로 소유물을 사용하고, 소유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며 소유물을 소비·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근대 민법의 원칙인 사유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제211조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권이 있다고 하여, 사유 재산권이나 소유권이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기보다 법률에 의해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될 수도 있는 상대적 권리임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전 3

사회 법

본문 060~061쪽

01 ③ 02 ② 03 ⑤

[근대 민법의 형성과 발전]

해제 이 글은 근대 민법의 형성 과정과 기본 원칙,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라 수정된 민법의 원칙 등을 밝히고 있다. 로마의 시민법에서 출발한 근대 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근대 민법의 원칙들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겪으면서 공익이나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은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고 하여 민법의 발전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근대 민법 발전 과정과 기본 원칙

특징 • 근대 민법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밝힘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민법 원칙을 설명함

구성 1문단 : 공법과 사법의 구분

2문단 : 근대 사회 민법의 형성 과정

3문단 : 민법의 기본 원칙과 그 의미

4문단 : 사회 변화에 따라 수정된 민법의 기본 원칙

5문단 : 수정·보완을 통해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게 된 민법

한눈에 보기

민법의 3원칙(수정 전)	민법의 3원칙(수정 후)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되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정됨

01 핵심 내용 파악

이 글에서는 고대 로마 시대에 등장한 민법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제시하였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사상이 반영되었던 민법의 기본 원칙이 사회 전체의 공익의 가치를 고려하게 되면서 그 내용이 수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③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01 ③ 02 ④ 03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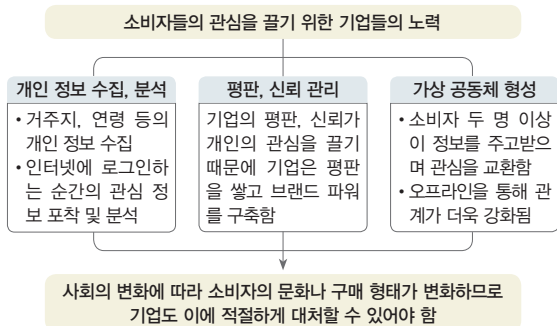
[관심의 경제학]

해제 이 글은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새롭게 나타난 경제학의 관점인 '관심의 경제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인해 이제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다루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기업들은 개인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평판과 신뢰 관리에 신경 쓰며, 소비자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가상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글쓴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문화나 구매 형태도 변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제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경쟁 대상이 되는 관심의 경제학

특징 • 관심을 얻기 위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노력을 소개함
•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의 의견을 제시함

구성 1문단 :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관심의 경제학
2문단 :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업의 노력 ① - 개인 정보 수집, 분석
3문단 :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업의 노력 ② - 평판, 신뢰 관리
4문단 :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업의 노력 ③ - 가상 공동체 형성
5문단 :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처 능력이 필요한 이유
한눈에 보기



01 전개 방식의 특징

이 글에서는 '관점의 경제학'이라는 하나의 관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을 뿐 이를 다른 관점과 비교하거나 대조하고 있지 않으며 절충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관심의 경제학'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인터넷의 등장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인터넷 등장 이전 정보가 부족했던 과거 상황과 인터넷 등장 이후 인간의 관심과 시간이 희소해진 현재 상황을 대비하고 있고, 3문단에서 현실 공간에서 기업이나 상품을 접했던 과거와 달리 주로 웹에서 기업과 상품을 접하게 되는 현재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④ 2~4문단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업의 다양한 노력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기업에 대한 평판과 신뢰 관리, 가상 공동체의 형성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5문단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각각 예상되는 결과를 밝힘으로써 사회 변화에 따라 기업의 대처 능력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02 세부 정보 추론

이 글에서 말하는 온라인 가상 공동체는 기업이 소비자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형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소비자들끼리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는 순간 어떤 정보에 관심을 갖는지 포착할 정도로 개인의 관심을 알고 싶어 하므로 소비자가 많이 보는 인터넷 페이지도 궁금해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광고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잠재 고객을 유인하므로, 다양한 매체에 광고를 내보내면 소비자의 소비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③ 이메일 주소는 개인의 정보로, 이를 통해 기업은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기업은 개인에게 접근함으로써 개인의 관심을 수집·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회사의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려 하므로 이메일 주소가 거래되는 것이 이익 창출과 관계됨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개인의 관심 자체가 경쟁 대상이 된 상황에서 개인의 관심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 능력은 기업 생존의 관건이 된다고 하였다.

03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기업이 사회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보기>에서 정보 재화를 생산하는 회사의 이익 창출 방법은 자본주의 경제학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으므로, 글쓴이는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정보화의 발달에 따른 의사소통의 혼란이나 새로운 판매망 구축에 대한 내용은 이 글과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이 글의 글쓴이는 기업이 사회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희소한 실물 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논의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보기>에서 잠재 고객의 분포 범위가 확대됨은 알 수 있으나 이 글의 글쓴이는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보기>에 나타난 기업의 이윤 창출 방식은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학 개념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도 여전히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재화'는 존재하며 이 글을 통해서도 재화의 생산과 판매로 이익을 창출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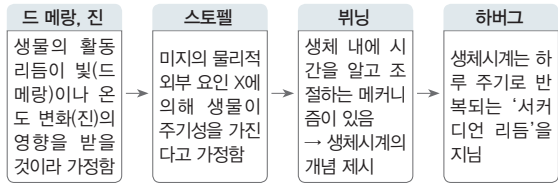
01 ③ 02 ④ 03 ④

[생물학에서의 시간의 발견]

해제 이 글은 생체시계에 관한 과학적 이론이 성립되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한 다음, 생체시계의 기능과 가치를 밝히고 있다. 드 메랑과 진의 미모사에 대한 실험에서 시작하여 스토펬의 견해와 뷔닝의 반론을 거쳐 하버그의 실험에 이르기까지 생체시계에 대한 이론을 확립해 가는 과학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서커디언 리듬의 개념 설명을 통해 생체시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생체시계의 가치를 밝히고 있다.

- 주제** 생체시계에 관한 이론의 성립 과정과 생체시계의 가치
- 특징** 이론이 확립되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함
- 구성** 1문단 : 드 메랑과 진의 미모사 실험
 2문단 : 스토펬의 가정과 뷔닝에 의한 생체시계의 개념 제시
 3문단 : 서커디언 리듬과 자유 진행 리듬의 개념
 4문단 : 생체시계가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이유
 5문단 : 생체시계의 기능과 가치

한눈에 보기



01 세부 정보 추론

4문단에서 생물은 빛의 변화가 없는 경우 다른 외부 환경의 변화 주기를 단서로 이용하여 생체시계의 주기를 맞춘다고 하였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4문단에서 24시간을 주기로 되풀이되는 환경 속에서는 모든 생체시계가 정확히 24시간을 주기로 맞춰진다고 했으므로 생체시계의 회전 주기는 바깥 환경의 주기와 동일하게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
- ② 5문단에서 생체시계는 생물들이 변하는 환경에 따라 스스로를 변화시켜 생존에 유리하게 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했으므로 생물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1문단과 2문단의 내용으로 볼 때, 미모사는 빛이나 온도와 같은 외부의 물리적인 요인에 따라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어서 생체시계의 개념을 최초로 발표한 뷔닝의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미모사도 결국 생체시계에 따라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뷔닝이 생체시계의 개념을 제시하기 전에 과학자들은 생물이 빛이나 온도, X라는 미지의 물리적 요인 등 외부의 요인에 의해 24시간 주기를 갖는다고 생각하였다.

02 정보 간의 관계 파악

㉔는 생물의 활동 리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외부에 있다고 보고 이를 요인 X로 지칭한 스토펬의 가설이다. 2문단을 보면 '외부적인 요인 X를 찾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였다.'라고 하였으므로 ㉔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뷔닝이 외부적 요인 X를 부정하고 새로운 견해, 즉 생체시계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으므로 ㉔를 통해 스토펬의 가설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생물의 활동 리듬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뷔닝의 실험에 의해 '생체시계'라고 밝혀졌다. 따라서 ㉔와 ㉖의 결론은 ㉔의 결과로 제시된 '생체시계'이며, ㉔에서 가정된 요인 X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③ ㉔와 ㉖는 각각 빛과 온도에 의해 미모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한 실험이지만 그 결과 미모사는 빛과 온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행동하였다. 또한 ㉔는 외부의 물리적 요인 X에 의해 생물의 활동 리듬이 주기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 ⑤ 뷔닝의 실험은 생체시계의 개념을 제시한 시초에 해당하고, 생체시계의 주기가 대략 24시간이라는 것은 이후에 1960년 미국의 하버그가 서커디언 리듬과 자유 진행 리듬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면서 밝혀졌다.

03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하루 주기로 반복되는 생체시계의 리듬을 서커디언 리듬이라고 하는데, <보기>의 고니오락스는 24시간을 주기로 생체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생체시계가 24시간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부적 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도 생체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해 생체시계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생체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커디언 리듬은 3문단에서 설명하듯 '빛이나 온도 등 주기적으로 변하는 모든 요인을 없앨 경우에 생물체가 보이는 약 24시간의 주기를 가진 리듬'이다. 따라서 <보기>처럼 인위적으로 낮과 밤의 변화를 없애고 아주 약한 불빛을 지속적으로 켜 두더라도 고니오락스의 생체시계는 유지되고 외부 요인 없이도 서커디언 리듬은 유지한다. 그러므로 외부의 빛과 온도에 변화를 준다고 해도 주기가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고니오락스의 광합성은 밝은 조명을 주고 6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광합성이 24시간의 생체 주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② 고니오락스가 밝은 섬광을 발하는 일은 조명을 끄고 6시간 뒤에 일어났고, 약한 불빛을 내는 일은 어두운 시기에서 밝은 시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일어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빛의 변화를 주지 않고 일정한 빛을 비추는 상태를 유지하였을 때도 고니오락스들이 이러한 생체 활동을 유지하였다고 했으므로 고니오락스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빛을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글에서 실험 대상이 된 식물들도 24시간의 생체 주기를 가지고 있고, 고니오락스 역시 24시간의 생체 주기를 지니고 있다.
- ⑤ 고니오락스들이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내용은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글에 제시된 생체시계의 내용과도 관련이 없다.

실전 b

과학 물리

본문 066~067쪽

01 ⑤ 02 ③ 03 ④

[접착제 붙는 힘 어디서 나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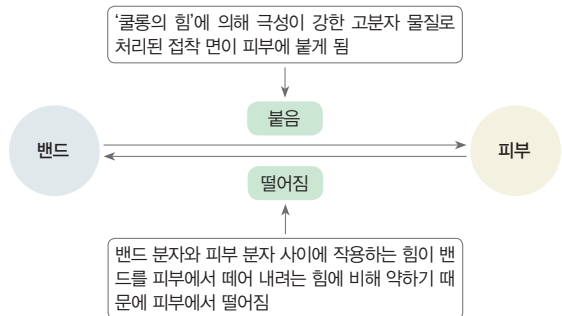
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그 속에 담긴 물리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밴드가 매끄러운 피부에 잘 붙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물 분자의 경우를 사례로 제시하여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물 분자는 분자 안에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생기는 극성 분자로 '쿨롱의 힘'에 의해 양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가 다른 물 분자의 음전하를 띠는 산소 원자 쪽에 가까워지려 한다. 이처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이 극성을 강하게 띠는 고분자 물질로 처리된 밴드의 접착 면의 분자와 피부의 분자 사이에 작용하여 밴드가 피부에 잘 달라붙게 되는 것이다.

주제 실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쿨롱의 힘

- 특징** • 다양한 용어의 개념을 풀이함
 •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알기 쉽게 설명함

- 구성 1문단 : '쿨롱의 힘'에 대한 설명과 화제 제시
 2문단 : 물 분자의 공유 결합에서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이유
 3문단 : 쌍극자 모멘트의 합에 의해 극성이 생기는 극성 분자인 물 분자
 4문단 :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
 5문단 : 밴드를 피부에 접착시켰다가 떼 수 있는 이유

한눈에 보기



01 전개 방식의 특징

'쿨롱의 힘'이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밝히고 있지만, '쿨롱의 힘' 법칙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쿨롱의 힘', '쌍극자', '쌍극자 모멘트' 등 낯선 용어를 풀이하여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밴드가 매끈한 피부에 잘 붙는 이유를 묻는 질문을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 이유가 '쿨롱의 힘'과 관련이 있다는 답을 제시한 후 쿨롱의 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③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접착 밴드를 사례로 제시하여 '쿨롱의 힘'이라는 물리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을 막대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02 세부 정보 확인

5문단을 통해, 밴드의 접착 면은 극성을 강하게 띠는 고분자 물질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잘 붙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쿨롱의 힘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밴드가 매끄러운 피부에 잘 붙는 이유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④ 5문단에서 밴드의 접착력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 힘의 일종인 쿨롱의 힘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밴드의 접착 면은 극성을 강하게 띠는 고분자 물질로 처리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밴드 분자와 피부 분자 사이에 전기적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밴드와 피부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 다른 힘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밴드가 떨어진다고 했으므로, 작용하는 힘이 다른 힘에 비해 강하다면 잘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03 구체적 사례에 적용

ㄷ은 모든 물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만유

인력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사례일 뿐, 전하를 가진 물체가 서로 가까이 있을 때 밀거나 당기는 힘인 '쿨롱의 힘'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는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ㄱ. 순간접착제가 깨진 그릇을 붙이는 것 역시 순간접착제와 그릇의 분자가 강한 힘으로 붙어 있기 때문이다.

ㄴ.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을 쌍극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데, '얼음 → 물 → 수증기' 순으로 쌍극자 간의 힘이 점점 약해짐을 알 수 있다.

ㄷ. 프라이팬 표면의 분자와 음식물 분자가 달라붙는 것은 '쿨롱의 힘'에 의한 것이다. 분자 간에 힘이 극히 작아 안정적인 테플론이라는 물질로 프라이팬 표면을 코팅하여 음식물이 프라이팬에 붙지 않게 한 것은 쿨롱의 힘을 제어한 예에 해당한다.

실전 7

기술_ 기계·소재

본문 068~069쪽

01 ② 02 ① 03 ④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구조와 원리]

해제 이 글은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전지의 구조와, 연료 전지가 전기를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해 구동력을 얻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내연 기관 자동차와 달리 유해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청정 자동차라고 소개하면서 값비싼 비용과 기술적 한계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연 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주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구동 원리

특징 • 대상의 한계와 전망을 함께 제시함
 • 대상의 구동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함

구성 1문단 :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개념과 이점, 개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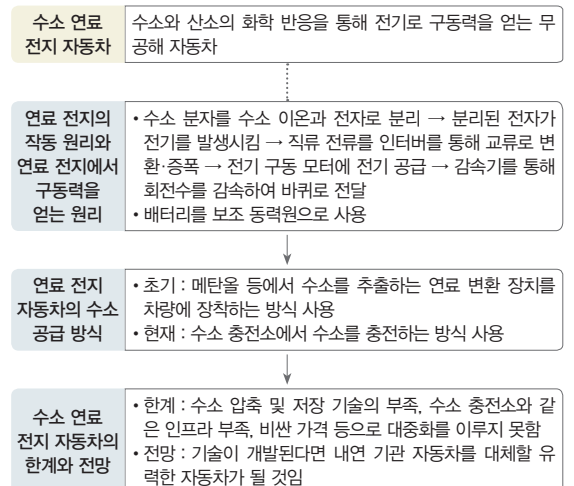
2문단 : 수소 연료 전지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

3문단 : 수소 연료 전지에서 만들어진 전류로 자동차의 구동력을 얻는 원리

4문단 :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수소 공급 방식

5문단 :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한계 및 전망

한눈에 보기



01 전개 방식의 특징

1문단에서 일부 회사들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양산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개발 현황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에 기대하는 수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5문단에서 수소 압축 및 저장 기술의 부재, 수소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의 부족, 비싼 가격 등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대중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수소 연료 전지의 구성이나 형태, 수소 연료 전지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⑤ 5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국가적인 노력과 기술 개발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대중화를 막는 걸림돌이 제거된다면'이라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다른 내연 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서술하고 있다.

02 세부 정보 확인

5문단에서 아직까지는 충분한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수소를 차에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소를 경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1~2문단에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발생하는 전기로 구동력을 얻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차를 가속시킬 때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니켈 수소,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 등을 주원료로 하는 배터리를 보조 동력원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④ 4문단에서 수소를 자동차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위 체적당 밀도를 최대한 작게 해야 하며, 이렇게 수소를 압축하여 저장하는 기술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나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미세 먼지 등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청정 자동차로 일컬어져 세계 각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였다.

03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이 글에서는 수소 이온이 연료 전지의 중심에 있는 전해질(㉠)을 통해 양극으로 흘러간다고만 서술하고 있을 뿐 이 과정에서 물과 열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양극으로 흘러간 수소 이온은 외부 회로를 통해 양극으로 들어온 전자, 양극에 공급된 산소와 결합하여 물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음극을 통해 들어온 수소(㉡)는 백금 등의 촉매제에 의해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된다고 하였다.

② 4문단에서 최근에는 연료 전지 자동차 내부의 수소 가스 탱크에 고압으로 수소를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수소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2문단에서 연료 전지의 음극을 통해 수소가 공급된다고 하였다.

③ 4문단에서 산소는 공기 중에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양극에 공급되는 산소(㉢)는 무제한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전류를 만들고 양극으로 흘러가 수소 이온, 산소와 결합해 물이 된다고 하였다.

실전 8

기술 전기·전자

본문 070~071쪽

01 ① 02 ① 03 ④

[3D 게임의 시야각]

해제 이 글은 게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가상 현실 기술 중 3D 그래픽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3D 게임은 사용자가 시점과 시야를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어서 2D 게임에 비해 현실감과 몰입도가 뛰어나다. 3D 게임에서 몰입도를 좌우하는 사용자의 시점과 시야는 카메라의 위치와 카메라 렌즈의 화각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와 같은 시야각의 원리를 게임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면 게임의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주제 3D 게임의 그래픽 기술과 사용자의 시야각

특징 • 2D 게임과 3D 게임의 특성을 대조하여 설명함
• 개념을 정의한 후 그 개념을 토대로 내용을 전개함

구성 1문단 : 게임 분야에서 확대 적용되고 있는 가상 현실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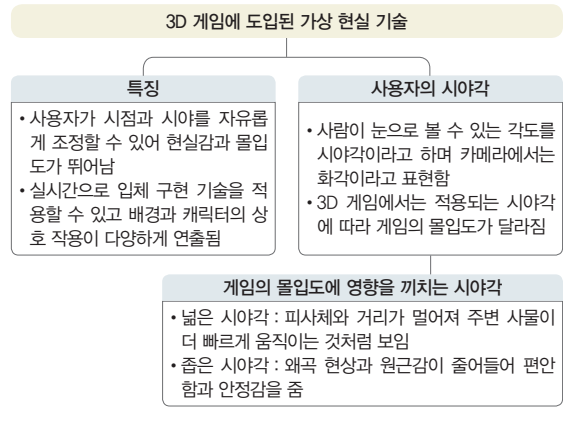
2문단 : 2D 게임과 3D 게임의 특징

3문단 : 시야각이 게임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4문단 : 초점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카메라 렌즈의 화각

5문단 : 게임 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야각

한눈에 보기



01 세부 정보 확인

2문단에서 2D 게임과 3D 게임은 특정 시점에서의 영상으로는 구분하기 힘들며, 게임 전체에서 실시간 입체 구현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살펴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② 4문단에 따르면 화각은 사람의 시야각을 기준으로 광각, 표준, 망원 영역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③ 3문단에 따르면 3D 게임에서 사용자의 시점과 시야는 카메라의 위치와 카메라 렌즈의 화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사용자의 시야각은 화면을 왜곡시켜 3D 게임 사용자에게 멀미와 같은 신체적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하였다.

⑤ 1문단에 따르면 게임의 경우 가상 현실 기술이 도입되면서 참여자가 가상 세계를 직접 변화시키거나 다른 참여자와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02 구체적 사례에 적용

5문단에서 좁은 시야각을 적용하면 왜곡 현상과 원근감이 줄어들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와

같은 경우에는 좁은 시야각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4문단에서 초점 거리가 길수록 화각은 좁아지며 화각과 사람의 시야각이 일치하는 지점은 초점 거리가 약 50mm일 때라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좁은 시야각을 위해 초점 거리를 50mm보다 늘려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④ 넓은 시야각을 적용하면 피사체와 거리가 멀어져 주변 사물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므로 <보기>의 상황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초점 거리를 줄이면 화각은 넓어지므로 좁은 시야각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⑤ <보기>의 상황에서 시야각을 조절하였다는 서술이 없으므로 현재 적용되어 있는 시야각이 표준 시야각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03 정보 간의 관계 파악

2문단에서 2D 게임도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적용하면 3차원적 공간의 느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입체적인 공간의 느낌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3D 게임은 사용자가 시점과 시야를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2D 게임에 비해 현실감과 몰입도가 뛰어나다고 하였다.

② 3D 게임은 사용자가 시점과 시야를 자유롭게 변화시키거나 배경과 캐릭터의 상호 작용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2D 게임은 미리 구현된 입체 이미지 데이터를 고정된 시점에서 보여 주는 것이고, 3D 게임은 카메라 시점에 따라 실시간으로 입체 구현 기술을 적용하여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미리 제작된 이미지를 보여 주는 반면, ㉡은 실시간으로 이미지 정보를 구성해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전 9

예술_건축

본문 072~073쪽

01 ④ 02 ③ 03 ③

[한국 전통 건축의 비대칭적 대칭]

해제 이 글은 비대칭적 대칭을 중시하는 한국 전통 건축 방식을 대칭적이고 정형적인 질서를 추구하는 서양 고전 건축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국 전통 건축에는 의도적으로 대칭 구조를 피하며 비대칭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좌우 모습이 거울에 비치듯 똑같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큰 균형감이 느껴지는 방식이며, 나름대로 고도의 질서를 갖는 구성 방식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대칭 구성이 잘 드러난 예로 소수 서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주제 한국 전통 건축에 나타나는 비대칭적 대칭 구성

특징 • 한국의 전통 건축 방식과 서양의 고전 건축 방식을 대조함
• 구체적인 예를 들어 비대칭적 대칭 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함

구성 1문단 : 한국 전통 건축에 나타나는 비대칭 구성

2문단 : 서양 고전 건축에 나타나는 대칭 구성

3문단 : 한국 전통 건축에 나타나는 비대칭적 대칭 구성

4문단 : 소수 서원에 나타나는 비대칭적 대칭 구성

한눈에 보기

한국 전통 건축	서양 고전 건축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느껴지는 비대칭적 대칭을 추구함	엄격한 대칭을 바탕으로 한 정형적 질서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함
자연의 모습을 좇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건물을 배치함	자연을 직선으로 재단하여 인간만의 질서를 세우려고 함
동양의 무위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음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기계 문명의 가치관을 기본으로 함

01 전개 방식의 특징

이 글에서는 서양 고전 건축에 나타나는 엄격한 대칭을 바탕으로 한 정형적 질서와 비교하여 한국 전통 건축에 나타나는 비대칭적 구성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 전통 건축은 좌우 모습이 똑같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큰 균형감이 느껴지며, 이는 나름대로 고도의 질서를 갖는 또 다른 대칭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비대칭적 대칭 구성이 잘 드러난 소수 서원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비대칭적 구성 방식은 동양의 무위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며 사상적 근원을 제시하였을 뿐, 현상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② 기존 이론의 문제점이나 새로운 이론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문제 상황이 나타나는 사례나 해결 방안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한국 전통 건축의 비대칭 구성이라는 중심 개념의 통시적 변화 과정이나 그 역사적 의의는 나타나지 않는다.

02 구체적 사례에 적용

④는 소수 서원으로, 주도적인 중심축이나 대칭 구성과 같은 물리적인 질서는 없으나 편안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⑥는 베르사유 궁전으로, 주도적인 중심축에 따라 대칭을 이루고 있다.

오답 풀이 ① 4문단에 따르면, 소수 서원은 물리적 질서는 없으나 전체 공간이 편안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공간의 수용이나 해석을 각자에게 맡긴다고 하였다.

② 1문단에 따르면, 대칭 구도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에 가깝다고 하였다.

④ ⑥는 자연을 직선으로 재단하여 인간만의 질서를 세우려고 한 방식인 서양의 고전 건축 방식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본으로 한다. 이와 달리 한국의 전통 건축물인 ④는 주변 땅의 생김새를 좇아 자연스럽게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무위 사상을 기본으로 한다.

⑤ ④는 좌우가 똑같은 않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비대칭적 대칭 구성을 통해, ⑥는 엄격한 대칭 구도를 통해 균형감을 추구하고 있다.

03 세부 정보 추론

‘주변 땅의 생김새를 좇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건물을 배치하는 경향’, ‘건물이 약간 어긋나고 축은 안 맞을지 몰라도 그 사이사이에 적당한 양의 외부 공간이 있고, 그 속에는 다시 크고 작은 나무들이 담겨 어울리면서’ 등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은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즉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자연 친화적 건축관’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의 모습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을 배치하여 공간과 건물이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연의 결점을 보완한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비정형성을 추구하는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자연관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인간의 질서를 우선시하는 것은 서양 고전 건축의 특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한국 전통 건축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고, 자연을 현실의 한 계라고 여기지 않으므로, 자연을 뛰어넘어 이상적 세계를 구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정돈된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서양 고전 건축과 관련이 있다.

실전 10

예술_음악

본문 074~075쪽

01 ① 02 ④ 03 ①

[음악에 대한 칸트의 이중적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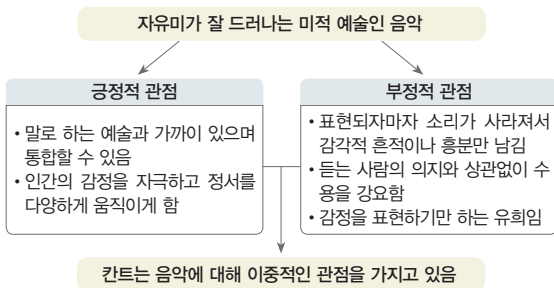
해제 이 글은 칸트의 음악에 대한 관점을 문학에 대한 관점과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다. 칸트는 인간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을 '미적 예술'로 정의하고, 예술에 나타나는 '미(美)'의 개념을 어떤 목적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미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종속미로 나누었다. 칸트는 음악이 자유미를 드러낼 수 있고 인간의 정서를 움직이게 하는 의미 있는 예술이라고 평가한 반면, 단순한 감정을 표현하기만 하는 데 그치는 유희라며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문학이 교양을 쌓게 하는 예술이라면 음악은 즐기는 예술이라고 여기면서, 음악을 문학보다 하급한 종류의 예술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주제 음악에 대한 칸트의 관점

특징 한 대상에 대한 특정 인물의 이중적인 관점을 소개함

- 구성** 1문단 : 칸트가 말하는 '미적 예술'의 정의
2문단 : 자유미가 잘 드러나는 예술인 음악
3문단 : 칸트가 음악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이유
4문단 : 칸트가 음악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이유
5문단 : 음악에 대한 칸트의 이중적 관점

한눈에 보기



01 핵심 내용 파악

이 글에서는 음악에 대한 칸트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칸트는 음악을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움직이게 하는 의미 있는 예술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단순한 감정을 표현하기만 하는 데 그치는 유희라고 하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이 글의 글쓴이는 음악에 대한 칸트의 이중적 관점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이 글은 칸트의 미적 예술에 대한 개념 및 음악과 문학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의 견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지는 않았다.
- ③ 이 글은 예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철학자들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바라보는 특정 인물, 즉 칸트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④ 이 글에 문학에 대한 칸트의 관점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음악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문학에 대한 칸트의 관점이 중심 내용이 아니다. 또한 문학에 대한 칸트의 관점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⑤ 예술과 기술, 문학과 음악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칸트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을 뿐, 그와 대립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2 세부 정보 확인

칸트는 '아름다운 예술도 인간의 기술에 의해 탄생'한다고 하였으므로, 미적 예술이 어떠한 기술도 거치지 않은 채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해야 한다는 서술은 칸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5문단에서 음악에 대한 칸트의 입장은 이중적이라고 하면서 이를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② 2문단에서 칸트의 예술 체계에서 음악은 아름다운 감각 유희의 예술로,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자유롭게 표출하며 자유미를 잘 드러낸다고 하였다.
- ③ 1문단에서 칸트는 미적 예술을 인간의 기술과 구별하면서, 미적 예술은 자연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규칙에서 해방된 자연의 산물처럼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 ⑤ 4문단에서 칸트는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교양을 쌓게 하는 문학을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예술로 보았고, 그 다음으로 음악을 꼽았다고 하였다.

03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칸트에 따르면 자유미는 어떤 개념이나 목적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며, 테마를 정하지 않은 교향곡이나 가사가 없는 연주곡 등의 순수한 음악에서도 자유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A씨의 곡에 가사를 붙여야 자유미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② 칸트는 미적 예술을 인간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의도적 규칙에서 해방된 자연의 산물처럼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A씨의 곡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종속미는 특수한 개념이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A씨의 곡은 관객 각 유치를 위해 작곡되었으므로 종속미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④ 칸트는 음악은 표현되자마자 소리가 사라져서 감각적 흔적이나 흥분만 남긴다고 하였으므로, 칸트의 의견에 따르면 A씨의 곡도 연주가 끝난 후 소리가 사라지고 관객들에게 감각적 흥분만을 남긴다고 볼 수 있다.
- ⑤ 칸트는 예술도 인간의 기술에 의해 탄생한다고 하였다. A씨는 여러 가지 기법과 형식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 냈으므로 A씨의 교향곡은 인간의 기술을 거쳐서 탄생한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모의고사 1회

독서

본문 076~083쪽

- | | | | | | |
|------|------|------|------|------|------|
| 01 ④ | 02 ② | 03 ② | 04 ⑤ | 05 ③ | 06 ③ |
| 07 ② | 08 ② | 09 ③ | 10 ① | 11 ⑤ | 12 ④ |
| 13 ② | 14 ⑤ | 15 ⑤ | | | |

[01~03]

[철학과 과학]

해제 신실증주의의 대표 학자인 카르납의 검증 이론과 이를 비판하며 등장한 포퍼의 반증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카르납의 검증 이론을 먼저 제시한 후 이 이론의 자기 모순적 속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포퍼의 반증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주제 카르납의 검증 이론과 포퍼의 반증 이론

특징 •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 과학의 정의와 방법론에 관한 학자들의 이론과 변천 과정을 드러냄

구성 1문단 : 감각적인 경험에 주어진 것만을 인정하는 실증주의
2문단 : 루돌프 카르납의 검증 이론
3문단 : 카르납의 검증 이론이 지닌 자기 모순적 속성
4문단 : 포퍼의 반증 이론
5문단 : 과학의 명제들은 모두 가설임을 전제로 한 반증 이론

한눈에 보기

실증주의	감각적인 경험에 주어진 것만을 인정함
카르납의 검증 이론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검증된 것만이 진리임
검증 이론의 한계	검증 이론의 자기 모순적 속성 - 모든 사례를 검토한 뒤 명제를 정립하지 않으므로 명제가 검증될 수 없음(과학의 명제가 참이 아님)
포퍼의 반증 이론	경험에 의해 반증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 이론은 진정한 과학적인 것이 됨(과학적 이론은 항상 가설의 성격을 지니며 반증에 열려 있음)

01 세부 정보 확인

카르납의 이론은 어떤 과학 명제도 검증이 될 수 없다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포퍼는 이러한 카르납의 이론이 지닌 모순점을 지적하며 모든 과학 명제는 가설이며 반증이 가능할 때여야 비로소 진정으로 과학적인 것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오답 풀이 ① 신실증주의는 감각적 경험에 의해서 검증할 수 있는 자연 과학만이 유일한 학문임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② 신실증주의의 대표적 철학자인 루돌프 카르납은 검증 이론을 주장하였는데, 검증 이론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검증된 것만이 진리라고 여기며, 검증할 수 없는 것은 헛소리로 참되다,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카르납의 검증 이론은 자기 모순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설명하면서 한 명제를 검증하기 위해 모든 사례를 검토한 뒤 명제를 정립할 수 없으므로 몇몇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개의 경우를 추정하는 과학적 귀납법을 사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과학의 명제는 모든 사례를 검토한 뒤 정립되지 않으며 몇몇의 사례를 관찰한 뒤 추정하여 전칭 명제를 사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엄밀한 의미에서 "백조는 희다."라는 명제조차도 모든 사례를 검토하지 않아 검증될 수 없으며, 참이 아니라고 하였다.

02 구체적 사례에 적용

3점 길잡이

4문단에서 포퍼가 과학적 이론은 항상 반증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을 파악한다. 그리고 <보기>의 (가)와 (나)에서 이론을 대하는 태도를 파악하고, 포퍼가 이를 어떻게 비판하였는지 판단해 본다.

<보기>의 (가)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역사 이론에 대해, (나)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모두 자신들의 이론에 의해서만 현상을 해석하고 있다. 반면 4문단에서 포퍼는 모든 현상을 절대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보기>의 이론을 포퍼의 관점에서 비판하면, ②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귀납법의 적용 유무나 현상과 명제의 참, 거짓 유무는 이 글에서 설명하는 포퍼의 반증 이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⑤ 감각적인 경험에 의한 검증은 포퍼의 반증 이론이 아니라 카르납의 검증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03 어휘의 이해

‘검증(檢證)’은 ‘검사하여 증명함’이라는 의미이다. ②의 설명은 ‘인증(認證)’의 의미에 해당한다.

[04~06]

[현대 정보 경제학의 토대]

해제 이 글은 현대 정보 경제학의 기틀이 되었던 비대칭 정보 상황에 따른 ‘시장의 불완전한 정보 모델’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경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시장 참여자가 지닌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시장에서 역선택이 나타나고, 시장 참여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애커로프의 역선택론을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보를 많이 소유한 사람을 주체로 한 스펜스의 ‘신호’ 이론과 정보를 적게 소유한 사람을 주체로 한 스티글리츠의 ‘선별’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와 해결 방법

특징 •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연결하여 설명함
• 이론에 대한 예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도움

구성 1문단 : 현대 정보 경제학의 기틀을 마련한 스티글리츠, 스펜스, 애커로프
2문단 : 시장 참여자들의 비대칭적 정보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
3문단 : 정보 비대칭에 대응하는 방법 ① - 신호
4문단 : 정보 비대칭에 대응하는 방법 ② - 선별

한눈에 보기

비대칭적 정보 상황에 의한 시장의 역선택	신호	정보를 가진 쪽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특성을 제공하려는 노력
시장 참여자들이 보유한 정보가 비대칭적이어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선별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이 상대방의 유형을 판별하려는 노력

04 세부 정보 확인

3문단을 통해 스펜스는 ‘비대칭적 정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역선택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에 대해 연구했음을 알 수 있다. 정보를 적게 소유한 측의 노력을 강조한 것은 4문단에 제시된 스티글리츠이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애커로프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무너뜨리고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시장의 불완전한 정보 모델’을 정립하였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 그가 비대칭적 정보 상황으로 인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②, ④ 1문단에 따르면 스티글리츠, 스펜스, 애커로프는 경제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이론인 효율적 시장 가설을 무력화시키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여 정보 경제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③ 3문단의 첫 문장에서 스펜스와 스티글리츠가 애커로프의 ‘비대칭적 정보 상황’에 주목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05 세부 정보 추론

보험 회사는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질병 발생률이 높은 가입자를 모으게 된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생긴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시장에서 역선택이 나타난 결과이다.

오답 풀이 ①, ② 보험 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되도록 건강에 이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보험 가입자로 받아들이야 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적기 때문에 보험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위험도가 높은 보험 가입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④ 보험 회사는 보험 가입자보다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어 보험 가입자의 병력이나 위험도를 식별하지 못하므로 ①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⑤ 정보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험 회사는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가입자로 맞이하게 된 것이다.

06 구체적 사례에 적용

3점 길잡이

(가)와 (나)에는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 상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지문에 제시된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을 <보기>의 상황에 대입해 보고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가)는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측의 유형을 판별하려는 노력인 ‘선별’의 예이고, (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측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에 보내는 ‘신호’의 예이다. 이 글의 1문단에 따르면, (가)와 (나)는 모두 효율적 시장 가설을 무력화시킨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보증 여부를 통해 중고차 구매자가 판매자의 신뢰성을 판별하는 예이므로, 정보를 가지지 못한 구매자가 정보를 가진 판매자의 특성을 알아내어 유형을 판별하려 한 ‘선별’이 나타나 있다.

② (나)는 중고차 판매자가 차의 이력을 구매자에게 제공한 예이므로, 정보를 가진 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특성을 알리는 ‘신호’가 나타나 있다.

④, ⑤ 2문단에서 비대칭적 정보 상황은 시장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 (나)와 같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07~09]

[우주의 암흑 에너지]

해제 이 글은 우주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우주의 팽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암흑 에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과학자들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Ia형 초신성의 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알아내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물질인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밝히고 각 물질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암흑 에너지가 증가했을 때 우주가 거대한 빈 공간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인 암흑 에너지

특징 •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도를 높임
• 전문적인 용어를 정의하면서 서술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함

구성 1문단 : 우주의 팽창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

2문단 : 초신성 관측을 통해 알 수 있는 과거 우주의 팽창 속도

3문단 : 우주의 미래를 알 수 있게 하는 암흑 물질

4문단 :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인 암흑 에너지

한눈에 보기

우주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약 73%를 차지함 - 중력의 힘이 작용하는 암흑 물질과는 달리 척력이 작용함 -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암흑 에너지가 계속 증가한다면 우주는 빈 공간이 될 수도 있음		

07 세부 정보 확인

1문단에서 전자기력은 전기적으로 중성인 천체 운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핵력은 힘이 미치는 거리가 극히 짧아 천체 운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힘이 미치는 거리가 짧아 천체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핵력만의 특징이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우주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못해 팽창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은하들 사이에 접촉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암흑 물질이며, 암흑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물질 없이는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④ 2문단에서 초신성은 아주 밝아서 수십 억 광년 떨어져 있는 천체까지의 거리도 잴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2문단에서 백색 왜성이 일정한 질량에 이르러 폭발하면 만들어지는 초신성, 즉 Ia형 초신성의 관측을 통해 과거 우주의 팽창 속도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08 정보 간의 관계 파악

3문단에서 암흑 물질의 총 질량을 알게 되면 우주의 미래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우주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암흑 물질의 질량은 현재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㉔는 우주에서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보통 물질이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관측되지 않는 물질이다.

- ③ 3문단에서 은하들이 함께 묶여 있을 수 있는 것은 보통 물질의 인력과 암흑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④ 4문단에서 암흑 물질은 중력의 힘이 작용하지만, 암흑 에너지는 이와 달리 밀어내는 힘인 척력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 ⑤ 4문단에서 암흑 에너지가 계속 증가하고 암흑 물질이 감소한다면 우주는 최종적으로 거대하고 광활한 빈 공간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09 세부 정보 추론

2문단에서 Ia형 초신성의 빛을 분석하여 지구에서 초신성까지의 거리와 초신성이 지구에서 멀어지는 속도를 통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우주가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면 지구에서 초신성까지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이 크다면 중력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우주는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에 의해 더 수축해야 한다.
- ② Ia형 초신성의 겉보기 밝기가 더 밝아졌다면, 초신성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우주가 더 빨리 팽창했다고 볼 수 없다.
- ④ 광원이 멀어질수록 빛의 파장이 빛 스펙트럼의 가장자리인 적색 쪽으로 늘어나는 현상인 적색편이를 이용하여 초신성에서 도착한 빛을 분석한다고 하였으므로 스펙트럼의 선명함과는 관련이 없다.
- ⑤ 70억 년 전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의 존재 여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10~12]

[연기 없는 굴뚝, 바람탑]

해제 이 글은 사막 지역에서 건물의 공기 정화와 냉방을 위해 사용했던 바람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류 현상을 비롯한 바람탑에 적용된 다양한 원리를 설명하고, 자연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건축 구조로서 바람탑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주제 바람탑의 구조와 원리

특징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함

구성 1문단 : 바람탑의 원리에 대한 질문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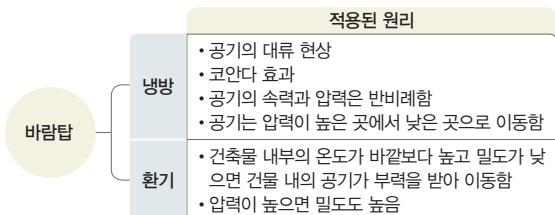
2문단 : 바람탑의 환기구를 통한 공기의 흐름

3문단 : 바람탑과 지하 수로를 이용한 냉방 원리

4문단 : 바람탑을 통해 환기가 되는 원리

5문단 : 바람탑을 천연 냉장고로 이용한 옛 사람들의 지혜

한눈에 보기



10 전개 방식의 특징

이 글은 냉방과 환기를 위해 세웠던 바람탑의 기능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3문단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지하 수로 터널이 있는 곳에서의 냉방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4문단에서는 바람이 없고 지하에 물이 없는 환경에서 환기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대류 현상', '코안다 효과', '부력' 등의 용어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풀이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바람탑의 유용성은 나와 있으나 그 한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 바람탑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을 것인지를 헤아리고 있지도 않다.
- ④ 바람탑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지만 바람탑과 관련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바람탑이 현재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고는 하였으나,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는 이 글만으로 알 수 없다.

11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1문단에서 전기 에너지 없이 바람탑만으로 냉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바람탑은 대류 현상이라는 자연의 시스템을 이용해 냉방과 환기를 하는 친환경적인 기술이자 능동적인 자연 모방 기술이다.

- 오답 풀이** ① 4문단에서 바람이 없는 환경이나 지하에 물이 없는 환경에서 바람탑은 환기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 ② 1문단에서 바람탑은 현재에도 그대로 쓰인다고 하였으므로, 여전히 이용되는 시설임을 알 수 있다.
- ③ 이 글에서는 바람탑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 바람탑의 모양이라든가 아름다움 등 예술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④ 5문단에서 옛 이란 사람들이 바람탑을 이용한 천연 냉장고로 얼음을 직접 얼렸다고 했으므로 얼음을 다른 지방에서 가져왔다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구체적 사례에 적용

3점 길잡이

기술 지문에서 기계적 장치나 설비가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할 경우, 이를 도식으로 나타낸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때 <보기>나 지문에 제시된 시각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파악한 후, 지문에 나타난 작동 원리를 시각 자료에 적용하여 이해함으로써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3문단에서 공기의 흐름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였고, 압력의 차이로 지면의 공기가 지하 수로로 유입된다고 하였다. 또 ㉠을 지나 ㉡로 유입되는 것도 ㉡가 압력이 좀 더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3문단에서 공기의 속력은 압력과 반비례하므로 지면의 공기가 좁은 통로를 만나면 속력이 빨라져 지면보다 압력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 ② ㉠, ㉡, ㉢는 모두 좁은 틈으로 공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곳이다. 이는 벽면이나 천장면에 접근하여 분출된 기류가 그 면에 빨려서 부착하여 흐르는 코안다 효과에 의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 ③ ㉡에 있던 공기는 지하수에 의해 열을 빼앗기고 들어온 차가운 공기(㉢)에 의해 밀려 올라가 ㉡로 배출되게 된다.
- ⑤ ㉡의 공기는 차가운 지하수인 ㉢를 만나면 열을 빼앗기게 되고, 이보다 압력이 더 작은 ㉡로 이동하게 된다.

[13~15]

[영화 카메라의 움직임]

해제 카메라의 이동과 샷의 연결에 따라 영화가 발전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초창기 영화는 정면 시점에서 카메라의 움직임 없이 촬영된 단순한 기록물이었는데, 1920년대 이후 카메라를 이동하고 샷과 샷을 연결함으로써 허구적인 내용을 담아냈을 뿐 아니라 인물의 심리도 표현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 샷의 연결과 카메라의 위치 변화에 따른 영화의 발전

특징 • 시대에 따른 발전 과정을 제시함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도움

구성 1문단 : 카메라의 단일 시점을 사용한 초기 영화의 특징
2문단 : 20세기 초에 나타난 영화 카메라의 기능 변화
3문단 : 여러 샷으로 구성된 영화로의 발전
4문단 : 여러 샷으로 구성된 영상을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
5문단 :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른 다양한 촬영 기법과 그 효과

한눈에 보기

	초기 영화	발전된 영화
의의	단순 기록물	예술 장르
샷	1개로 구성	여러 개로 구성
카메라의 위치와 이동	대상의 정면에서 움직이지 않음	대상과의 거리나 대상과의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함
결과물	이미지 자체를 담은 광경	허구적 내용을 담은 서사물

13 세부 정보 확인

2문단에서 1920년대 독일에서 고정된 위치를 고수하던 카메라가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이 당시 카메라는 단순히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장인물의 시점이 되어 움직였다고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❶ 1문단에서 초기 영화가 보여 준 것은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광경들이고, 이 당시 중요한 것은 보여 주고자 하는 대상 그 자체였다고 하였다.

❸ 1문단에서 단순한 기록물이었던 초기 영화는 단 하나의 시점, 즉 단일 시점으로 광경을 정면에서 촬영하는 정면 시점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❹ 4문단에서 영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샷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샷과 샷의 관계를 둘러싼 것까지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❺ 2문단에서 1920년대에 나타난 영화에서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카메라가 영화적 서사에 관여하는 보다 능동적인 예술적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14 세부 정보 추론

영화가 한 샷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의 장면을 연속적으로 촬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화가 여러 샷들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여러 샷을 이어 붙이거나 자르는 등의 편집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편집의 과정을 거치면 영화는 서로 다른 시공간을 표현하거나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허구적인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게 된다.

오답 풀이 ❶ 영화가 허구적인 내용,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은 비현실적 소재를 활용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시공간을 촬영한 여러 샷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❷ 이 글에서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영화 기술의 발전은 제시되지 않았다. 카메라의 위치 변화를 통한 시점 변화가 다양한 샷을 만들어 냈으며, 이러한 변화로 영화에서 허구적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❸ 한 샷보다 여러 샷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정보를 담아낼 수는 있지만 객관적 정보를 담아낼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것이 영화가 허구적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❹ 영화가 여러 샷들로 이루어져 허구적 내용을 담아낼 수 있게 된 것이지, 사실적인 내용을 담을 수 없게 된 것은 아니다.

15 구체적 사례에 적용

5문단에 따르면 로우 앵글 샷은 위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고 하이 앵글 샷은 위압감을 느끼는 모습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겁에 질린 아들은 하이 앵글 샷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오답 풀이 ❶ 롱 샷은 배경을 전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과 같은 장면을 표현할 때 효과적이다.

❷ ㉠을 촬영한 샷과 ㉡을 촬영한 샷 사이에 ㉢을 미디엄 샷으로 제시하면 두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❸ 인물들의 표정을 생생하게 드러내려면 가까운 거리에서 표현하는 클로즈업 샷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❹ ㉠과 같은 인물의 표정 변화를 섬세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는 극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 효과적이다.

모의고사 2회

독서

본문 084~091쪽

01 ②	02 ②	03 ①	04 ③	05 ②	06 ④
07 ④	08 ②	09 ④	10 ③	11 ③	12 ③
13 ④	14 ②	15 ⑤			

[01~03]

[고고학 자료의 민족주의적 해석]

해제 이 글은 고고학 자료의 연구와 관련된 민족주의적 시각을 설명하며, 고고학 자료를 연구할 때 지나친 민족주의적 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는 근대 고고학의 발생 자체가 민족주의적 경향에 바탕을 둔 것이기에 고고학 자료와 민족주의적 해석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제시한 후, 역사적 해석 단위를 민족으로만 한정 짓는다는 점과 민족 형성이나 초기 국가 형성을 제외한 사회적 양상에 대한 연구가 배제된다는 점을 들어 민족주의적 해석의 한계점을 설명하였다.

주제 민족주의적 고고학 연구의 문제점

특징 고고학 자료의 연구와 민족주의적 해석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제시함

구성 1문단 : 고고학의 개념과 고고학 자료의 활용 분야
2문단 : 고고학 연구의 발생 배경이 된 민족주의적 경향
3문단 : 고고학 자료의 민족주의적 해석의 한계 ① - 역사의 해석 단위를 '민족'으로 제한함
4문단 : 고고학 자료의 민족주의적 해석의 한계 ② -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간과함

한눈에 보기

고고학의 의의

고고학 자료를 연구함으로써 인류가 언제 기원하였고,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음

고고학 자료를 통한 과도한 민족주의 강조의 문제점

- 역사의 해석 단위를 '민족'으로 한정하여 사회 내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지 못함
- 민족의 형성이나 초기 국가 형성 외에 다양한 사회적 양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
→ 고고학 자료를 단순화하여 목적 지향적으로만 활용

01 핵심 내용 파악

2문단에서 고고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으나,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고고학은 인간이 남긴 물질적 흔적을 연구하여 인간의 행위 양상과 그 밖의 여러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 ③ 1문단에서 고고학 연구를 통해 인류의 기원 시기,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며, 고고학 연구의 의의와 가치를 밝히고 있다.
- ④ 2문단에서 근대적 고고학의 시작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민족주의적 경향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3, 4문단에서 민족주의적 고고학 연구가 역사적 해석 단위를 제한하거나 다양한 사회 현상을 간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02 글쓴이의 의도 및 관점

글쓴이는 지나치게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고고학을 연구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고고학 자료를 연구할 때 민족주의적 관점에 치중한 해석은 지양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고고학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글 전체의 맥락과는 상반된다.
- ③ 4문단에서 고고학을 통한 민족주의적 민족 연구는 민족 국가 건설이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글쓴이가 고고학 자료를 통한 민족주의적 민족 연구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고고학 자료와 민족주의적 해석을 구별하는 것은 맞으나 이를 위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⑤ 고고학 자료를 연구할 때 지나친 민족주의적 해석을 배제하자는 글쓴이의 의견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03 구체적 사례에 적용

3점 길잡이

이 글을 통해 고고학 자료의 민족주의적 해석이 지닌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기>에 제시된 사례가 고고학 자료를 과도한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 판단한다.

㉠은 고고학 연구 자료를 과도한 민족주의적 입장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 나치가 고고학 연구 자료를 통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한 사례이고, ㉢은 팔레스타인 땅과 유대인의 연관성을 입증하고자 이스라엘이 고고학 자료를 활용한 사례이다. 이는 모두 고고학 자료를 단순화하고 목적 지향적으로 해석한 사례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유적 발굴이 유적의 불법 매각으로 변질된 사례이다.
㉤. 전체 역사와 유적의 연계보다는 유적 자체에 대한 연구만이 중시된 사례이다.

[04~06]

[외부성의 개념과 외부성을 해소하는 방법]

해제 이 글은 후생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 실패 중에서 외부성과 이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외부성이란 경제 활동 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가 요구나 비용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외부성 때문에 시장이 효율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때는 정부가 직접 규제나 시장 유인 등을 통해 외부성을 해소하고자 하지만, 이 또한 개인적·행정적 문제와 같은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 외부성의 개념과 외부성의 해결 방법

- 특징** •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을 토대로 내용을 전개함
• 구체적 예시를 들어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함

- 구성** 1문단 : 외부성의 개념과 특징
2문단 : 거래 당사자 간에는 발생하지 않는 외부성
3문단 :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4문단 : 외부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5문단 : 외부성에 대한 정부의 규제 대책의 문제점

한눈에 보기



04 세부 정보 추론

시장 거래에서 경제 활동과 관련된 어떤 사람의 행위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거나, 의도치 않은 이익을 주는 경우를 외부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시장 거래 당사자들 간에는 손해와 편익이 내부화되므로 외부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② 5문단에서 정부는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해 설득, 직접적 통제, 시장 유인을 통한 간접적 규제 등의 방법을 취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들이 야기하는 문제점들로 인해 정부 실패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 ④ 1문단에서 외부성은 경제 활동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나 이익을 주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 요구나 비용 지불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⑤ 1문단에서 시장 경제학자들은 불완전 경쟁을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보았으나, 후생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완전 경쟁적 성격을 띠더라도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하였다.

05 구체적 사례에 적용

외부성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여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것은 세금을 물리는 것에 해당하므로 시장 유인을 통해 외부성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경제 활동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혔을 경우 '외부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 자동차 회사와 자동차를 산 개인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고통받게 되므로 이는 '외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정부가 외부성을 규제하는 방법 중 '선택'은 캠페인 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의 비용을 내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되어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을 권유하는 방법 또한 개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되므로 효과를 장담할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배기가스 농도를 규제하는 법규를 정하는 것은 정부의 외부성 제거 방법 중에 직접적 통제에 해당한다.
- ⑤ 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차량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부의 외부성 규제 방법 중 시장 유인을 활용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외부성을 조절하는 것에 해당한다.

06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3점 길잡이

이 글에 드러난 외부성의 특징을 이해한 후, <보기>에서 외부 편익과 외부 비용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외부성의 특징과 연결하여 파악해야 한다.

이 글에서 외부성은 시장 거래 당사자에게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기>에서는 시장 활동을 하는 개인은 외부적 비용과 편익, 즉 제3자에 대한 편익이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내부적 비용과 편익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시장 참여자는 내부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이익이 되는 외부 편익보다는 손해를 끼치는 외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에 따르면 외부 편익은 제3자에 대한 편익, 외부 비용은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말한다. 그러나 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이 글과 <보기>에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외부 비용을 외부 편익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성을 제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③ 외부 편익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미달되고, 이는 의도치 않은 편익이므로 최적 수준에 도달해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외부 비용은 의도치 않은 손해이므로, 이를 정부가 증가시킬 필요는 없다.

[07~09]

[아스피린의 발견과 연구 과정 및 전망]

해제 현대인들에게 두통약으로 잘 알려진 아스피린이 어떻게 발견되고 연구되어 왔는지를 밝히고, 현재 의약품으로 사용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과 다양한 시도 및 전망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아스피린에 함유된 물질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서양 의학의 선구자인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세기에 조팝나무 껍질에서 통증 완화 작용이 있는 물질을 발견했고, 중세 시대에는 이를 진통제와 해열제로 사용하였다. 부흐너, 헤르만 콜베, 아이헨그린, 호프만, 존 베인 등이 연구를 계속 이어 오면서 아세틸살리실산을 개발하고, 작용 원리를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아스피린의 효능이 하나씩 밝혀져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지금까지도 새로운 성과를 담은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주제 아스피린의 발견과 연구 과정 및 전망

특징 아스피린의 발견과 연구 과정을 시대 순서로 제시함

구성 1문단 : 아스피린의 기원

2문단 : 살리신의 발견과 살리실산의 제조 공정 개발

3문단 : 살리실산의 분자를 변환시킨 아세틸살리실산의 개발

4문단 : 몸속에서의 작용 원리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처방된 아스피린

5문단 : 통증을 완화하는 아스피린의 작용 원리

6문단 :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아스피린의 작용 원리

7문단 : 아스피린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 전망

한눈에 보기

아세틸살리실산이 약으로 발전되기까지의 과정

- ① 조팝나무 껍질에서 살리신을 발견하고 살리실산의 제조 공정을 개발함
- ② 살리실산의 분자를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아세틸살리실산(아스피린)을 만들어 냄
- ③ 아세틸살리실산의 작용 원리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70여 년간 처방됨
- ④ 아세틸살리실산이 체내에서 열이나 염증, 통증을 완화시키는 원리가 밝혀짐

07 세부 정보 확인

6문단에서 트롬복산은 혈소판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트롬복산을 만들어 내는 효소인 사이클로옥시게나제를 차단함으로써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스피린이다.

- 오답 풀이** ① 3문단에서 살리실산은 통증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쓴맛 때문에 복용하기가 힘들었는데, 살리실산을 아세트산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 낸 아세틸살리실산(아스피린)은 살리실산과 효능은 동일하지만 복용하기에는 훨씬 편하다고 하였다.
- ② 2문단에서 부흐너는 조팝나무 껍질에서 쓴맛이 나는 노란 결정을 얻었고, 이 물질에 '살리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였다.
- ③ 3문단에서 살리실산을 아세트산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아세틸살리실산, 즉 아스피린을 만들어 냈다고 하였다.
- ⑤ 6문단에서 과거에 아스피린은 진통, 해열을 위하여 사용되었지만 혈액 응고를 억제한다는 효과가 밝혀진 현재는 심혈관 계통 관련 환자에게 발생하는 혈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아스피린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08 구체적 사례에 적용

[A]에는 히포크라테스가 조팝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이 통증을 완화한다는 사실을 먼저 발견한 이후, 이를 훗날에 부흐너가 다시 연구하여 '살리신'이라는 노란 결정을 얻은 과정이 드러나 있다. 경험적으로 물질의 효능을 알았고, 연구를 통해 이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②의 경우 원주민들이 효능이 있다고 준 소나무 새싹으로 괴혈병을 치료하고 소나무 싹을 연구하던 중 비타민 C가 발견되었으므로, 살리신의 발견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폐기 처분되었던 접착제를 이용하여 '포스트잇'을 만들어 낸 것이므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든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실수로 인해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일상에서 물건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생각한 끝에 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우연한 사건에 의한 발견에 해당한다.

09 어휘의 이해

아스피린의 효능이 밝혀진 것이므로 ㉠에서 ‘밝히다’의 문맥적 의미는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이다. 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실이 자세히 따져져 바로 밝혀지다.’의 의미인 ‘규명(糾明)되다’이다.

오답 풀이 ① ‘상기(想起)’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여 냄’의 의미이다. ㉠의 목적이 되는 대상은 새롭게 알려진 아스피린의 효능에 해당하므로 지난 일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다.

② ‘추정(推定)’은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함’의 의미이다. 아스피린의 효능은 추측으로 인해 밝혀진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③ ‘전달(傳達)’은 ‘지시, 명령, 물품 따위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전하여 이르게 함. 자극, 신호, 동력 따위가 다른 기관에 전하여짐’의 의미이다. 아스피린의 효능이 누군가로부터 전달된 것은 아니다.

⑤ ‘구현(具現)’은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을 의미한다. 아스피린의 효능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어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효능이 밝혀진 것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10~12]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해제 이 글은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과 처리 장소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방사성 폐기물을 방사선의 세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나눠 그 개념과 각각의 처리 방법을 소개하고,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지질학적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 방사능 물질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본 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질 매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주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

특징 대상을 분류한 뒤, 각각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함

구성 1문단 : 방사성 폐기물의 개념과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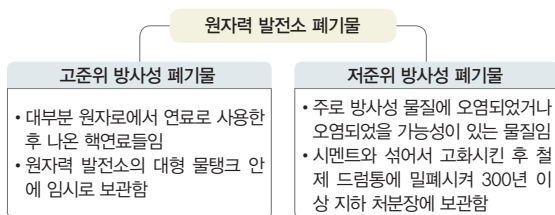
2문단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

3문단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

4문단 :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지질학적 조건

5문단 : 용해된 방사능 물질의 이동과 관련된 지질 매체의 중요성

한눈에 보기



10 핵심 내용 파악

이 글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한 후, 각각의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앞부분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를 밝히고 있으나 이후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이 추가 되므로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는 세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②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으로 보아 방사성 폐기물이 위험 물질임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어떤 점에서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④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5문단에서 유독성 산업 폐기물 처분에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방법을 응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둘 다 유해한 물질임을 알 수 있으나 둘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글의 말미에 잠깐 언급된 부수적인 내용일 뿐이다.

11 세부 정보 추론

4문단에서 ‘지하수가 철제 드럼통을 부식시켜 방사성 물질을 유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하수가 침투하기 쉬운 지층인 대규모 단층이나 파쇄대(破碎層)가 발달한 지층은 피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의 단층으로 이루어진 곳은 지각 변동에 의해 지층이 갈라진 지형이라 지하수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기물 처분장의 지질학적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지진이나 단층(斷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지층’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층이 갈라져 있지 않은 곳이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곳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지하수가 철제 드럼통을 부식시켜 방사성 물질을 유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침투하기 어려운 지층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하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⑤ 지하의 암반층은 자연적 방패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층이 갈라지지 않아 액체가 잘 스며들지 않고 부스러지지 않는 암석이 좋을 수 있다. 또한 한 만에 하나 지하수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용해되어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액체가 잘 스며들지 않는 암석이라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폐기물 처분장의 지질학적 조건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12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시멘트와 함께 고체화시킨 후 철제 드럼통에 넣어 밀봉하여 지하 처분장에 보관한다. 그런데 4문단에서 이 철제 드럼통이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되거나 지하수에 의해 부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철제 드럼통에 보관한다고 하여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같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라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인지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다르다.

② ④로 처리해야 할 물질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시멘트와 함께 고체화시킨 후 철제 드럼통에 넣어 밀봉해야 한다. 따라서 ④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일반 산업 폐기물처럼 처리한다면 치명적인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④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핵연료가 대부분으로, 재처리하면 95% 이상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물탱크 안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은 재처리 전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⑤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300년 이상 지나야 방사능이 없어진다고 하였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할 지하 처분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와 같은 장기 보관 과정이 필요하다.

[13~15]

[예술과 과학의 접목]

해제 이 글은 쇠라의 작품을 통해 과학과의 접목으로 예술의 미적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18세기 후반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나타난 기술 발전은 예술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 인상주의 미술이 발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상주의는 지나치게 시각에 의존하고 사물의 표면만을 감상하는 데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회화의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인상주의가 중시했던 빛의 시간적 효과에 치우치지보다는 빛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그림을 구성해 나가는 경향으로, 대표적인 화가로는 쇠라가 있다.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쇠라의 작품을 통해 과학과 예술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상승 효과를 엿볼 수 있다.

주제 과학과의 접목으로 새로운 경향을 펼치게 되는 예술

특징 • 쇠라의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함

• 18~19세기의 회화 경향을 통시적으로 제시함

구성 1문단 : 18세기 후반 기술 발전이 예술에 미친 영향

2문단 : 인상주의 미술의 특징과 평가

3문단 : 19세기 말에 등장한 새로운 회화의 경향

4문단 : 인상주의의 한계를 극복한 쇠라

5문단 : 쇠라의 작품을 통해서 본 예술과 과학의 접목

한눈에 보기

18세기 후반	19세기 말
• 각종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발달함 • 프리즘, 튜브형 물감, 이젤, 카메라의 발명	• 인상파의 출현 • 빛의 시간적 변화를 순간적으로 포착 • 모네, 드가, 르누아르
	• 인상파의 한계 극복 •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며 분석적인 빛을 추구 • 쇠라를 비롯한 미술가들

13 구체적 사례에 적용

A는 인상파를 대표하는 화가인 모네의 작품이고, B는 인상파의 한계를 초월하여 새로운 경향의 예술을 추구했던 쇠라의 작품이다. A와 B 모두 당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예술 작품의 제작에 영향을 준 작품으로, A는 대상을 비추는 빛을 포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치중하는 반면, B는 빛을 광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작품에 대입하였다.

오답 풀이 ❶ 모네로 대표되는 인상파 작가들은 빛의 순간적인 색채 묘사에 중점을 두고 사물의 외양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❷ 쇠라는 그림에 찍힌 점들이 인간의 망막에서 혼합되어 중간색으로 감지된다는 과학적 이론을 작품에 응용하여 순색의 작은 점들로 색채를 분할하여 작품을 창작하였다.

❸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는 일출이라는 순간적인 풍경을 포착하여 일출 당시의 빛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 쇠라는 빛을 인식하는 과학적 이론을 작품에 적용하였다.

❹ 인상파는 빛과 색채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대상의 외양을 표현하는 데 치중한 반면, 쇠라 등은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사물을 지각하는 것을 인간이 외부 세계와 관련을 맺는 과정이라고 여기며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빛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14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3점 길잡이

〈보기〉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한 개념인 기술 제작과 예술을 결합한 '테크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19세기 말 쇠라가 추구했던 예술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본다.

〈보기〉에 제시된 고대 그리스인들은 예술을 합리적 규칙에 따르는 활동으로 보았다. 이 글에 제시된 쇠라 또한 체계적인 이론과 규칙에 따라 빛을 분석하여 화면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고대 그리스인들과 쇠라 모두 체계적인 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예술적 영감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❶ '테크네'와 인상주의는 둘 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규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였다.

❷ '테크네'는 상상력을 억제하고 기술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토대로 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의미한다.

❸ 19세기 말 프랑스 화가들은 인상주의에 반기를 들고,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술 경향을 시도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이 기술과 예술을 조화시킨 '테크네'를 거부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❹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과 합리적 지식을 조화시켰으며, 작품의 효용성이 아닌 작품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였다.

15 어휘의 이해

㉠의 '기여하고'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이바지하고'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아우르고'는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나 한 판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을 대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❶ '도래하다'는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오다.'라는 의미이다.

❷ '탈피하다'는 '일정한 상태에서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다.'라는 의미이다.

❸ '감지하다'는 '느끼어 알다.'라는 의미이다.

❹ '분할하다'는 '나누어 쪼개다.'라는 의미이다.



시가 문학

실전 1

현대 시 / 현대 시

본문 096~098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⑤

가 [화체개현 _ 조지훈]

해제 이 작품의 화자는 석류꽃이 피는 모습에서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듯한 경이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또한 화자는 석류꽃의 개화를 태초의 신비로운 창조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 속에서 자연과 합일(合一)되는 경지를 느끼고 있다. 한편, 이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는 석류꽃의 개화는 새벽에 동이 터서 아침 햇살이 펼쳐지는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주제 생명 탄생의 신비, 자연과 합일(合一)되는 신비로운 경험

특징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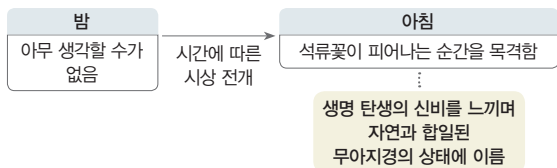
구성 1연 : 아무 생각할 수 없는 밤

2연 : 석류꽃이 피어나는 순간

3연 : 우주 탄생의 순간으로서의 개화

4연 : 자연과 합일되는 경지

한눈에 보기



나 [그 여름의 끝 _ 이성복]

해제 이 작품은 백일홍이 폭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는 모습을 보며 절망을 이겨 내는 강한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 백일홍은 폭풍이라는 시련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화자 역시 백일홍과 마찬가지로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쓰러지지 않는다. 화자와 백일홍이 하나로 결합하면서 '여름의 끝'을 '절망의 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삶의 고통과 시련을 극복해 낸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삶의 시련과 절망을 이겨 내는 강한 생명력

특징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강한 생명력을 표현함

• 경어체를 사용하여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형성함

구성 1연 : 폭풍 속에서도 피어나는 백일홍

2연 : 절망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은 '나'

3연 : 절망을 이겨 낸 백일홍과 '나'의 강한 생명력

한눈에 보기



0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의 화자는 방 안을 가득 물들인 석류꽃 속에 들어가 무아지경에 빠져 있다. (나)의 화자는 폭풍 속에서도 견디고 꽃을 피우는 백일홍처럼 자신도 폭풍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절망을 이겨 냈다고 하였다. 즉, 각각 석류꽃과 백일홍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시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화자가 아무 생각할 수 없는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어 꽃이 피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여름 동안 폭풍 속에서 붉은 꽃을 매달은 백일홍의 모습을 보여 준 후, 여름 동안 절망을 이겨 낸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나)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차분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나, (가)는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④ (나)는 1연에서 백일홍이 폭풍이라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내는 외적 상황을 제시한 후 화자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지만 (가)는 1연에서 화자의 상황을 먼저 제시하였다.

⑤ (가)의 4연은 화자가 석류꽃과 합일을 이루어 자연의 신비로움에 빠진 무아지경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나)에서는 화자와 백일홍이 동일시되기는 하지만 화자가 무아지경의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나)의 화자와 백일홍은 여러 차례의 폭풍을 견디고 이겨 내며 여름을 난다는 점에서 동일시된다. 따라서 백일홍은 화자의 절망을 드러내는 대상이 아니라 절망을 이겨 내는 생명력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석류꽃이 피는 모습이, (나)에는 폭풍을 이겨 내고 핀 백일홍의 모습이 나타난다.

② (가)의 화자는 석류꽃이 피는 순간을 목격하고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고 있다.

③ 3연에서 화자는 '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宇宙)가 열리는 파동(波動)'이라고 하면서 꽃이 피는 순간을 우주가 탄생하는 신비로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④ 백일홍이 이겨 낸 '폭풍'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03 시어의 의미와 기능

1연과 4연에 유사한 시구를 배치하여 대응을 이루게 한 것은 맞지만, 1연은 동이 터기 전의 상황이므로 햇살의 따뜻함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 4연은 화자와 대상이 합일된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4연의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는 자연의 신비로움에 빠져 있는 무아지경(無我之境)의 상태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보기>와 같은 관점으로 해석하면 2연은 초 한 자루도 못 태울 만큼 짧은 여름밤이 지나가고 동이 텄음을 의미한다.

② <보기>와 같은 관점으로 해석하면 석류꽃이 피어나는 순간은 새벽에 동이 트는 순간을 의미한다.

③ <보기>와 같은 관점으로 해석하면 석류꽃은 햇살을 의미하므로 '방 안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 온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비추는 장면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와 같은 관점으로 해석하면 석류꽃은 햇살을 의미하므로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않는다'는 화자에게 쏟아지는 아침 햇살의 모습을 마치 화자가 스스로 햇살 속으로 들어간 듯이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04 작품의 종합적 감상

(나)에서 화자는 여름 동안 두어 평 좁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여름의 폭풍우를 이겨 내는 백일홍 나무를 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피어나는 백일홍 나무를 보여 주는 것은 (나)의 내용에 어긋난다. 몽타주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면 백일홍 나무가 여름에 꽃을 피우고 폭풍을 견딘 후 여름의 끝 무렵 마당을 뒤덮는 모습을 붙여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1연과 2연에서 '백일홍'과 화자가 폭풍 속에 있었으므로 폭풍 우가 몰아치는 장면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나)에서 폭풍을 이겨 내는 백일홍의 강인함과 화자가 절망을 극복하는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진지하고 강인한 어조를 사용하는 것은 백일홍과 화자의 굳은 의지를 부각하는 데 효과적이다.

③, ④ (나)에서 백일홍과 화자 모두 절망적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어두운 화면이 점점 밝아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카메라가 백일홍과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각각 보여 준 뒤, 절망을 이겨 낸 뒤의 모습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보여 주면 이 둘이 유사한 과정을 거쳤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전 2

이론 / 현대 시 / 현대 시

본문 099~101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①

가 시적 진술

해제 이 글은 시인이 시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들려주는 방식인 '시적 진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적 진술의 종류 중 화자의 회고와 자기반성이 주를 이루는 독백적 진술과 시적 대상에 대한 이해와 비판을 토로하는 해석적 진술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시적 진술의 개념과 종류 및 특징

나 [겨울 숲을 바라보며 _ 오규원]

해제 이 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본모습을 드러낸 겨울 숲의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본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벗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죄'라고 표현하고 있고, 4연의 '눈보라'는 인간의 한계를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주제 인간 존재의 한계에 대한 성찰

특징 겨울 숲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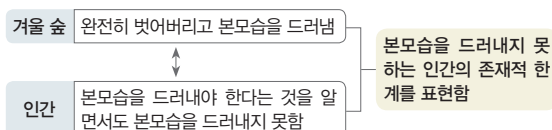
구성 1연 : 완전히 벗어버린 겨울 숲을 봄

2연 : 완전히 벗을 수 없는 인간 한계를 인식함

3연 : 인간의 한계를 인식했음에도 이를 벗어날 수 없음

4연 :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겨울 숲에 섬

한눈에 보기



다 [질투는 나의 힘 _ 기형도]

해제 이 시는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여 현재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방황과 번민으로 보낸 자신의 청춘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고 허무하게 방황하며 자신의 뜻과 이상대로 살지 못한 삶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먼 훗날 읽힐 것이라고 예상한 짧은 글을 통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시기와 부러움만으로 가득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주제 젊은 날의 삶에 대한 성찰

특징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여 현재의 모습을 돌아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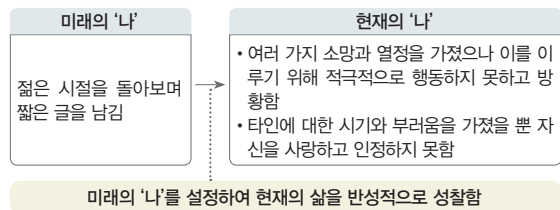
구성 1~2행 : 현재의 기록을 읽게 될 미래의 모습

3~6행 : 방황하는 젊은 시절(현재)의 모습

7~11행 : 젊은 날(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

12~14행 :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반성과 자조

한눈에 보기



01 작품의 종합적 감상

(가)는 '겨울 숲'과 '벗어버린 나무들'이라는 시적 대상을 통해 화자가 깨달은 본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시적 대상인 '겨울 숲'과 '벗어버린 나무들'을 완전히 벗어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낸 존재들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은 이와 같은 인식을 인간의 삶에 대입하여 완전히 벗어내어 본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탐구하여 표현한 해석적 진술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이다. (나)의 화자는 현재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겨울 숲의 험한 나무들을 통해 인간 존재의 한계에 대해 성찰하고 있을 뿐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있지는 않다.

② ㉡은 겨울 숲의 모습을 표현한 시구로, 화자가 바라본 겨울 숲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다.

③ ㉢은 시적 대상인 '겨울 숲'을 보고 화자가 깨달은 점을 서술한 시구이다. 화자는 나뭇가지만 앙상한 겨울 숲을 보며 누구나 이와 같이 본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며, 인간 역시 본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④ ㉣은 본모습을 드러내는 것의 어려움을 표현한 시구로, 겨울 숲이 스스로 본모습을 드러내었다는 인식이 나타난다.

02 시어의 의미와 기능

이 시에서 화자는 겨울 숲과 달리 본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와, 본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드러내지 못하는 인간이 지닌 또 하나의 한계를 깨닫는다. 4연에서 화자는 이러한 인간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죄, 죄, 죄 하며 내리는/눈보라' 속에 있다. '눈보라'는 화자에게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환기시키는 소재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제목인 '겨울 숲을 바라보며'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시적 대상인 겨울 숲과 벗어버린 나무들을 보는 행위를 통해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얻고 있다.

② '느닷없이 죄를 얻어'는 본모습을 드러낸 겨울 숲과 달리 본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완전히/벗어버릴 수 없는'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양상한 본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겨울 숲과 달리 인간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본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④ 화자는 겨울 숲을 보고 인간이 본모습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3연에서 화자는 본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인간이기에 본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한 벌의 죄를 더 얻는다'고 표현하였다.

03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다)는 화자의 입을 통한 시인의 독백적 진술이 나타나 있다. 화자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라는 미래 시점을 가정 한 후 미래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이상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현재의 모습을 성찰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고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를 통해 화자가 미래 시점에서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으며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다.

② '그때'는 미래 시점에서 보았을 때의 과거이므로, 화자의 현재 삶을 의미한다. 이 시의 화자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돌아보며 현재 화자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그때'는 현재 화자의 삶을 의미하므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반성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는 화자가 현재의 삶에서 타인의 인정을 바랐으나 인정을 얻지 못하였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지난 일을 회고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며,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다.

⑤ '짧은 글'은 현재의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 화자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행에서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 글을 읽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짧은 글'은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서가 아닌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04 표현상의 특징

(다)에서는 방황하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이라는 표현을 통해 직유법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였다.

오답 풀이 ②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현재 삶(젊은 날)의 부정적 면을 인식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을 뿐 심리적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점층적 표현이 사용되지도 않았다.

③ 미래를 가정하여 현재를 바라보는 시점의 가정은 드러나지만 화자의 시선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많았구나', '머뭇거렸구나', '질투뿐이었구나' 등의 시어에서 '~구나'라는 감탄형 어미를 반복하여 현재에 모습에 대한 화자의 후회와 반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8행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에 추상적 관념인 '청춘'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실전 3

현대 시 / 현대 시

본문 102~104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②

가 [월훈 _ 박용래]

해제 이 시는 속세와 단절된 첩첩산중 외딴집에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서정적 분위기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고유어의 사용과 향토성에 바탕을 둔 비유적 표현, 감정 이입을 통해 달무리가 지는 밤과 외딴집 노인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시적 분위기를 형상화하였다.

주제 산촌에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움과 고독함

특징 • 원경에서 근경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함
• 시각적,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 시적 분위기를 형상화함

구성 1연 : 첩첩산중 후미진 마을의 정경
2연 : 갯 속 같은 마을 어느 외딴집의 모습
3연 : 외딴집 노인의 외로움과 고독감
4연 : 겨울 귀뚜라미의 울음
5연 : 달무리 진 마을의 풍경

한눈에 보기

달무리가 지는 산촌 밤의 풍경	
감각적 표현	창문은 모과빛입니다. 짐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비유적 표현	갯 속 같은 마을, 노루꼬리 해, 공각지처럼
향토적 시어	모랫둑, 허방다리, 봉당, 짚단
객관적 상관물	겨울 귀뚜라미

↓
산촌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함을 강조함

나 [장수산 1 _ 정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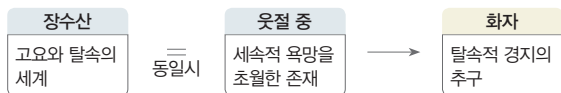
해제 이 시는 눈 덮인 겨울 장수산의 고요와 탈속적 경지를 정신적 공간으로 형상화하여 노래하고 있다. 한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경 후정의 방식을 취하여 전반부에서는 공간적 배경인 장수산의 장엄하고 탈속적인 분위기를 제시하고, 후반부에서는 화자의 내면 심경을 제시하였다.

주제 세속과 단절된 장수산의 고결함에 동화되고자 하는 의지

특징 • 자연의 풍경을 화자의 내면 의식과 조화시켜 묘사함
• 감각적 심상을 통해 장수산의 모습을 그려 냄

구성 1~2문장 : 깊고 울창한 장수산
3~4문장 : 적막한 장수산의 눈 내린 밤 풍경
5문장 : 장수산의 탈속적 모습
6문장 : 시름에 젖은 화자의 내면
7문장 : 슬픔도 꿈도 묻어 버리는 장수산

한눈에 보기



0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는 '창문은 모과빛입니다', '월훈' 등의 시각적 심상과, '후루룩 후루룩', 귀뚜라미의 울음소리 등의 청각적 심상을 통해 적막한 본

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나)는 ‘벌목정정’, ‘땡아리 소리 찌르렁’ 등의 청각적 심상과,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녀’ 등의 시각적 심상을 통해 장수산의 적막하고 고결한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있습니다’, ‘입니다’ 등 경어체를 사용하여 시에서 느껴지는 정감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나)에는 경어체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랬거니’, ‘희고녀’와 같은 예스러운 시어가 사용되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화는 사용하지 않았다.

③ (나)에서는 ‘-랬거니’, ‘-고녀’, ‘-란다’ 등의 예스러운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가)에는 이러한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의 화자는 고결한 자연에 동화되고자 하고 있지만, 인간과 자연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가)에도 장수산의 탈속적 모습이 제시되고 있으나 인간과 자연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02 시어의 의미와 기능

㉠의 ‘기인 밤’은 작품의 시간적 배경으로 노인이 지내는 밤을 시적 허용으로 ‘기인’ 것이라 표현하여 홀로 지내는 처지와 고독감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반면 ㉡의 ‘겨울 한밤’은 화자가 장수산의 고결함에 동화되고자 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은 화자가 속세의 시름을 떨쳐 내고 장수산의 고결함에 동화되고자 하는 시간이므로, 화자에게 공허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은 눈이 내린 겨울밤으로 순수, 순결, 무욕 등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 시에서 평화의 이미지나 너그럽게 감싸 안는 포용의 이미지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③ 감흥은 흥거움이나 즐거움이 절정에 이른 상태를 의미한다. ㉠과 ㉡은 모두 시적 대상에게 감흥을 주지 않으며, 만족감도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의 화자는 외딴집 노인에게 대해 말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장수산의 고결함을 접하고, 그에 동화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과 ㉡은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의 내적 갈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시상 전개 방식

[B]에서는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과 같이 심표와 음성상징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가 지는 광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꼴깍’이나 ‘해가 지면’은 하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승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 ‘잎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에서 산중에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표현하여 부정 표현을 통해 마을이 현실 세계로부터 동떨어진 곳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이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져 탈속성을 지니고 있는 곳임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노인이 무와 고구마를 꺾으면서 짐오라기의 설레임을 듣고자 하고, 새들의 온기를 생각하는 것은 그가 인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그리움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 [D]의 ‘귀뚜라미’는 외로운 처지의 노인이 지닌 고독감, 슬픔 등의 정서를 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귀뚜라미는 벽이 무너져라 울고 있으므로 이는 노인의 정서를 청각적 심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월훈’은 달무리라는 뜻으로, 이 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달무리 진 마을의 풍경과 외로움의 정서가 집약된 명사이다. [E]에서는 이러한 ‘월훈’으로 작품을 마무리하면서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04 작품의 종합적 감상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는 장수산 깊은 골이 절대적인 고요함을 지닌 공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시의 화자는 시름을 견디며 궁극적으로 장수산의 고결함에 동화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번민은 장수산의 순결함으로 인한 것이지 장수산의 적막감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다람쥐도 쫓지 않고’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공간임을, ‘뿔새도 울지 않아’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공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③ ‘웃절 중’은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도 웃으며 절로 올라가고 있다. 즉 욕망에 초연한 모습으로 무욕의 경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 ‘장수산’과 상통하는 면모로, ‘웃절 중’은 화자가 지향하는 정신적 경지를 달성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④ 화자의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듯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시름이 흔들린다고 말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심한 고뇌를 감지했음을 나타낸다.

⑤ ‘차고 울연히’는 겨울 장수산의 고요한 모습으로, 화자는 이에 동화되기 위해 슬픔은 물론이고 꿈도 없이 ‘견디란다’라고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무욕의 공간에 동화되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전 4

현대 시 / 현대 시

본문 105~107쪽

01 ① 02 ① 03 ④ 04 ⑤

가 [가을 노트 _ 문정희]

해제 이별 후의 아픔과, 슬픔, 고통스러운 내면세계를 황량한 가을 들녘의 모습과 바람에 몸을 떨며 낙엽을 떨어뜨리는 나무의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화자는 이별 후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면에 간직하는 것이라는 사랑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이별 뒤에 남은 아픔

특징

-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함
- 감각적인 시어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냄
- 수미 상관의 전개 방법으로 주제를 강조함

구성 1연: 이별 후의 아픔

2연: 떠나간 임에 대한 미련과 이별의 슬픔

3연: 이별의 아픔이 치유된 후 고요하고 담담한 내면 풍경

4~5연: 사랑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

6연: 이별 후의 아픔에 대한 강조

한눈에 보기

이별의 아픔

• 우수수 몸을 떨었다/우수수 옷을 벗었다
• 까이만 씨앗으로 가슴에 담고
• 슬프고 앙상한 뼈

아픔의 치유

빈 들녘 고즈넉한 벚단처럼 놓이리라

사랑에 대한 깨달음

• 사랑은 홀로 찬바람에 흔들리는 것
• 사랑은 이 세상 끝날 때 가장 깊은 살 속에 담겨 가는 것

나 [한 _ 박재삼]

해제 이 시는 죽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임에게 다가갈 수 없는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을 감나무에 달린 열매를 매개로 삼아 저승에서라도 ‘그 사람’에게 전해 보았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임에게 다가갈 수 없는 설움과 한

특징 • 화자의 정서를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감나무 열매에 비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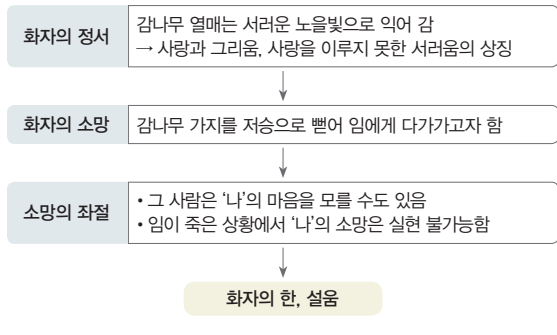
• 도치법을 통해 사랑을 이루지 못한 서러움을 드러냄

구성 1연: ‘나’의 사랑은 감나무와 같음

2연: 감나무가 되어 저승에 있는 임에게 다가가고자 함

3연: 임이 자신의 사랑을 모를지도 몰라 서러움을 느낌

한눈에 보기



0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에서는 이별의 아픔을 ‘가을 나무’에 비유하고, ‘가을 들녘’을 통해 이별 후의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이승과 저승을 이어 주는 ‘감나무’를 통해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과 설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화자는 이별의 아픔에서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정서가 변화하고 있지만 사상의 극적인 전환은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서 화자는 일관되게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과거형 어미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 과거 회상의 어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에는 화자의 정서를 나무, 가을 들녘에 비유하는 비유법이 사용되었고, (나)에는 1연에서 도치법이 사용되어 화자의 서러움을 강조하였다.

⑤ (가)에서는 이별의 아픔에서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화자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지만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이승과 저승이라는 공간이 드러나지만 공간 이동이나 화자의 태도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02 표현상의 특징

[A]에서는 ‘그대’가 떠난 후의 아픔을 우수수 몸을 떠는 나무의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B]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람’으로 인한 서러움을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 열매가 달린 나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즉 [A]와 [B]에서는 마음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A]는 이별한 후의 화자의 내면을, [B]는 임과의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서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둘 다 화자의 내면을 다루고 있다. 즉 외부 세계에 대한 묘사가 아니며, 대상과의 거리감도 나타나지 않는다.

④, ⑤ [A]는 이별한 후의 내면을, [B]는 임과의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서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원형적 상징이나 순수성과는 관련이 없다.

03 화자의 정서 및 태도

5연에서는 사랑은 이별 후에 사라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내면에 간직하는 것이라는 사랑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1연에서 화자는 자신을 가을 들녘에 선 나무에 비유하여 ‘우수수 몸을 떨었다’라고 함으로써 이별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고, 2연에서는 ‘못다 한 말 ~ 까이만 씨앗으로 가슴에 담고’라고 표현함으로써 떠나간 임에 대한 미련과 이별의 아픔을 나타내고 있다.

② 3연에서는 ‘머잖아/한 잎 두 잎 아픔은 사라지고’를 통해 이별의 아픔이 치유될 것임을 표현하고, ‘고즈넉한/벚나무처럼 놓이리라’를 통해 고요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③ 4연에서는 사랑한다는 것은 ‘조용히 물이 드는 것’, ‘홀로 찬바람에 흔들리는 것’이라 하여 이별을 통해 깨달은 사랑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⑤ 6연에서는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에 대한 통찰을 얻은 후에 수미 상관의 구조를 활용하여 이별의 아픔을 강조하고 있다.

04 작품의 종합적 감상

‘그 사람도 이 세상을/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는 화자가 ‘그 사람’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슬픔과 한을 갖고 있듯이 ‘그 사람’도 사랑과 설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구에는 ‘그 사람’이 가졌을지도 모를 사랑과 슬픔이 드러날 뿐 원망의 감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간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 깊어지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상황에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 깊어지는 화자의 한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② ‘이것이 제대로 뵈을 데는 저승밖에 없다’는 것은 화자가 감나무가 되어 가지를 뻗어 저승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는 의미이다. 이는 현실에서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임을 뜻하므로, 화자의 슬픔과 한이 치유되거나 극복되기 어려움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뻗어 가서’는 열매가 달린 가지를 저승에 있는 임을 향해 뻗게 하겠다는 뜻으로 임에게 다가가려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④ 화자는 임이 저승으로 뻗은 가지의 ‘열매 빛깔’을 보고 그것이 화자의 설움, 슬픔과 한이며, 임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은 소망임을 알았는지 모를 일이라고 한다. 이는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소망과 사랑이 전달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서러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천 5

고전 시가

본문 108~109쪽

01 ③ 02 ② 03 ④

[고공담주인가 _ 이원익]

해제 이 작품은 신하라면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은 등한시한 채, 당파 싸움만 일삼는 신하들을 꾸짖고 임금에게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간언하려는 목적으로 쓴 가사이다. 허전의 「고공가」에 대한 답가로 알려져 있으며 주인의 입장에서 머슴의 잘못된 행태에만 초점을 맞춘 「고공가」에 비해 문제 상황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결 방향까지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영의정이었던 작자는 자신을 ‘어른 중’에 빗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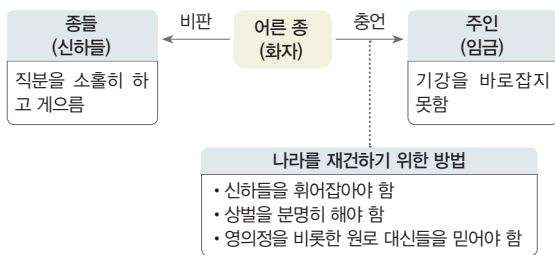
어 사리사욕만 채우며 신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신하들(종들)을 꾸짖는 한편 신하들의 기강을 잡지 못한 임금(마누라)의 책임 또한 지적하고 있다. 화자는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주인(임금)을 위해 머슴(신하)들이 열심히 일해야 하고, 주인은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머슴들을 휘어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종들의 상벌을 분명히 하고, 어른 중(영의정을 비롯한 고관들)을 믿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나태하고 이기적인 신하들의 행태 비판과 임금에 대한 충언

특징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함

구성 1~7구 : 종들의 게으름과 기운 가세에 대한 한탄
8~23구 : 본분을 다하지 않는 종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
24~37구 : 기운 가세를 일으킬 방법에 대한 간언 제시

한눈에 보기



01 표현상의 특징

화자는 기울어 가는 가세를 걱정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고공(머슴)들의 게으르고 나태한 행동을 한탄하는 어조로 나열하면서 고공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을 뿐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❶ '소 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진지하는 어린 손들 한 계대를 희롱한다.', '곡식고 비었거든 창고지기인들 어이 하며/세간이 흘러 지니 질그릇인들 어이 할고' 등에 대구의 방식이 사용되어 운율감을 느낄 수 있다.

❷ '네부터 이러튼가'나 '덧발을 묵혔고는' 등에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현실을 비판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❸ 화자는 집안이 기울고 있는 상황을 한탄하면서 덧발을 가꾸지 않고 낮잠만 자며,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며 어수선하게 굴고, 외방사음과 수하상직들이 맡은 일을 하지 않는 등 고공(머슴)들의 행태를 나열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❹ 33구에서 '새끼 꼬기 말으시고 내 말씀 드로쇼셔.'라고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드러나 있는데, 상대방은 마누라 즉 임금이다. 화자는 마누라(임금)에게 말을 건네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주인이 할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02 시어의 의미와 기능

이 작품은 신하들을 '종'에, 임금을 '마누라(주인)'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상마름'은 '소 먹이는 아이들'보다 높은 직급의 관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은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를 깔본다는 의미일 뿐, 상급 관리와 하급 관리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❶ ㉠의 '네부터 이러튼가'는 '옛날부터 이러던가'라는 의미의 의

문형 진술로 '우리 덕 세간'이 옛날과는 다르다는 뜻이므로, ㉠은 현재의 상황이 예전과는 달리 나쁘다는 것을 뜻한다. 이 작품에서 집안의 상황은 곧 나라의 상황이고, <보기>에서 임진왜란 이후 나라가 혼란스러운 원인을 작품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을 통해 임진왜란 이후 나라의 상황이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❷ ㉡은 <보기>에서 지적한 위정자들의 당파 싸움, 즉 신하들이 당파를 이루어 당쟁만을 일삼는 모습을 나타낸 부분이다.

❸ '발벌감', '외방사음', '도달화'는 변방을 지키는 무인을 종에 비유한 것이다. ㉢은 이들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제 소임을 버리고 몸을 사린다는 것이므로 ㉢을 통해 전쟁 후 나라의 재건보다 자기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신하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❹ <보기>에서 이 작품이 임진왜란 이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불한당 구모 도적'은 왜적을 의미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에서 왜적의 도발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변 상황도 좋지 않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03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화자인 '어른 중'(B)은 게으름 피우는 다른 '종들'(C)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마누라'(A)에게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상벌을 명확히 할 것을 말하고 있다. 또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중을 믿으소서.'라는 구절에서 '어른 중'(B)을 믿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어른 중'(B)에게 전권을 넘겨 줄 것을 조건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❶ 나태한 종들의 잘못뿐 아니라 '마누라'의 잘못도 지적하면서 '어른 중'을 믿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대목에서 화자가 '어른 중'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 화자인 '어른 중'은 본분을 잊고 집안 일을 돌보지 않는 '종들'(C)의 모습을 꾸짖고, '마누라'(A)가 '종들'을 방치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❷ '집 일을 고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중을 믿으소서./진실노 이리 하시면 가도 절노 일어서리다.'라는 구절에서 '어른 중'(B)이 집안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마누라'(A)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작품의 화자는 '마누라'(A)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과 태도 변화를 말하기 전 '종들'(C)의 행태를 세세히 나열함으로써 '마누라'(A)에게 현재의 상태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❸ '집 일을 고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라는 구절에서 화자는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종들'(C)을 손아귀에 넣고 부려야 할 뿐만 아니라 종들에 대한 명백한 상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❹ '이 집 이리 되기 뉘 탓이라 할 셔이고/험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 하려니와/도리어 헤여하니 마누라 탓이로다.'라는 구절에서 '어른 중'(B)은 가도가 기운 책임이 나태하고 직분에 충실하지 않은 '종들'(C)뿐만 아니라 이들을 방치하고 질책하지 않은 '마누라'(A)에게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알아두기 「고공가」

「고공가」는 허전이 지은 가사로 임진왜란 직후 조선의 혼란한 상황을 한 집안의 상황에 빗대어 비판하고 있다. 화자는 한 아버지가 나라를 연 초기의 머슴들은 부지런하고 검소하였으나 현재 머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두고 다들 뿐이라고 말하며, 얼마 전 화강도가 쳐들어와 집안의 재물을 모두 망쳤지만 고공들이 도둑을 막을 생각을 않고 의복과 먹을 것만 두고 다둔다고 한탄한다. 이렇듯 이 가사에서는 관리들을 '고공(머슴)'에 빗대어 옛 고공과 달리 서로 반목하는 고공들의 행태를 질책하고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함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1 ② 02 ② 03 ②

[규원가 _ 허난설헌]

해제 이 작품은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남존여비(男尊女卑)와 여필중부(女必從夫) 사상 때문에 여성들이 겪었던 한과 고독을 노래하였다. 남편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인해 독수공방하며 살아야 했던 작자의 경험과 심정이 섬세하게 드러난 작품으로, 화자는 늙어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 홀로 규방을 지켜야 하는 고독감과 함께 밖으로만 돌며 소식을 알 수 없는 불성실한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감정 이입과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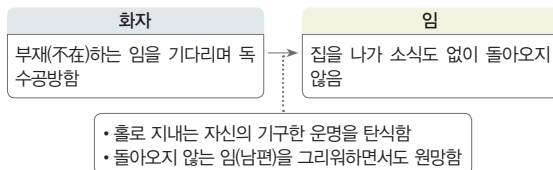
주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한스러운 삶

특징 • 실술(귀뚜라미), 새에 화자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이입하여 표현함

•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작품을 유려하게 이끔

구성 1~7구 : 세월의 무상함과 초라한 모습에 대한 한탄
8~22구 :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애달픈 심정
23~29구 : 거문고로 달래는 외로움과 한
30~42구 :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기구한 운명에 대한 탄식

한눈에 보기



01 표현상의 특징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자나 마르려문/열두 때 길도 길사 설흔 날 지리(支離)하다.’에서 화자는 임 없이 혼자 지내는 날들의 외로움을 ‘열두 때’의 긴 시간과 ‘설흔 날’의 지리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이 작품에 나타난 구체적 수치는 그리움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길게 느껴진다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실술이 상에 올 제’, ‘새소리 더욱 설다’에서 임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화자의 서글픈 심정을 ‘실술’과 ‘새’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임과 백년 기약을 맺었던 젊은 시절의 고왔던 모습인 ‘설빈 화안’과 세월이 지나 보기 싫어진 얼굴인 ‘면목가증’을 대비하여 표현함으로써 현재 화자의 초라한 모습과 버림받은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내 얼굴 내 보거나 어느 님이 날 필요나’,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박명한 흥안이야 나 같은 이 또 이실가.’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원망과 한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⑤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악수 가렸관대./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에서 견우직녀와 자신을 대조함으로써 임에 대한 그리움과 답답함 등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02 시어의 의미와 기능

‘옥창의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고 졌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한다. 즉, ‘임’이 집을 나가 소식을 모르게 된 지 오래 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여기서 ‘매화’는 화자의 지조나

절개와 같은 정서를 대신 보여 주는 소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베울’은 옷감 ‘베’의 가락을 의미하며 ‘복’은 베를 짤 때 사용하는 직조 도구로 당시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던 소재이다. 화자는 이를 이용해 베를 짜는 동안 ‘복’이 ‘베울’ 사이를 무수히 지나는 모습에 빗대어 봄바람과 가을 물이 수차례 뒤바뀐 세월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③ ㉔에 이어지는 시구에서 화자가 탄 거문고 음색이 ‘소상 아우의 댛소리 첫도는 듯./화표 천 년의 별하이 우니는 듯’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곡조가 화자의 심정처럼 구슬프고 처량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④ ㉔의 앞부분에서 화자는 꿈에서라도 임을 보려고 잠을 청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증생’은 이러한 화자의 바람마저 이루지 못하도록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⑤ ㉔에서 임이 게실지도 모르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는 세상에 설운 사람이 많으나 나 같은 이 또 있겠느냐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서글픔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때 새는 그냥 지저귀고 있는 것이지만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새소리’를 ‘설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스스로 참괴(慙愧)하니 누구를 원망하리’는 스스로가 부끄러워 남을 탓할 수 없다는 의미로, 늙어 초라해진 자신에 대한 자조 어린 탄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에는 호사스러운 차림새로 기생집을 드나들며 소식조차 전하지 않는 남편을 둔 화자의 외롭고 한스러운 정서만 드러날 뿐, 화자와 남편이 어떠한 이유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연광이 홀홀하고 조물이 다시하야’에서 자신이 현재와 같이 초라한 모습이 된 이유를 세월의 흐름과 조물주의 시기 탓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불행한 처지를 조물주의 탓이라 여기며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③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에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화자의 답답한 마음이 드러난다. <보기>에서 허난설헌의 남편은 글공부를 핑계로 가정을 등한시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 시구에는 그러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행만 많다’는 화자가 돌아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며 홀로 지내는 자신의 삶을 한탄한 것으로, 작자의 고독한 심정이 드러난다.

⑤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동말동하여라’는 자신의 괴로움을 임의 탓으로 돌리며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01 ① 02 ① 03 ④

[자경가 _ 박인로]

해제 작자가 혼탁한 시대를 구하고자 했으나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자기의 능력이 미치지 못함을 자탄하고 스스로를 경계하고자 지은 작품이다. 1, 2수에서 명덕을 쌓는 일에 게으른 세상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후, 3수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구해 내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외부의 대상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내면으로 초점을 옮김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제 덕행을 실천하지 않는 세태에 대한 비판과 자신에 대한 경계

특징 • 화자가 지향하는 바와 세상 사람들의 세태를 대조하여 주제를 부각함

- 비유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형상화함
-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냄

구성 1수 : 덕을 쌓는 일에 관심이 없는 세태 비판
2수 : 명덕을 향한 길을 외면하는 세태 비판
3수 :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책과 경계

한눈에 보기

1수	2수	3수
아이, 어른	행인(行人)	행인
명덕을 닦을 줄 모름	크나큰 한길을 오도 가도 모름	사공이 모강두에 버림
덕을 쌓지 않는 세태 비판		자신의 무능함 자책

01 표현상의 특징

이 작품에 제시된 자연물 중 ‘구인산’은 대덕(大德)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고, ‘긴 솔’이나 ‘모강두(저물어 가는 강가)’는 자연물 자체를 나타내는 시어이므로,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2수의 ‘아닌 게오’는 어찌하여 행인들이 크나큰 한길을 걷지 않느냐고 묻는 의문형 종결 어미로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사람들이 덕을 쌓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성의관’과 ‘팔덕문’은 화자가 지향하는 유교적 이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크나큰 한길’은 덕을 실천하기 위해 행인들이 걸어야 할 길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이 작품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덕을 쌓고자 하는 화자’와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세상 사람들’의 대조를 통해 덕을 쌓으며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⑤ ‘제세주’를 만들어 행인들을 건네야 할 ‘사공’이 변변치 못하여 행인을 건네지 못하였다며, 화자 자신을 사공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명덕(明德)’은 화자가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므로 ‘있어야 할 현실’이자 ‘미래에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람들은 덕을 쌓는 일을 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재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2수의 ‘성의관’, ‘팔덕문’, ‘크나큰 한길’과 3수의 ‘구인산’은 실제 지명이라기보다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시어이므로 ‘있어야 할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③ 1수의 ‘아이’, ‘어른’, 2수의 ‘행인(行人)’, 3수의 ‘행인’은 모두 덕을 쌓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므로 ‘처해 있는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④ ‘제세주’는 세상을 구할 만한 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길 잃은 행인을 모두 건네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는 소재이며 여기서 ‘사공’은 화자, 즉 작자 자신을 가리키므로 ‘제세주’에는 작자의 이상에 대한 지향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작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세상 사람들을 이끌지 못한 것을, ‘사공’이

변변치 못하여 행인을 건네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보기>의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작자의 안타까움이 담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03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보기>의 손[客]은 거울에 얼굴을 비춰 보는 실용적 기능과 인격 수양의 기능이 있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가진 인물이다. 이 작품의 화자 역시 거울을 얼굴을 비추는 사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에만 신경 쓰고 덕을 쌓지 않는다며 거울을 보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보기>의 손은 거울의 기능을 얼굴을 비추어 주고 인격을 수양하는 것으로 여기므로, 거울이 흐려지면 안 되고 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이 작품의 화자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맑은 거울에 티가 끼면 돈을 들여 바로 닦아 낼 줄 알면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덕을 닦을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⑤ <보기>의 손은 거울은 무릇 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기>의 거사(居士)가 흐린 거울을 보고 있으므로 의문을 품고 거사에게 질문을 한 것이다.

실전 8

고전 시가 / 고전 시가

본문 114~115쪽

01 ③ 02 ② 03 ①

가 [정과정 - 정서]

해제 이 시는 여성적 어조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고려 가요이다. 이 시의 작자인 정서는 고려 의종 때 유배지에서 임금의 부름을 기다리며 이 노래를 지었다. 즉 표면적으로는 모함으로 인해 임에게 버림받은 여성 화자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지만, 작자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면적으로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임금을 다시 모시고 싶다는 신하로서의 충정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신세를 ‘산 접동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초월적 대상인 ‘잔월효성’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다.

주제 임(임금)을 그리워하는 정

특징 • 형식적 측면에서 향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10구체에 가까운 3단의 시행 구성, ‘아소 남하’와 같은 감탄사가 포함된 마지막 시구, 장이나 연이 나뉘지 않은 형태)
• 자연물을 통해 결백을 호소하고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냄

구성 1~4행 : 자신의 처지와 결백의 호소

5~9행 : 자신의 결백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

10~11행 : 임의 사랑을 기다리는 소망의 표출

한눈에 보기

산 접동새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
잔월효성	화자의 결백함을 알고 있는 초월적 대상

자연물을 활용하여 주제를 전달함

나 [개아미 불개아미 ~ 작자 미상]

해제 이 시는 개미를 제재로 하여 거짓된 말에 쉽게 속지 말라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사실시조이다. 개미가 호랑이를 물고 복해를 건넌것다는 허무맹랑한 소문이 있다고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여 사람들의 말 속에는 그만큼 거짓이 많음을 임금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화자는 자신에 대한 참소와 비방은 모두 포함이니 믿지 말아 달라고 임금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주제 헛된 소문에 대한 경계와 자신의 결백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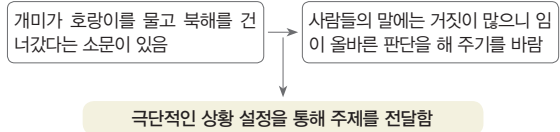
특징 •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점층과 과장을 통해 해학적으로 묘사함
• 종장에서 주제 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냄

구성 초장 : 허리가 부러진 개미

중장 : 불개미와 관련된 허무맹랑한 소문

종장 : 임이 올바른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람

한눈에 보기



0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는 '잔월효성'이라는 초월적 대상을 설정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개미에 대한 허무맹랑한 소문을 통해 임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초월적 대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는 6행에서 '늪러시니잇가', 10행에서 '잇으시니잇가'로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에는 의문형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② (나)는 개미가 호랑이를 물고 복해를 건넌것다는 소문이 있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에 대한 소문도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하며 화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가)는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임이 다시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나)는 헛된 소문을 경계하며 임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다.

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임이라는 정해진 청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권고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02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임을 원망하는 화자의 마음은 (나)가 아니라 (가)에 나타난다. (가)의 화자는 10, 11행에서 자신을 잊은 듯한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며 임이 자신을 다시 사랑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잔월효성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임에게 말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불개미에 대한 소문에 빚대어 임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즉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임이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것을 바라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산 접동새'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자신을 '불개아미'에 빚대어 불개아미에 대한 허황된 소문처럼 자신에 대한 참소도 근거 없는 것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⑤ (나)의 화자는 임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하며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가)의 화자는 '도람 들으사 괴오소서'라고 하며 임이 다시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보기〉의 설명을 통해 (가)가 유배지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결백을 믿어 달라고 호소하는 노래임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이 '산 접동새'와 유사하다고 표현하며 유배지에서 느끼는 자신의 쓸쓸한 감정을 접동새에 이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화자는 초월적 대상인 '잔월효성'이 자신의 결백함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며 임금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③ '넋'은 긴 세월 동안 변해 버린 마음이 아니라 넋이라도 임과 한곳에 있고 싶다는 표현을 통해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임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④ 화자는 자신에게 과도 허물도 없다고 하며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다.

⑤ '님이 나를 하마 잊으시니잇가'는 임에게 자신을 벌써 잊었느냐는 하소연을 하는 것으로 자신을 잊은 듯한 임에 대한 원망의 표현이다. 화자는 자신이 모함을 받아 귀양을 오게 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지는 않았다.

모의고사 1회

시가 문학

본문 116~118쪽

01 ④

02 ⑤

03 ③

04 ⑤

05 ④

06 ⑤

[01~03]

가 [고개 - 이시영]

해제 이 시는 동학 농민 운동을 모티브로 하여 억압받는 민중들의 한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정갹이 아재'의 죽음, '가도 가도 서러운 머슴살이'와 같이 벗어날 길 없이 반복되어 온 민중들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주요 소재인 '죽살잇고개'를 통해 이 별의 슬픔과 죽음으로 인한 해방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억압적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민중들의 저항과 한스러운 삶

특징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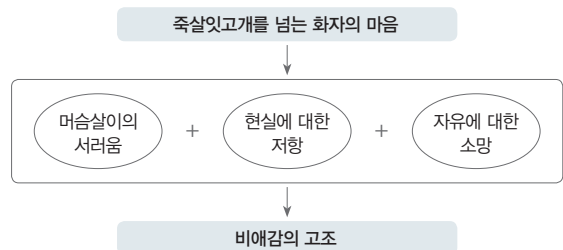
구성 1~5행 : 정갹이 아재의 시신을 지고 고개를 넘음

6~9행 : 정갹이 아재가 서러운 머슴살이 신세로 살다가 죽음

10~16행 : 머슴살이의 설움과 저항, 자유에 대한 소망

17~19행 : 죽살잇고개를 넘는 한스러운 삶

한눈에 보기



나 [서울 하야식 _ 박봉우]

해제 이 시는 화자의 이상이자 소망이던 민주주의 실현의 좌절과 그로 인한 절망을 담고 있다. 화자는 좌절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유를 박탈당한 고통스러운 삶의 공간인 서울을 떠나고자 한다. 화자는 직접적인 시어와 격정적 어조를 통해 저항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반복적 표현을 통해 서울을 떠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주제 민주주의 실현의 좌절에 대한 절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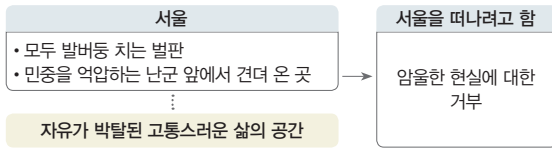
특징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를 부각함

구성 1~9행 : 암울한 현실 상황

10~20행 : 서울을 떠나려는 이유

21~33행 : 서울을 떠나려는 다짐

한눈에 보기



0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의 화자는 서러운 머슴살이를 하다 죽은 '정갹이 아재'를 통해 느낀 현실의 모순 앞에서 삶의 비애와 한을 느끼고 있다. (나)의 화자는 자유를 박탈당한 서울을 '모두 발버둥 치는 벌판'과 같이 고통스럽고 암울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정갹이 아재는 머슴살이를 하다 죽은 인물이지만, 그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나)에는 부재하는 대상이자 화자의 이상인 자유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난다.

② (가)에는 정갹이 아재와의 이별이, (나)에는 서울과의 이별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상실감보다는 고통을 겪은 민중(정갹이 아재)에 대한 비애감이, (나)에서는 서울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부각되어 나타난다.

③ (가)에는 모순된 사회 구조로 인해 억압받는 민중의 모습이, (나)에는 군부 독재에 의해 자유를 빼앗긴 민중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민중의 모습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민중과 같은 처지의 인물로, 이들을 외면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의 화자는 고통스러운 삶을 겪었으나 그러한 삶을 후회하고 있지 않다. 또한 화자가 타인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내용은 (가)와 (나)에 드러나 있지 않다.

02 시어의 의미와 기능

3점 길잡이

〈보기〉는 시에 사용된 시간적·공간적 배경이 모두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드러난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찾고 그러한 배경이 갖는 의미와 작가가 그러한 배경을 설정한 이유를 파악해 본다.

(나)의 18~20행 '봄은 오는데/긴 겨울 이야기는/끝나지 않았다'는 계절은 바뀌는데도 암울한 현실은 그대로인 상황을 나타낸다. 이 시에서 '봄'이 오는 것은 물리적 시간의 흐름을, '긴 겨울 이야기'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고개'는 화자가 정갹이 아재의 시신을 지고 넘어가는 물리적 공간이다. 또한 '기러기때 돌아 넘는다' 고개는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기도 한다.

② '푸른 하늘'은 정갹이 아재가 죽어서 파랑새 되어 훨훨 날 수 있는 공간으로, 현실의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난 자유의 세계를 의미한다.

③ '긴 겨울 이야기'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계절에 빗대어 표현한 구절로 작가의 부정적 현실 인식을 보여 준다.

④ '서울'은 '난군'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화자는 이러한 서울을 떠나려고 한다.

03 표현상의 특징

(가)의 17행 '못새들 저러이 울어'에서 화자는 '못새'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갹이 아재'를 잃은 슬픔과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는 설움을 심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한 주인을 벗어나면 또 다른 주인/한 세월 섬기고 나면 더 검은 세월'에서와 같이 대구적 표현을 통해 지속되는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반어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앞산길 첩첩 뒷산길 첩첩/돌아보면 정든 봉 첩첩'과 같이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지만 대상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에서 그칠 뿐 구체적인 묘사가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첩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현실의 고통을 강조하고 암울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으나,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⑤ '못 살아야겠다고 못 참겠다고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찌렁찌렁 울었지만'에 저항의식이 드러나지만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04~06]

[면양정가 _ 송순]

해제 이 가사는 송순이 만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전남 담양에 내려가 '면양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자연 속에서 풍류 생활을 즐길 때 지은 작품이다. 면양정이 있는 제월봉의 모습에서 시작하여 면양정의 사계절 경치를 묘사하고, 이로 인해 느끼는 작자의 풍류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임금의 은혜로 돌리는 충(忠)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면양정에서 느끼는 자연의 정취와 연군의 정

특징 •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
• 낙구에 '역군은이샷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강호가도의 전통을 확립함

구성 1~6구 : 면양정의 봄 경치

7~11구 : 면양정의 여름 경치

12~14구 : 면양정의 가을 경치

15~18구 : 면양정의 겨울 경치

19~29구 :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생활

30~42구 : 자연에서의 풍류 생활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한눈에 보기

선경(先景)	면양정의 봄	산람
	면양정의 여름	녹양, 녹음
	면양정의 가을	된서리, 금수, 누렇게 익은 곡식
	면양정의 겨울	얼음, 눈, 경교묘대, 옥해은산

후정(後情)

자연에서의 풍류 생활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04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작품의 마지막 구에 나타난 '역군은(亦君恩)이샀다'는 자연에서 즐기는 풍류를 임금의 은혜로 돌리는 양반 문학의 충(忠) 사상을 보여 주는 관습적인 시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이 권력이나 속세에 대한 욕망이나 아쉬움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자연을 즐기느라 바쁜 화자의 모습을 '이것도 보려 하고 ~ 내 일이라 넉넉하라'와 같이 대구법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② 산람의 모습을 통해 봄의 정취를, 녹양과 녹음을 통해 여름의 경치를, 뎡서리, 금수, 누렇게 익은 곡식을 통해 가을 경치를, 얼음과 눈, 경궁요대, 옥해는 산을 통해 겨울 경치를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는 면양정 주변의 경치를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다.

④ 면양정의 사계절의 경치를 다양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어적 소리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05 시어의 의미와 기능

이 작품의 화자는 시종일관 풍류를 즐기고 흥취를 느끼며 삶에 만족하고 있다. 즉 화자가 외로워하거나 위로받을 만한 상황이라 볼 수 없으며, '술'은 화자의 풍류를 북돋워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산람', 즉 산 이치랑이는 봄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면양정의 봄 경치,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② 가마를 타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평민의 신분이 아니라 사대부의 높은 신분임을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이전에 머물렀던 공간인 '인간'의 세상, 즉 속세를 떠나와서 한가한 자연 속에서의 흥취를 느끼고 있다.

⑤ 화자는 자신을 '신선'에 견주어 표현함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06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이 작품의 화자(A)는 속세를 떠나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열거하면서, 한가할 틈이 없이 분주하게 지내며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하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반면 <보기>의 화자(B)는 인간의 삶과 대조되는 자연을 보며 시름에 잠겨 있다. 하지만 자연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작품의 화자(A)는 면양정 주변의 아름다움에 몰입한 풍류 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반면 <보기>의 화자(B)는 병자호란이라는 치욕적인 일을 당한 자신의 처지와 달리 앓을 일, 아플 일이 없는 자연을 부러워하고 있다.

③, ④ 이 작품의 화자(A)는 자신을 신선의 삶에 비유할 정도로 면양정에서 흥취를 느끼는 삶을 긍정하고 있는 반면, <보기>의 화자(B)는 자신의 삶이 구령의 풀보다도 못하다고 하며 슬픔과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

보기 해설 이정환, 「국치비가(國恥悲歌)」

해제 인조 14년(1636년), 청의 군신 관계 요구를 거절한 일로 청이 쳐들어와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이 인질로 끌려가게 된다. 이 작품은 불모로 끌려간 두 왕자에 대한 격정과 국치(國恥)를 당하고도 죽지 못한 작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으로, 총 10수로 된 비가(悲歌)이다.

주제 병자호란의 국치로 인한 비분강개(悲憤慷慨)

01 ⑤

02 ④

03 ④

04 ③

05 ③

06 ④

[01~03]

가 시의 화자

해제 이 글은 시에 나타난 화자의 성격을 설명하고, 화자의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화자의 형태에 따라 시에 드러난 체험과 화자의 말하는 행위에는 시간 차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리학적 개념에서 파생되어 사용되는 개념인 관습적 자아와 이를 견제하는 자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주제 시에서 화자의 성격과 형태에 따른 역할

나 [무서운 시간 - 윤동주]

해제 이 시는 일제 강점기라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화자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화자는 시대적 소명 혹은 종교적 소명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이 부름에 응하는 길이 괴롭고 무서운 죽음의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름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부정적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임을 자각하며 부끄러움과 변민을 느끼고 있다.

주제 시대적 소명 앞에 부끄러운 자아에 대한 반성과 성찰

특징 •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내면세계를 드러냄

• 비유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냄

구성 1연 : 부름에 대한 자각

2연 : 절망적 상황에서 생명이 남아 있는 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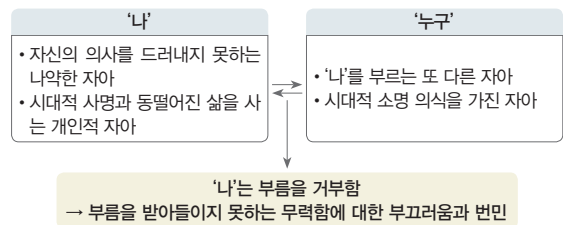
3연 : 기본적인 자유마저 억압된 삶

4연 :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5연 : 자연의 섭리인 죽음

6연 : 부름에 대한 거부

한눈에 보기



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 김광규]

해제 이 시는 4·19 당시에 순수하고 열정적인 젊은이였던 세대가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되면서 젊은 날의 꿈과 이상을 잃어버린 채 현실에 안주하며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젊은 시절의 화자는 꿈과 이상을 추구하며 현실을 개혁하고자 고민하였으나, 중년이 된 화자는 소시민이 되어 버린 자신과 친구들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처럼 이 시는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서사적 즐거움을 통해 과거의 순수했던 모습과 현재의 소시민적인 모습을 대비하면서 현재 화자가 느끼는 부끄러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순수했던 젊은 시절에 대한 회상과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끄러움

특징 •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서사적 줄거리를 지님
•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대비하여 현재 화자가 느끼는 부끄러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구성 1~19행 : 4·19가 나던 해 순수했던 젊은 시절에 대한 회상
20~37행 : 중년이 되어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친구들과의 만남

38~49행 :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대한 부끄러움

한눈에 보기

과거	〈4·19가 나던 해 세밀〉 • 차가운 방에 앉아 열된 토론을 함 • 정치와는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음 •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표를 마심 •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로 고민함 • 아무도 알아 주지 않아도 순수와 열정을 노래함	순수, 열정
현재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모임 • 회비를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음 •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노래를 부르지 않음 •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김 • 소시민적 일상인 늪으로 발을 옮김	순응, 안주

01 작품의 종합적 감상

3점 집합이

(가)에 제시된 화자의 형태와 특징에 대한 설명을 (나)와 (다)의 화자에 대입하여 (나)와 (다)에 드러난 화자의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서는 시에 드러나는 화자의 특징과 형태를 설명하며, 일인칭 화자의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나)의 화자인 '나'는 일인칭 화자이면서 또 다른 자아('누구')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관습적 자아로, 부정적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각하며 부끄러움과 번민을 느끼고 있다. (다)의 화자 역시 일인칭 화자로, 이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현실에 순응하여 소시민적 삶을 사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다)의 전반부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젊은 시절에 대한 회상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체험과 화자가 말하는 행위 사이에 시간적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나)에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화자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 '나'는 '누구'의 부름을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름에 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낙담한 자아이고, '누구'는 이러한 '나'를 일깨우고 견제하는 자아이다. (나)가 창작된 시대적 배경이 일제 강점기라는 점을 고려하며, '나'는 외부에 순응하는 객체야로 이해할 수 있고, '누구'는 이러한 '나'를 반성하게 하는 주체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다)의 1~19행에서 화자는 과거에 4·19 혁명을 겪었고 그 후 18년이 지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고 서술하였다.

④ (다)의 화자는 꿈과 이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과거의 모습과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현실에 순응하여 소시민적 삶을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대비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자신의 체험(4·19 혁명)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말함으로써 현재 느끼는 부끄러움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2 표현상의 특징

이 시의 화자는 1연에서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4연에서 '나를 부르는 것이오.'라고 하며 자신을 부르는 것이 누구냐는 의문을 누군가에게 건네고 있다. 또한 6연에서는 '나를 부르지 마오.'라고 하면서 자신을 부르지 말아달라는 명령을 누군가에게 건네고 있다. 즉, 이 시의 화자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부름에 대한 자각, 그리고 부름을 거부하는 자신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시간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화자의 정서 역시 고조되지 않고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② 가랑잎이 떨어진다는 하강적 이미지에서 동적인 이미지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역동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랑잎이 떨어지는 것을 화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이라고 할 수도 없다.

③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지는 것에서 때가 되면 죽게 되는 자연의 섭리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전달하기 위해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화자는 현재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고 있으며,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03 사상 전개 방식

[A]는 4·19 혁명이 일어났던 해인 1960년으로 화자의 젊은 시절을 그리고 있고, [B]와 [C]는 그로부터 18년이 지나 중년이 된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즉 [A], [B], [C]는 모두 화자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는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과거 젊은 시절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B]와 [C]는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 화자의 소시민적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② [A]는 '4·19가 나던 해'에서 1960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해화동 로터리'에서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 [B]는 [A]로부터 '18년'이 지난 때임을 알 수 있고, 공간적 배경도 '동송동 길'처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C]는 [B]에서 연결되고 있으므로 같은 시간적·공간적 배경임을 알 수 있다.

③ [A]와 [B]는 마시는 술,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 등에서 대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C]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폴라타너스'를 통해 현재의 소시민적인 삶의 모습을 반성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⑤ [A]는 젊은 시절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이상에 대한 토론과,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같은 고민들이 나타나 있다. [B]는 서로 '처자식의 안부'를 묻고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04~06]

가 [농가_위백규]

해제 사대부인 작자가 관직에 나가지 않고 농업에 힘쓰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전체 9장의 연시조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관념적으로 예찬한 사대부의 일반적인 시조와 달리, 농촌을 풍류의 공간이 아닌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바라보면서 농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으며, 농촌의 일상을 시간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주제 농민의 삶과 소박한 삶의 흥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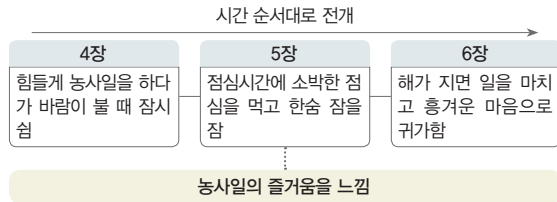
특징 • 농촌의 일상을 시간 순서대로 제시함
• 농촌에서 쓰는 일상어를 주로 사용하며 농촌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구성 4장 : 농사일 뒤에 즐기는 짧은 휴식

5장 : 점심 먹은 후의 낮잠

6장 : 농사일을 마친 후의 흥겨운 귀갓길

한눈에 보기



나 [고시 7 _ 정약용]

해제 조선 후기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눈물겨운 삶의 모습을 우의적으로 풍자한 한시이다. 피지배층의 신세를 물 위에 떠 있는 풀인 부평초에 비유하고, 이를 착취하는 지배층을 연잎과 마름에 비유하여 대립적인 관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백성을 약탈하는 관리를 비판하고, 꺾박받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형상화하였다.

주제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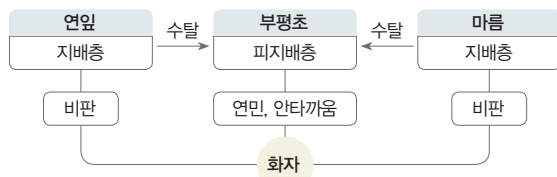
특징 • 우의적 수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 대상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냄

구성 기(1~4구) : 뿌리 없이 바람에 떠다니는 부평초

서(5~8구) : 부평초를 괴롭히는 연잎과 마름

결(9~10구) :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한눈에 보기



04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는 각 장의 마지막을 ‘머무는고’, ‘다를쏘냐’, ‘재촉하는고’와 같이 의문형으로 끝맺으며 농사일의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마지막 구에서 ‘왜 이다지 몹시도 어긋나는가’라는 의문을 통해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 피지배층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농촌에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므로 인간과 자연이 대비되기보다는 합치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는 자연의 모습에 인간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으므로 대비라고 할 수 없다.

② (가)에서 화자는 농사일을 즐기고 있으므로 현실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의 화자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극복 의지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가)는 농사일의 즐거움에 대해 노래하고 있으므로 부정적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는 지배층의 수탈과 피지배층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부정적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은 (나)에만 나타나고 있다.

⑤ (가)는 농사일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고, (나)는 지배층의 횡포로 인해 고통받는 피지배층의 모습과 이에 대한 연민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지 않다.

05 표현상의 특징

[B]에서는 같이 점심을 먹는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함께 농사일을 하는 농민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A]에 등장하는 ‘손님’에게는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대구는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둘 이상의 글귀를 짝 지은 것으로 특히 한시를 비롯한 고전 시가에서 많이 쓰인다. [A]의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쫓 대로 쫓다’, [B]의 ‘내 밥 많을세요 네 반찬 적을세라’에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② [A]와 [C]는 전체적으로 종장과 종장의 구조가 비슷하고, ‘듣는’과 ‘듣고’, ‘돌아가자’ 등의 시어의 반복이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농민들의 삶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④ 작자는 사대부이지만 한자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농사일과 관련한 순우리말을 주로 사용하여 농촌의 모습을 정감 있게 그려 내고 있다.

⑤ [A]의 종장에 휘파람 소리가, [C]의 종장에 피리 소리가 드러나며, [B]에는 ‘보리밥’과 ‘콩잎’이 채워진 그릇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06 작품의 종합적 감상

3점 길잡이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이다. (나)에서 우의적으로 사용된 시어인 연잎, 부평초, 마름이 〈보기〉에서 각각 어떤 존재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해 본다.

마름은 연잎과 마찬가지로 부평초를 괴롭히는 존재이지 부평초를 돕는 존재로 볼 수 없다. 줄기로 부평초를 칭칭 감아 조인다는 것은 관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착취하기 위해 쥐어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부평초는 뿌리 없이 물 위에 떠돌고 있다. 이는 정착하지 못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 휘둘리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보기〉의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휘둘리고 시달림을 당하는 백성’을 우의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약하고 힘없는 부평초를 연잎이 업신여기고 있으므로 이는 〈보기〉에서 말하는 ‘백성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관리들의 횡포’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부평초는 목숨은 붙어 있지만 작고 가늘다고 하였다. 이는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는 약자의 괴로움을 표현한 것이므로, 백성들의 눈물겨운 삶에 대한 연민의 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연잎, 부평초, 마름이 한 연못에 살면서도 서로 어긋난다고 한 것은 함께 살면서도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작자의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힘없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IV

산문 문학

실전 1

현대 소설

본문 126~128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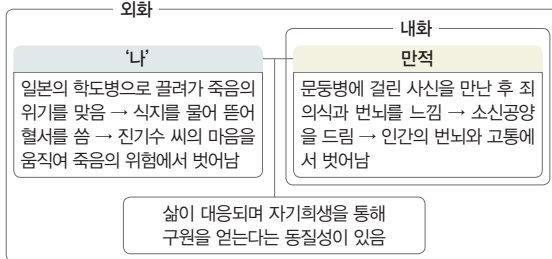
[등신불 - 김동리]

해제 이 작품은 등신불을 소재로, 인간의 번민과 그 종교적 승화라는 주제 의식을 표현한 소설이다. 주인공 '나'가 일본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탈출하여 불교에 귀의한 사건에, 등신불에 얹힌 만적의 이야기가 삽입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주제 인간 삶의 갈등과 고뇌의 종교적 승화

특징 외화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내화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함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일제 강점 말 학도병이 되어 중국 남경에 온 '나'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진기수 씨를 찾아가 불교에 귀의하겠다는 혈서를 쓰고 도움을 청한다.

'나'는 진기수 씨의 도움으로 정원사라는 절에 몸을 의탁하게 되는데, 그 절의 금불각에 모셔진 등신 금불을 보고 원해 대사로부터 그 내력에 대해 듣게 된다.

만적은 당나라 때 인물로, 이복형제 사신을 독살하려는 어머니로 인해 큰 갈등을 겪다가, 집을 나간 사신을 찾기 위해 집을 나와 불가에 몸을 맡긴다. 10년 후에 문둥병으로 고통받는 사신을 만나 충격을 받고 인간사의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신공양을 결심했는데, 소신공양 후에 만적의 몸에 금을 써온 것이 등신불인 것이다.

원해 대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나'는 등신불에 인간의 고뇌와 슬픔이 서려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만적의 소신공양과 자신의 단지 행위가 유사함을 깨닫게 된다.

0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나'의 현재 이야기 속에 만적의 과거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내면이나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나'가 원해 대사로부터 전해 듣는 만적의 이야기에서 만적이 소신공양을 하게 된 사연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이 글은 현재의 '나'의 이야기 - 과거의 만적의 이야기 - 현재의 '나'의 이야기 순으로 진행되어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고 있으며, '나'의 이야기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만적의 이야기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④ 이 글은 '나'가 원해 대사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는 구조를 통해 만적이 소신공양을 하게 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

⑤ '태허루에서 정오를 아뢰는 큰 북 소리가 목어(木魚)와 함께 으르렁거리며 들려 왔다.'라고 주변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나'가 원해 대사의 가르침을 이해했음을 암시하고 여운을 남기며 끝맺고 있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나'는 원해 대사로부터 만적의 이야기를 듣고, 인간의 고뇌와 슬픔에 찬 등신 금불의 모습을 이해하게 된다. '나'는 원해 대사를 통해 만적의 소신공양과 자신의 단지(斷指) 행위가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는 점에서 유사함을 깨닫지만 '나'가 깨달음을 얻어 만적을 본받고자 하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만적의 소신공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등신 금불을 보며 인간적 고뇌와 슬픔이 아로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② '나'는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목숨을 구하고 살생을 피하기 위해 불교에 귀의하겠다는 혈서를 쓴다.

④ 사신이 문둥병에 걸린 것에 충격을 받은 만적은 고행에 임한 후 소신공양을 한다. 따라서 사신과의 만남이 소신공양의 계기임을 알 수 있다.

⑤ 만적은 사신을 독살하려는 어머니로 인해 고뇌를 겪고 집을 나가 불교에 귀의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악행으로 인해 고뇌에 빠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ㄷ에서 원해 대사를 통해 '나'와 만적의 행위가 희생을 통한 자기구원과 번뇌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가 만적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하며 회의를 느끼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는 학도병으로 끌려가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벗어나려 하였고, 만적은 소신공양을 통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복형제에게 고통을 준 원인이라는 죄의식과 그 죄의식으로 인한 번뇌에서 벗어나려 한다.

② '나'와 만적은 자신의 몸을 해하는 자기희생으로 자신이 직면한 고뇌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③ 만적의 소신공양은 문둥병에 걸린 이복형제와 그 원인을 제공한 어머니, 그리고 중생을 위한 것으로 이타적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나'가 혈서를 쓴 것은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인적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④ 원해 대사는 '나'의 식지를 들어 보게 하여 만적의 소신공양과 '나'의 단지(斷指) 행위가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을 넉넉히 알리고 있다.

04 속담 및 한자 성어

㉠에서 '나'와 원해 대사는 말을 하지 않고 있으나 내용의 흐름상 어떤 의미를 공유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다기망양(多岐亡羊)'은 '갈림길이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한다'는 뜻으로, 두루 섭렵하기만 하고 전공하는 바가 없어 끝내 성취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인데, ㉠에서 '나'는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② '망연자실(茫然自失)'은 '멍하니 정신을 잃음'을 의미하는데, ㉠에서 원해 대사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에 멍해져서가 아니다.

③ '기상천외(奇想天外)'는 '착상이나 생각 따위가 쉽게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발하고 엉뚱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 침묵이 대사의 엉뚱함에 할 말을 잃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경이원지(敬而遠之)'는 '공경하되 가까이하지는 않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은 만적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뒤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이를 통해 만적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를 짐작하기는 어렵다.

01 ② 02 ② 03 ③

[금 따는 콩밭 - 김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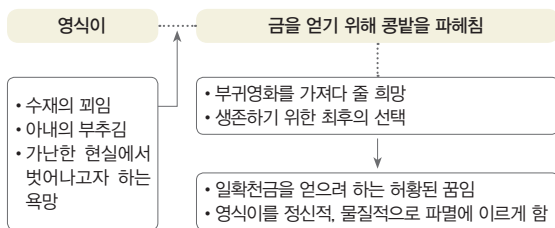
해제 이 작품은 무지하고 가난한 농민 영식이의 수재의 꾀임에 넘어가 콩밭에서 금을 캐다 물질적, 정신적으로 파멸해 가는 모습을 희극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농군이 금광이라는 일확천금의 유혹에 빠지는 과정을 통하여 1930년대 농촌 사회의 열악한 모습과 일제의 금 채굴 장려 정책에 따른 당시의 금광 열풍을 풍자하고 있다. 작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금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당시 소작농의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신적·물질적으로 몰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연민을 동반한 해학으로 변용시켜 표현하고 있다.

주제 절망적 현실에서 허황된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특징 • 배경과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 1930년대 소작농들의 비참한 삶과 금광 채굴이 성행한 당시 시대적 상황이 드러남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영식은 수재와 콩밭을 파헤쳐 금줄을 잡으려 하고, 이를 본 마름은 영식이를 꾸짖는다. 금줄은 나오지 않고 수재의 여유 있는 태도에 화가 난 영식은 수재와 몸싸움을 벌인다.

성실한 농민이었던 영식은 자신의 콩밭으로 금줄이 이어져 있다는 수재의 꼬임과 아내의 부추김에 콩밭에서 금을 캐기로 하였다. 그러나 밭을 파도 금이 나오지 않자 초조해한다.

산재를 지내기 위해 쌀을 꿰 오라는 영식이의 말에 아내가 말대꾸를 하자 영식이는 호통을 치고 꾀는 쌀로 산재를 지내지만 열흘이 넘도록 금맥 소식이 없자 절망한다.

꿰 온 쌀 때문에 아내와 말다툼을 한 영식이는 아내에게 발길질을 하고, 수재는 영식이의 화풀이가 자신에게 미칠까 봐 금줄이 잡혔다고 거짓말을 한다.

기빠하는 영식이 내외를 보며 수재는 오늘 밤 몰래 달아나리라고 다짐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영식이와 수재와 함께 콩밭을 파헤치다 마름으로부터 포악한 말을 듣게 되는 장면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인 수재가 영식이를 찾아와 콩밭에 금이 묻혀 있다고 부추기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사건 간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에서는 배경과 인물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인물의 외양 묘사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 작품의 희극성은 애초에 금을 캐 수 없는 콩밭에서 금을 캐려고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③ 금을 캐기 위해 뒤엎은 콩밭의 모습을 '사태 만난 공동묘지'와도 같이 귀살 찍고 뒤우 을씨년스럽다.'라고 공동묘지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배경 제시는 금이 나오지 않아 공연히 한 해 농사만 망친 셈이 된 영식이의 답답한 심리와 어울려 영식이의 절망적인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인물의 심리와 대조되는 배경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짧은 문장으로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으며, 사투리를 포함한 향토적인 말투로 현장감을 살리고 있을 뿐 동정심을 유발하는 인물의 말투는 찾을 수 없다.

⑤ 시골 마을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가 나타날 뿐, 작품 내에서 시대적 변화를 부각하려는 배경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02 소재의 의미와 기능

일 년 내내 고생하여 농사를 지어도 밭도지, 비료 값, 품삯, 빚 등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식이에겐 금은 처참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지막 희망이다. 하지만 콩밭만 파헤치고 금을 캐지 못할 경우 영식이의 삶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금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영식이의 희망인 동시에 영식이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함정이기도 하다.

오답 풀이 ① 영식이는 콩 농사를 망쳤고, 소작 지을 밭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금'은 마지막 생계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도리를 버려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금'을 파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에서 '금'은 이상적 삶에 대한 동경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식이는 부유한 삶을 바라고 있을 뿐 이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④ 영식이는 금을 찾기 위해 농토를 파헤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므로, 이때 '금'은 현실의 괴로움을 발생시킨 소재이자, 절망적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 줄 단 하나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금'은 삶을 유지시키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영식이의 소망을 담은 소재이다. 또 이 글에서 영식이에겐 호통치는 마름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마름과 소작인과의 갈등, 즉 계층 간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마름이 콩밭을 파헤치는 영식이를 보고 호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단순히 자신이 관리하는 콩밭이 파헤쳐져 지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한 행동이다. 마름은 영식이의 허황된 꿈을 비난하고 있을 뿐,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은 드러내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수재는 농사는 짓지 않고 금광만 찾아다니는 인물로, 성실한 농사꾼인 영식이를 여러 번에 걸쳐 꾀어 콩밭을 파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② 영식이는 수재의 끈질긴 설득과 아내의 충동질에 넘어가 콩밭을 파기로 한다. 농사일밖에 모르던 영식이와 그의 아내가 수재의 말에 넘어가 금점을 파기로 한 데서 당시 금 채굴 정책에 따른 금광 열풍을 짐작해 볼 수 있다.

④ 영식이는 기껏 소작을 지어 콩 몇 섬을 얻으려먹으려고 농사를 짓느니 금점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고 여겨 금을 캐기 시작하였다. 이런 영식이의 상황을 통해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가난한 소작농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금점으로만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금점을 파도록 부추기는 수재는 일확천금에 눈이 먼 허황된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의 모습에는 일제가 장려한 당시 금 채굴의 열기로 인해 일확천금의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01 ④ 02 ⑤ 03 ③ 04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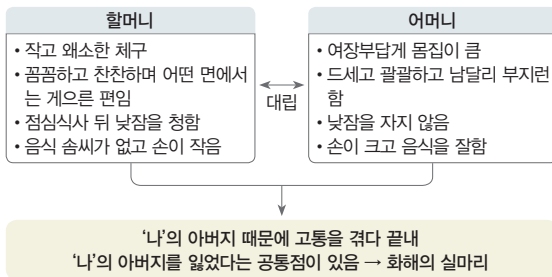
[미망 _ 김원일]

해제 이 글은 전쟁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겪으며 일어난 고부간의 갈등과 화해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나'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신체적 특징, 성격, 사소한 습관, 음식 솜씨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립적인 인물로, 두 사람은 전쟁 중 '나'의 아버지를 잃는 아픔을 겪으며 계속 반목하게 된다. 두 인물의 대립은 개인적·가족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족의 비극적 현실과 관련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희생되어야만 했던 모든 사람의 아픔이 두 사람의 갈등 속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주제 분단이라는 역사적 비극에서 비롯된 할머니와 어머니의 갈등과 화해

특징 •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민족의 비극적 현실과 관련지어 제시함
• 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을 '나'의 시선을 통해 바라봄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할머니가 19살에 혼인하여 아들 둘을 잃고 세 번째 얻은 아들인 아버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야학당을 개설하여 농민 운동을 시작하면서 왜경들의 감시를 받게 된다.

할머니는 결혼하면 아들 마음이 잡힐까 하여 혼인을 시키지만, 혼인하기 일주일 전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들 또한 농민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아버지는 중적을 감춰 버린다. 이후 고모와 살던 할머니는 고모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손자인 '나'의 집에 와서 살게 되고, 울산에서 장사하던 어머니도 큰아들인 '나'의 집으로 올라온다.

한집에서 살게 된 어머니와 할머니는 다섯 달 동안 여섯 번을 싸울 정도로 사이가 안 좋고 '나'는 두 사람을 중재하려고 한다. 할머니의 임종이 다가오자 가족들이 '나'의 집에 모인다.

어머니는 애써 냉담한 척하지만 할머니가 좋아하는 갈치를 사 가지고 온다. 할머니가 죽은 후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고모는 할머니가 사십여 년을 차고 다닌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조그마한 사진이 붙은 보도 연맹 가입증(빨갱이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명서)을 발견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어머니와 할머니의 대립되는 모습을 신체적 조건부터 성격, 요리 솜씨까지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술자를 통해 어머니와 할머니의 과거 사연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서술자의 체험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건을 현재형 어미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의 서술자는 '나'로, 고모나 할머니, 어머니 등 여러 가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다양한 서술자가 각자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갈등의 당사자인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해 담당하게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어머니는 할머니에 대해 '원래 본 바 없고 배운 바 없이 청상과부 아래 잔물만 보고 갯가서 자랐다 보니까'라고 폄하하고 있다. 또 '말만 듣던 시집살이가 오죽이나 했겠냐'라고 뉘드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과거 자신에게 야박했던 할머니에 대해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고모와 아내는 할머니의 임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였으며, 고모의 말에서 할머니가 위독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고모는 '성가가 해도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어머니에 대해 비난조로 말하고 있다.

③ 고모부가 보증을 잘못 서고 노름으로 패가망신하자 할머니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④ '나'가 재떨이의 담배꽂조를 보고 이빨이나 뺨조각 같다는 생각을 한 것에서 '나'가 할머니의 죽음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고모가 어머니의 태도를 원망하자 아내는 어머니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이는 고모와 아내가 갈등하는 상황이 아니라, 고모와 어머니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아내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어머니는 제대로 먹지 못했던 시절을 회상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어머니와 할머니는 전쟁 후 '나'의 아버지의 실종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고, 이때부터 완전히 갈라섰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이 소설의 작가는 두 인물의 갈등이 전쟁이라는 역사적 고난 속에서 겪은 모든 이들의 아픔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같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반목하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떠올릴 수 있다.

④ 아버지가 '그노무 빨갱이 공부'를 하는지 '기집질'을 하는지 모르지만 집을 비웠다는 어머니의 말에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남편의 부재로 인한 고통과 한을 느낄 수 있다.

⑤ '나'는 새벽에 보았던 할머니의 모습에서 삼십 년이 넘도록 소식 없는 외동 아들('나'의 아버지)에 대한 할머니의 그리움을 짐작하고 있다.

04 속담 및 한자 성어

'삼순구식(三旬九食)'은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함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할머니가 고모네 집에서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과 부합한다.

오답 풀이 ① '견물생심(見物生心)'은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을 뜻한다. ㉡은 고모네가 힘들어지게 된 이유인데, 고모부는 무언가를 보고 욕심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사고무친(四顧無親)'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고모나 아내가 할머니의 임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발분망식(發憤忘食)'은 끼니까지도 잊을 정도로 어떤 일에 열중하여 노력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고모가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주경야독(晝耕夜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끈기있게 공부함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와는 거리가 멀다.

01 ③ 02 ④ 03 ③

[상포 가는 길 - 황석영]

해제 이 글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농촌의 해체와 근대화 과정에서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 주요 등장인물은 막노동자 영달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정 씨, 술집 작부 백화인데, 이 세 사람은 정해진 거처가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신세이며 이 글은 이 세 사람의 짧은 동행기를 서술하고 있다. 이들이 찾아가고 있는 '삼포'는 작가가 만든 지명으로, 정 씨의 고향이자 등장인물들이 고달픈 떠돌이 생활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삼포의 모습은 급속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인물들은 이로 인해 고향 상실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애환과 연대 의식

특징 • 등장인물이 여행하는 '길'을 배경으로 한 여로형(旅路型) 소설임
•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결말을 처리함

한눈에 보기

영달이	정 씨	백화
막노동자로, 일자리를 찾아 객지를 정처 없이 떠돌며 삶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공사장에서 노동하며 살아감	고향을 떠나 여러 술집을 전전하다가 술집에서 도망침

삼포를 찾아가는 길

동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교감함

◆ 장면 IN 줄거리

영달이는 공사판의 공사가 중단되자 밀린 밥값을 떼어먹고 도망치다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떠돌다 고향인 삼포를 찾아가는 정 씨를 만나 동행하게 된다.

영달이와 정 씨는 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감천으로 향하던 중 술집에서 도망쳐 나온 백화를 만나 동행하게 되고 세 사람은 서로의 아픔과 처지를 이해하고 교감을 나눈다.

백화는 영달이에게 호감을 느끼고 자신의 고향에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영달이는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돈으로 기차표와 빵 등을 사 주며 백화를 보낸다. 백화는 울먹이며 두 사람에게 본명을 말하고 떠난다.

정 씨와 영달이는 대합실에서 만난 한 노인에게 삼포가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듣는다. 영달이는 공사판이 생겼다고 좋아하나, 정 씨는 고향을 잃었다는 생각에 상실감을 느낀다.

01 인물의 심리 및 태도

노인은 영달이와 정 씨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살피고 어딘가로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인지 관심을 보이며 말을 걸고 있다. 즉 영달이와 정 씨가 어디로 일을 가는지 궁금해서 말을 걸고 있는 것이며, 노인이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는 근거는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영달이의 “거기 가서 아주 말뚝을 박구 살아 버렸으면 좋겠네.”라는 말을 통해 그가 삼포처럼 비옥한 땅이나 고기잡이가 가능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버스나 기다릴 걸 잘못했나 봐요.”라고 영달이가 투덜대자, 정 씨는 버스

가 언제 올지 모르고 그보다 현금을 아껴서 수중에 돈이 있어야 든든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중에 돈이 있어야 든든하게 느끼는 정 씨의 심리를 알 수 있다.

④ 백화는 영달이와 정 씨가 자신에게 보여 준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고, 헤어지면서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시 돌아와 ‘이점례’라는 자신의 본명을 밝히는 것을 통해 백화가 이들에게 진실한 인간미와 유대감을 느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삼포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변했다는 소식에 정 씨는 큰 상실감을 느끼지만, 영달이는 이런 정 씨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에게 삼포에 가서 공사판에서 일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영달이, 정 씨, 백화는 산업화와 농촌의 해체 과정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인물들이다. 백화가 떠나기 전 “정말, 잊어버리지 …… 않을게요.”라고 말한 것은 영달이와 정 씨가 자신에게 보여 준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말은 그들이 돈독한 유대감을 느꼈다는 것과, 영달이와 정 씨에 대해 감동한 백화의 심리를 보여 준다. 그러나 <보기>와 이 글에서 타향살이의 상처를 극복한 백화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영달이는 백화를 위해 그녀가 타고 갈 기차의 표, 삼립빵 두 개, 낱알 등을 사 준다. 이는 속 깊은 영달이의 백화에 대한 정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② 산업화로 인해 삼포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 씨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정 씨의 모습은 고향, 마음의 안식처를 빼앗아 가는 산업화의 폐해를 보여 준다.

③ 정 씨는 삼포를 ‘정말 아름다운 섬’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비옥한 땅은 남아돌아가구, 고기두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가 삼포를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상적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영달이, 정 씨, 백화는 모두 정해진 안식처 없이 떠돌며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는 모두 <보기>에 나타난 1970년대 산업화와 농촌의 해체로 소외된 이들의 삶의 모습에 해당한다.

03 소재 / 배경의 의미와 기능

㉠에서 강물이 쾅쾅 얼어붙어 있다는 것은 날씨가 그만큼 춥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들의 여정이 녹록치 않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에서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은 영달이와 정 씨의 앞날이 마치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처럼 밝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오답 풀이 ① ㉢은 영달이와 정 씨가 처한 상황을 알려 주는 것이므로 내면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도 달리는 기차의 모습을 통해 영달이, 정 씨의 앞으로의 삶이 평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을 뿐 외적 현실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② ㉠은 영달이와 정 씨가 순탄치 않은 여정을 걸어 왔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나, ㉢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 영달이와 정 씨는 서로 유대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두 인물이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글에서는 인물의 심리를 말과 행동 또는 주변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데, ㉠과 ㉢은 인물의 여정과 다가올 미래를 암시할 뿐 영달이와 정 씨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1 ③ 02 ⑤ 03 ④ 04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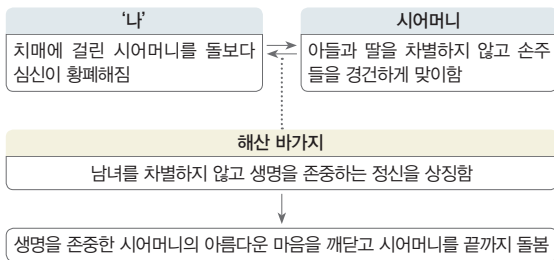
[해산 바가지 _ 박완서]

해제 이 작품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부양하느라 지친 '나'가 시어머니의 해산 바가지를 떠올리고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가는 딸과 아들을 구별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를 기쁘게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경건한 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뿌리 박힌 남아 선호 사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또 시어머니를 이해하는 '나'의 태도를 통해 이해와 포용의 순환을 표현하고 있다.

주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특징 •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의 내적 변화를 드러냄
• '나'가 자신의 경험과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함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나'는 며느리가 또 딸을 낳았으며 불안스러워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로 마음먹는다.

'나'는 결혼하여 네 딸과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녀 차별 없이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나'는 휴반인 척 병수발을 하다가 신경 안정제를 복용할 만큼 심신이 황폐해진다.

친척들과 상의한 끝에 시어머니를 요양 시설에 보내기로 하고 '나'와 남편은 요양 시설을 보러 간다.

요양 시설을 보러 가던 중 시어머니의 해산 바가지를 떠올린 '나'는 '나'가 해산할 때마다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경건하게 아이와 산모의 건강과 복을 빌던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깨닫는다. '나'는 마음을 바꿔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3년 후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임종을 맞이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나'는 이 작품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으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생각이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주로 과거형 어미를 사용하여 '나'가 경험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② '나'는 자신의 경험과 심리 변화를 독백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겪는 일에 대한 감상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글은 '나'의 체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식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제3자가 서술자로 나

타나지 않는다. 또 사건 전개 양상에 대한 논평 또한 찾아볼 수 없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에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맡길 요양 시설을 알아보러 가는 남편의 죄책감과 심리적 부담감이 드러나 있다. ㉠은 시어머니를 직접 모셔야겠다는 '나'의 결심으로 인해 그와 같은 갈등이 해소되어 ㉠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났음을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①, ② 남편과 시어머니의 갈등이나 시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남편의 염려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을 통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는 문제로 남편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남편만 진땀을 흘린 것이 아니며 '나'도 괜히 진땀을 흘렸다고 하였다. 이는 '나'도 남편처럼 어머니를 요양 시설에 보내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 이 작품에서 남편이 '나'에게 화가 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은 제시되지 않는다.

④ ㉠에서 남편은 발걸음을 돌리자 땀을 흘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요양 시설이 적당한가에 대한 불안감이 아닌 어머니를 요양 시설에 보내는 행동 자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땀을 흘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3 소재의 의미와 기능

'나'는 우연히 '박'을 보고 '해산 바가지'를 떠올리고 시어머니가 해산 바가지를 마련하여 경건한 태도로 자신의 해산 구원을 해 주었던 과거를 회상한다. '나'는 시어머니가 생명을 차별 없이 대하는 고귀한 정신을 지니신 분임을 깨닫고 시어머니를 요양 시설에 맡기려 한 자신을 반성한다. 이처럼 '박'은 '나'가 과거를 회상하게 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오답 풀이 ①, ② '나'는 지붕에서 '박'을 발견하고는 기쁨과 평화와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괴어 오는 것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가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는 요양 병원으로 가는 중 조바심을 내고 죄책감을 느끼는 남편을 보며 쓰러린 마음을 느꼈으며, 이후에 남편에 대한 '나'의 심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시어머니의 치매를 건디지 못하고 요양 시설을 알게 보게 된 것이므로 '나'가 시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작품의 종합적 감상

'나'는 시어머니를 직접 돌보기로 마음먹은 후에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감당하기는 힘들었다고 하였으며, 다만 위선을 떨지 않고 진심을 다하게 되어 숨구멍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생명이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깨달음 때문이지 성 차별적 인식에 대한 반성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시어머니가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손주들의 탄생을 차별 없이 경건하게 준비했듯이 '나'도 시어머니의 이런 아름다운 정신을 깨닫고 시어머니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보듬고 있다.

③ 손주를 위해 해산 바가지를 준비하고 손주와 산모를 위해 정성으로 기도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을 엿볼 수 있다.

④ '나'는 첫아이를 출산했을 때 시어머니의 엄숙한 해산 준비가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라 어울림 직하다고 여겼다. 이는 '나'가 남아 선호 사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네 번째 딸을 낳은 후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를 동정하였고, '나' 역시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것은, 남아 선호 의식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음을 보여 준다.

01 ① 02 ④ 03 ④ 04 ①

[최고운전 - 적자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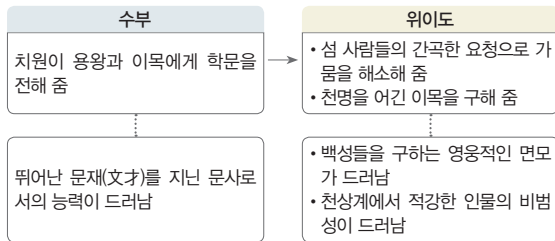
해제 이 작품은 실존 인물인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전형적인 영웅 소설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문제에 능한 문인이었던 최치원의 생애를 허구적으로 재구성하여 우리 민족의 뛰어난 문제를 과시하고자 하였다.

주제 최치원의 비범한 능력과 문재(文才)

특징 • 도교적 요소, 설화적 요소가 섞여 나타남

•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최충이 문장 수령으로 부임했을 때 금돼지에게 불려져 갔다 돌아 온 부인이 최치원을 낳았다. 최치원은 금돼지의 자식이라 하여 외딴 섬에 버려지지만 선녀가 내려와 그를 기른다.

12세가 되었을 때 중국 황제가 최치원이 시를 읊는 소리를 듣고 재사 두 명을 보내지만 치원에게 패배하고 돌아가고, 화가 난 황제는 돌이 든 함을 신라에 보내 함에 든 물건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신라를 섬멸하겠다고 위협한다. 이에 최치원이 시를 지어 황제가 보낸 함 속의 물건을 알아맞히고 이 공으로 나 승상의 사위가 된다.

중국 황제는 최치원의 재능에 위협을 느껴 그를 죽이려고 중국으로 부르고, 치원은 중국으로 가는 도중 용궁에서 환대를 받고 위이도의 사람들을 돕는다. 이후 낙양에 도착한 치원은 비범한 능력으로 황제의 간계에서 벗어난다.

이때 황소의 난이 일어나고 치원은 이를 평정한다. 이후 치원은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가야산으로 들어가 신선이 된다.

01 서술상의 특징

치원은 비현실적 세계인 수부에서 용왕의 대접을 받고 학문을 전해 준 후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 위이도에 이르러 섬 사람들의 고난을 해소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비현실적 세계(천계)에서 현실 세계(인간계)로 공간적 배경의 이동이 나타나 있으며 이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비현실적 세계인 수부에서 현실 세계인 위이도로 공간이 이동되고 있으나 빈번한 공간 전환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③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나, 미래를 암시하는 독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글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외부에서 인물의 행동, 심리를 서술하고 있으나 제시된 지문에는 사건에 개입하여 논평을 하거나 사건을 요약하여 서술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치원은 극심한 가뭄을 해결해 달라는 위이도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섬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이목에게 비를 내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하지만 위이도 사람들이 가뭄을 겪게 된 이유는 후에 천승의 말을 통해 알게 되었다.

오답 풀이 ① 치원은 천승의 말을 통해 이목이 천제의 명을 어기고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비를 내렸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이목에게 비를 청하였으니 이목은 잘못이 없다며 그를 감싸고 있다.

② 용왕은 수부를 떠나는 치원에게 이목을 데려가라고 하며 이목의 능력이 출중하여 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③ 천제는 위이도 사람들이 불효하고, 우애가 없으며, 탐욕스럽고, 악자를 업신여긴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 위이도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⑤ 천승이 이목을 벌하기 위해 내려왔을 때 이목이 자신의 죄를 알고 교룡으로 변하여 숨었다는 데서 이목이 천명을 거스르는 것임을 알면서도 비를 내리게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목이 교룡으로 변한 것은 자신이 천명을 어긴 것을 알고 천승에게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지 치원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치원이 수부에 오자 크게 기뻐하며 주연(酒宴)을 베풀고 치원에게 학문을 청하는 용왕의 모습으로 볼 때 용왕이 치원을 뛰어난 문사(文士)로 대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살펴 줄 것을 간곡하게 청하는 위이도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하고 이목에게 청을 넣어 그들을 구제하고자 한 치원의 모습을 통해 치원의 영웅적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③ 위이도 사람들이 치원의 글에 신통력이 있음을 믿어 치원이 글로써 비를 기원해 주기를 바란 것을 통해 치원의 학문적 성취가 뛰어나다는 것과 치원이 쓴 글이 비범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⑤ 천승은 치원이 천상에 죄를 지어 인간 세계로 귀양을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치원이 이목을 벌하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청하자 이목을 벌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치원의 비범한 능력이 천상계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4 속담 및 한자 성어

[A]에서 천승은 치원에게 위이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뭄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공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으로 상과 벌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하는 일을 이르는 말인 '신상필벌'이 [A]의 상황과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하석상대(下石上臺)'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꺾는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춤을 이르는 말이다.

③ '구밀복검(口蜜腹劍)'은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질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A]에 위이도 사람들의 잘못된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은 드러나지 있지 않다.

④ '타산지석(他山之石)'은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개과천선(改過遷善)'은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A]에 위이도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는다.

01 ② 02 ② 03 ④ 04 ③

[정을선전 - 작자 미상]

해제 ‘유소저전’이라고도 불리는 국문 소설로 정을선과 유추년의 파란만장한 애정을 그리고 있는 가정 소설이다. 전반부는 계모의 학대로 인한 유 소저의 비극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후반부는 남편을 사이에 둔 처첩 간의 갈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제시된 부분은 계모인 노 씨가 전혀 소생인 유추년을 죽이려고 계교를 부리다가 실패하자 유 소저에게 누명을 씌워 정을선과의 혼인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장면이다.

주제 계모의 학대와 처첩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이루어진 추년과 을선의 사랑

특징 전반부에서는 계모형 소설의 성격이, 후반부에서는 쟁송형 소설의 성격이 드러남

한눈에 보기

노 씨의 1차 계교	음식에 독을 타 유 소저를 죽이려 함	→	우연히 알게 된 이후 유 모가 따로 밥을 해 줌	계교 실패
노 씨의 2차 계교	노태를 간부로 위장시켜 신방에 보냄	→	정을선이 오해하여 유 소저의 집을 떠남	계교 성공

◆ 장면 IN 줄거리

용모와 재능이 뛰어난 을선은 아버지를 따라 유한경의 회갑 잔치에 갔다가 그네를 뒤흔던 추년을 보고 한눈에 반해 추년과 혼약을 맺는다. 을선은 장원 급제하고 추년과 혼인하지만 추년이 을선과 혼인하게 된 것을 시기한 계모 노 씨가 계교를 부려 혼인을 방해하고 을선은 추년을 오해하여 추년의 집을 떠난다.

이 일로 추년이 자살하고 원귀가 되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된다. 조왕의 딸 정렬 부인과 결혼한 을선은 여사가 되어 마을을 구하러 왔다가 추년의 유모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이를 왕에게 알린다. 이후 추년은 을선이 구해 온 선약을 먹고 되살아나 총렬 부인으로 봉해진다.

왕비가 총렬 부인을 사랑하여 원비로 정하자 정렬 부인은 이를 시기한다. 총렬 부인이 아기까지 갖게 되자 정렬 부인은 총렬 부인이 다른 남자와 통정한 것처럼 모함하여 옥에 갇히게 한다. 이때 총렬 부인이 옥에서 자살하려고 하나 시비 금섬의 만류로 마음을 접고 혈서를 쓰고, 금섬은 이 편지를 자신의 오라비를 시켜 을선에게 전한다.

금섬은 다른 시비 월매와 함께 총렬 부인을 탈옥시키고, 자신이 총렬 부인인 것처럼 꾸미고 자살한다. 금섬의 시체가 총렬 부인이 아닌 것을 알게 된 정렬 부인은 월매를 잡아다 고문하고, 그동안 지함 속에 숨어 있던 총렬 부인은 사내아이를 낳는다.

금섬의 오라비에게서 편지를 받은 을선이 돌아와 총렬 부인과 아들을 구해 내고, 정렬 부인은 결국 사약을 받아 죽게 된다. 이후 총렬 부인의 부탁으로 월매를 첩으로 삼고 세 사람은 행복하게 산다. 말년에 병을 얻은 을선과 총렬 부인은 자식들을 불러 화목하게 살 것을 당부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는 동시에 죽는다.

01 인물의 심리 및 태도

황상이 을선에게 조왕의 딸과의 혼사를 거절한 이유를 묻자 을선은 조왕과의 신분 차이가 크고, 이미 유한경의 딸과 혼인하기로 한 사이임을 들어 조왕의 딸과 혼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황상은 을선을 자신의 사위가 아니라 자신이 아끼는 조카인 조왕의 사위로 삼고자 하였다.

③ 혼인한 날 밤, 정 승상은 아들의 말만 듣고 유 승상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도 않은 채 황급히 집을 떠나고 있다.

④ 조왕은 자신의 딸과 을선을 혼인시키려는 계획이 허사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황상의 명이라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수용하고 있다.

⑤ 노 씨는 자신이 꾸민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며 유 승상에게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다.

02 서술상의 특징

[A]는 정을선이 조왕의 딸과 혼인하지 못하는 이유를 황상에게 설명하는 장면으로 인물의 현재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만 과거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혼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차하(次下)를 볼지어다.’와 같이 서술자가 개입하여 혼인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B]에서는 누명을 쓰게 된 유 소저를 ‘가련하다’, ‘백옥 같은 몸에 누명을 실으니 억울한 죄로 인한 고통을 누구에게 말하리오?’라고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인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③ [B]에서는 노 씨와 노태의 계략과 유 소저가 누명을 쓰게 된 이유 등 사건의 전말을 요약하여 알려 주고 있다.

④ [B]에서는 유 소저의 독백을 통해 자신이 죽게 되면 결백함을 알아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유 소저가 혈서를 쓰는 이유를 보여 주고 있다.

⑤ [A]에서는 황상과 을선의 대화를 통해 조왕의 딸과 을선의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 주고 있고, [B]에서는 노 씨와 노태의 계략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유 소저가 누명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보기〉에서는 기존의 가족들이 가장에게 가문을 지켜 나가기를 요구했다고 나와 있으나, 이 글에 나타난 유 소저는 계모인 노 씨에게 억울하게 당하고도 이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 승상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라 유 소저의 타고난 성품 탓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노 씨가 음식에 독약을 타 유 소저를 죽이려고 한 것을 통해 노씨와 유 소저가 갈등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노 씨는 독약을 써서 유 소저를 죽이려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유 소저의 혼인을 망치는 등 계속해서 유 소저를 모함한다. 〈보기〉를 통해 이와 같은 노 씨의 행동이 유 씨 집안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유 소저는 혼인한 날 밤 신랑 을선이 집을 떠나 버림으로써 파혼을 당하게 된다. 이는 충격적인 사건 전개라고 볼 수 있다.

⑤ 노 씨는 계속해서 유 소저를 괴롭히는 악인으로 그려지고 있고, 유 소저는 전형적인 절세佳人형의 선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보기〉에서 이러한 인물 설정은 사대부 계층의 여성이 가정 소설의 주 독자층이었기에 이들의 흥미를 끌었음을 알 수 있다.

04 인물의 심리 및 태도

노 씨가 독약으로 유 소저를 죽이려던 것은 노태가 개입하기 전의 일로, 노 씨는 독약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자 노태를 꼬여 을선과 유 소저의 파혼을 도모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⑤ 을선은 노태를 유 소저와 서로 사랑하는 남자로 오인하고 혼인한 날 밤 유 소저의 집을 떠났다.

②, ④ 노태는 노 씨가 주는 금을 욕심내어 유 소저의 혼인을 방해하는 계략에 동참하였다.

01 ④ 02 ② 03 ④ 04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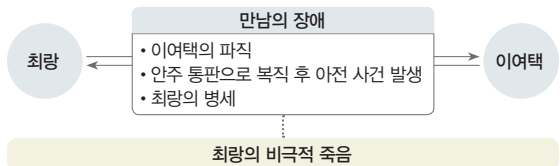
[최랑전 _ 작자 미상]

해제 이 글은 천민 출신인 최랑과 사대부 출신인 이여택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애정 소설이다. 짧은 사랑을 나누고 헤어진 최랑과 이여택은 온갖 고난 끝에 다시 만나게 되지만, 최랑의 죽음으로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 천신만고 끝에 만남 후에 급격히 불행이 닥치는 전개 과정을 통해 최랑이라는 여인의 비극적 수명을 보여 준다. 또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제도에 의해 고난을 겪게 되는 여주인공의 가련한 처지를 통해 신분 제도 극복에 대한 바람도 엿볼 수 있다.

주제 최랑과 이여택의 비극적인 사랑

특징 •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대부분의 고전 소설과 달리 주인공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보여 줌
• 신분 제도 극복에 대한 바람이 드러남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노비 출신인 최랑은 재색을 겸하였으므로 몇몇 마을 유지들이 첩으로 삼고자 했지만 최랑의 어머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랑은 할머니가 관비였다는 이유로 관비가 될 위기에 처한다. 이러한 최랑을 이웃 고을의 태수였던 이여택이 구해 주고, 두 사람은 이런 인연으로 혼인하게 된다.

뜻밖의 일로 이여택은 파직을 당하고, 1년을 기한으로 하여 서울로 올라가면서 최랑과 이별한다. 2년이 지나서야 안주 통판으로 복직된 이여택은 최랑을 서울로 부른다.

최랑은 집을 떠나 열이틀 만에 서울에 도착하지만, 도임할 날짜가 급박한 이여택은 이미 안주로 떠났고, 최랑도 이에 다시 안주까지 간다. 두 사람은 힘들게 재회하지만 이여택이 벌을 주다가 죽게 했던 아전의 족속들이 관청에 덮쳐들어 이여택은 허둥지둥 서울로 도망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최랑과 이여택은 다시 헤어진다.

최랑은 온갖 고난 끝에 겨우 서울로 가서 이여택과 상봉하게 되나, 그동안의 고생으로 인해 병을 얻고 이여택의 품에서 숨을 거둔다. 최랑의 죽음을 알게 된 최랑의 어머니는 몹시 슬퍼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아전의 무리들이 들이닥쳐서 서울에 올라와야 했던 통판의 상황, 그로 인해 다시 길을 떠나야 하는 최랑의 상황, 최랑의 죽음 후 슬퍼하는 최랑의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각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각설’은 고전 소설에서 사용하는 관습적인 표현으로,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를 꺼낼 때, 앞서 이야기하던 내용을 그만둔다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최랑의 여정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역순행적 구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글은 주로 사실적인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요소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이 글에 나오는 최랑, 통판, 최랑의 어머니 등은 모두 평범한 인간들이며, 초월적 능력을 지닌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⑤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는 나타나지 않으며, 주인공이 겪는 고난과 안타까운 엇갈림을 통해 작품의 비극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최랑과 통판은 짧은 만남 뒤에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통판이 복직되거나 아전들의 난리가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통판이 공직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최랑과 헤어진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최랑의 어머니는 딸이 죽은 것을 알고 “나으리를 어찌 원망하리오?”라고 하면서 통판을 원망하기보다는 딸을 멀리까지 시집보낸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③ 서글퍼하는 기색 없이 떠나는 모습만으로 사람들은 최랑이 박정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랑은 오 리쯤 가서 통곡하며 어머니와의 이별을 슬퍼하고 있다.

④ 조정에서는 통판에게 “다시 임지에 가서 간사한 무리들을 썩 쓸어내야 한다.”라고 하며, 통판에게 안주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⑤ 통판이 아전의 족속들을 피하여 서울로 갔기에, 혼자 남겨진 최랑은 다시 길을 떠나게 된다. 이때 최랑은 목 놓아 통곡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03 사건의 전개 양상

이 글은 최랑이라는 여인이 사랑하는 이(통판)를 만나기 위해 겪는 기나긴 여정을 그리고 있다. 최랑은 힘든 여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는 하지만 통판을 원망하지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최랑은 오직 통판을 만나기 위해 집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안주로(㉡), 안주에서 다시 서울로(㉢) 향하는 험한 여정을 감수하고 있다.

② 최랑은 처음에 서울에 가면 통판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통판이 먼저 안주로 길을 떠나는 바람에 서울에서 다시 안주로 향해야 했고(㉤), 통판이 서울로 피신을 가는 바람에 다시 서울로 향해야 했다(㉢). 이처럼 예정에 없던 여정인 ㉤과 ㉢로 인해 최랑의 여정이 험난해지고 있다.

③ 최랑은 ㉤를 거쳐 안주에서 통판을 만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곧 헤어지게 되고, 다시 ㉢를 거쳐 서울에 와서 통판을 만나지만 이때는 이미 최랑의 병세가 위중해진 상태였다.

⑤ 최랑은 ㉠~㉢를 거치는 여정 끝에 결국 죽게 되고, ㉤의 여정을 거쳐 하인이 어머니에게 혼백만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04 속담 및 한자 성어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최랑의 어머니가 딸을 떠나보낸 뒤로 울기만 하며 딸을 기다리는 것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는 다르기 때문에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풍찬노숙(風餐露宿)’은 바람을 먹고 이슬에 잠잔다는 뜻으로, 객지에서 많은 고생을 겪음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최랑이 객지에서 겪는 고생스러운 상황에 적절한 한자 성어이다.

② ‘화용월태(花容月態)’는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맴시를 이르는 말이다.

③ ‘전전궁궁(戰戰兢兢)’은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한다는 의미로, 통판은 위험한 안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고 있다.

④ ‘구사일생(九死一生)’은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최랑이 간신히 신변의 위험을 면한 상황에 적절하다.

01 ④ 02 ④ 03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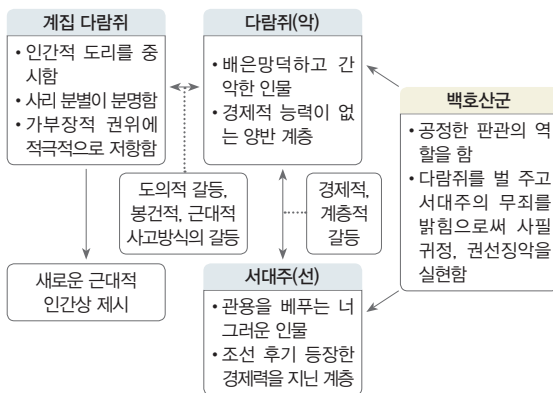
[서동지전 - 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쥐와 다람쥐 간의 송사 사건을 제재로 하여 동물을 의인화한 우화 소설이다. 송사 사건을 통해 배은망덕한 다람쥐 같은 인간을 풍자하는 동시에,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 의식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선악형 인물의 대립을 통해 권선징악, 사필귀정이라는 주제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나, 그 이면에는 봉건적인 정치, 경제 체제 및 윤리를 거부하고 새로운 근대적 인간상을 추구하는 주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가부장적 권위와 배은망덕한 행위의 비판

특징 • 동물을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나타냄
• 송사(訟事)를 모티프로 사건이 전개됨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중국 응주땅 구궁산 토굴 속에 사는 서대주는 당태종이 금용성을 치려고 할 때, 종족을 거느리고 금용성 창고에 가 적이 양식으로 쌓아 둔 쌀을 없애 버리는 큰 공을 세운다. 이 일로 서대주는 황제로부터 벼슬을 받고 잔치를 열어 여러 쥐들을 초대하게 된다.

이때 하도산에 사는, 성품이 간악한 다람쥐가 서대주의 잔치에 찾아가 서대주에게 자기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여 식량을 얻어 간다. 겨울이 돌아오니 다람쥐 부부는 다시 굶는 신세가 되고 다람쥐는 다시 서대주에게 가서 구걸하나, 서대주는 종족의 형편을 들어 이를 거절한다.

자신의 청을 거절한 서대주에게 원한을 품은 다람쥐를 보고 계집 다람쥐는 남편에게 소송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다가 도리어 모욕을 당하고 분한 나머지 집을 나간다. 결국 다람쥐는 곤륜산의 백호산군에게 거짓으로 소장을 올린다.

백호산군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서대주를 잡아들이지만 다람쥐가 허위로 서대주를 고발하였음을 알게 된다. 이에 백호산군은 다람쥐를 유배 보내고 서대주를 석방한다.

서대주는 다람쥐를 불쌍히 여겨 풀어 줄 것을 간청하고 백호산군은 서대주의 후덕한 마음에 감동하여 다람쥐를 풀어 준다. 이에 다람쥐는 자신의 배은망덕한 처사를 뉘우치고 서대주에게 사과하고, 서대주는 다람쥐를 불쌍하게 여겨 황금을 주어 돌려보낸다.

01 서술상의 특징

다람쥐와 계집 다람쥐의 대화를 통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다람쥐의 성격과 사리 분별이 분명한 계집 다람쥐의 성격이 드러나고, 다람쥐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두 인물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호흡이 긴 문장을 사용하여 인물들의 말을 장황하게 이어 나가고 있다.

②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지만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논평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사건이나 상황의 정도를 과장되게 묘사하여 희화화하거나 해학성을 유발하는 표현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⑤ “소장지변은 유아이사라. 도시 서대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라. 내 당당히 서대주를 설욕하고 말리라.”라는 다람쥐의 독백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서대주에 대한 다람쥐의 적대감이 드러날 뿐 다람쥐의 의식 변화를 나타내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계집 다람쥐는 다람쥐의 가부장적 권위에 항거하는 근대적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계집 다람쥐는 다람쥐의 배은망덕한 태도와 봉건적·권위주의적 태도를 비판하여 당대 현실의 모순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람쥐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다람쥐는 식량을 주어 자신을 도와준 서대주에게 양심을 품고 송사를 벌이고 있으므로 배은망덕하고 간악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다람쥐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냄으로써 다람쥐를 비판과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다람쥐는 자신을 질책하는 계집 다람쥐를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워 꾸짖는 인물로, 봉건적인 사고방식과 가부장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구시대적 인물이다.

③ 계집 다람쥐는 가부장적 권위 의식에 항거하는 인물로, 이를 통해 부당부수, 여필종부라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근대적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서대주는 자신을 모함한 다람쥐를 용서하고 백호산군에게 다람쥐를 풀어 줄 것을 간청하는 인물로, 선을 실현하고 관용을 베푸는 후덕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백호산군은 다람쥐가 제기한 소송과 서대주의 소지를 살펴본 후, 서대주의 말이 옳다고 판단하고 다람쥐에게 엄벌을 내린다. 즉 백호산군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므로 횡포를 부려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송사 소설로, ‘갈등의 발생 - 전개 - 해결’이 ‘송사 사건의 발생 - 과정 - 판결’과 대응되는 구조를 갖는다. 즉 이 작품에서 송사는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내면서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② 이 작품에 제시된 송사의 과정은 사실적, 구체적으로 진행되며, 다른 고전 소설과 달리 우연적인 사건이 나타나지 않고 그럴듯한 이유와 원인에 의해 사건이 전개된다.

③ <보기>를 통해 다람쥐는 조선 후기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계층을 표상하고, 서대주는 새롭게 부상한 경제적 부를 가진 신흥 상인 계층을 표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작품에서 서대주가 양식을 주지 않는다고 다람쥐가 양심을 품고 소송을 일으킨 것은 이러한 두 계층 사이의 빈부 격차로 인한 갈등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송사 소설의 결말에 해당하는 송사에 대한 판결에서는 작품의 주제 의식이 뚜렷이 부각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다람쥐의 송사가 거짓임이 밝혀지고 서대주가 석방되는 판결을 통해 사필귀정, 권선징악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01 ④ 02 ③ 03 ③ 04 ②

[박타령 - 작자 미상]

해제 조선 후기에 신재효가 정리한 판소리 여섯 마당 가운데 하나로, ‘홍보가’라고도 불린다. 가난하지만 착한 홍보와 부유하지만 심술궂은 놀보를 주인공으로 하여 권선징악과 형제간의 우애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서민적 정서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또한 작품 전반에 걸쳐 해학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주제 ①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勸善懲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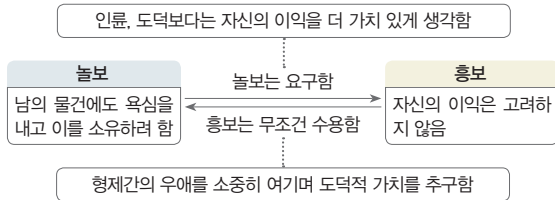
② 몰락한 양반과 신흥 부농, 빈농과 부농 간의 갈등

특징 • 3·4(4·4)조의 운문과 산문이 혼합됨

• 동일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리듬감을 드러냄

• 의성어, 의태어의 사용, 확장적 문체, 요약적 진술이 나타나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심술궂은 형 놀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착한 아우 홍보를 내쫓는다.

재산 한푼 없이 집에서 쫓겨난 홍보는 아내와 여러 자식들과 함께 가난한 생활을 한다. 그러던 어느 해 봄, 홍보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발견하여 치료해 주고, 이듬해 봄에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준다.

홍보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에서 낳은 금은보화를 얻어 부자가 되고 놀보는 홍보를 찾아와 재물을 빼앗아 간다.

홍보로부터 부자가 된 사연을 들은 놀보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뒤 치료하여 제비를 날려 보낸다. 이듬해 봄에 제비가 박씨를 물어 오고, 놀보가 박을 타자 그 속에는 뽕쌀 것들이 나와 놀보는 망하게 된다.

놀보의 소식을 들은 홍보는 놀보와 재물을 나누어 가지고, 이에 놀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

01 서술상의 특징

놀보가 홍보에게서 화초장을 얻어 돌아가는 모습에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홍보 부인의 말을 볼 때 놀보는 예나 지금이나 욕심 많고 심술궂은 성격임을 알 수 있으므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성격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하루는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 은금보화가 많이 나왔지”와 같이 제비가 은혜 갚은 이야기를 홍보가 요약하여 놀보에게 들려주고 있다.

② ‘동산 앞 넓은 터에 ~ 큰 병풍 작은 병풍 셋별 같은 순금대와 다문담속 놓였으니’처럼 집의 구조와 모습, 살림살이 등을 열거하여 장면을 확장하였다.

③ ‘시리령 시리령 시리령 시리령’, ‘수근수근’, ‘구역구역’ 등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④ “조장 초장 아니다 ~ 송장 구들장 아니다.”는 ‘장’으로 끝나는 말을 열거하며 음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언어유희를 통해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놀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날 보고만 도적놈이라고 헐 것이다.”라고 하며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의 평판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비난함으로써 화초장을 바로 가져가기 위해 한 말이다.

오답 풀이 ① 홍보는 집을 바꾸자는 말이나 아내를 버리라는 말, 화초장을 달라는 놀보의 말에 “형님 처분대로 허옵시오.”라며 놀부의 말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② 홍보는 부자가 되자 형 놀보를 모셔오라 하고, 화초장을 흔쾌히 놀부에게 주는 등 놀보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다.

④ 홍보 부인은 “나도 이제는 돈과 쌀이 많이 있고, 전곡 자세는 그만 허오. 엄동설한 추운 날에 자식들을 앞세우고 구박을 당하여 나오던 일을 죽어도 못 잊겠소.”라고 어려웠던 과거를 떠올리며 놀보를 원망하고 있다.

⑤ 놀보는 홍보가 재물을 훔친 것이라며 포졸들이 잡으러 다닌다는 거짓말을 하고, 재물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하였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A]와 <보기>에서 욕심 많고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놀보와 순박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소중히 여기는 홍보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쌀궂과 돈궂 둘 다 어찌 드리겠소, 하나씩 나눕시다.”라며 자신의 이익도 생각하는 홍보의 모습이 그려짐으로써 [A]보다 홍보와 놀보의 성격 대비가 약화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제시된 ‘화한단’은 불이 붙으면 더 색이 고와지는 비단으로 신비한 보물이다. 이러한 비현실적 소재를 등장시켜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다.

② 쌀궂과 돈궂 둘 다 달라는 놀보의 말에 홍보는 “부자 된 밀천이니, 쌀궂과 돈궂 둘 다 어찌 드리겠소, 하나씩 나눕시다. 어떤 것을 가지시려우?”라고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④ [A]에서는 놀보가 화초장을 가지고 만족하며 돌아오는 데 반해, <보기>에서는 화한단과 돈궂을 가져 가면서도 홍보에게 기별을 하는대로 물건을 보내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놀보의 뻔뻔함을 강조하고 있다.

⑤ 쌀궂과 돈궂 중 돈궂을 달라고 하는 놀보를 통해 당대 사회가 이미 자본주의적 상업 경제가 발달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04 속담 및 한자 성어

‘괄목상대(刮目相對)’는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늙을’을 이르는 말이다. 홍보가 부자가 된 것이 놀라운 변화이기는 하지만, 재주나 학식이 아니라 물질적 부이기 때문에 ‘괄목상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고대광실(高臺廣室)’은 ‘매우 크고 좋은 집’을 의미한다. 홍보 집에 대한 묘사를 통해 홍보의 집이 크고 좋은 집임을 알 수 있다.

③ ‘낭중취물(囊中取物)’은 주머니 속에서 물건을 꺼내듯이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놀보는 아주 쉽게 화초장을 얻어 가고 있다.

④ ‘후안무치(厚顔無恥)’는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놀보는 홍보의 재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뻔뻔하게 달라고 하고 있다.

⑤ ‘고진감래(苦盡甘來)’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움’을 이르는 말이다. 홍보 아내의 말을 통해 홍보네 가족들이 추운 겨울날 놀보네에서 쫓겨나와 고생을 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부자가 된 현재와 비교하면 적절한 말이다.

01 ④ 02 ④ 03 ② 04 ②

[자전거 _ 오태석]

해제 이 글은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윤 서기가 잃어버린 기억을 회복하기 위해 42일 전의 밤으로 돌아가 과거의 사건을 다시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공동체의 비극적 운명을 다루고 있는 희곡이다. 이 희곡은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혼재하여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비극적 운명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주제 공동체 내부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인식

특징 •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이 혼재됨
• 충청도 방언을 활용하여 현장감을 살림

한눈에 보기

등기소 방화 사건

- 6·25 전쟁 당시 반동분자로 몰려 100명이 넘는 동네 어른들이 등기소 건물에 갇혀 불타 죽음
- 윤 서기가 쓰러진 날은 그때 죽은 동네 어른들의 제삿날이었음

술매집 방화 사건

- 술매 부부(문동이 부부)가 아이들을 거위집으로 입적시킴
- 거위집의 첫째, 둘째 딸은 자신이 문동이의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첫째 딸은 술매집에 불을 지름

극복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비극이라는 점에서 문동이 일가의 아픔과 6·25 전쟁 때 민간인 학살의 비극은 연결됨

◆ 장면 IN 줄거리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윤 서기는 어느 날 귀가하던 길에 이상한 경험을 하고 몸져눅는다. 윤 서기가 쓰러진 그날은 6·25 전쟁 때 공산군에 의해 등기소 건물에서 불타 죽은 동네 어른들의 제삿날이었다. 42일 만에 출근한 윤 서기는 구 서기와 함께 그날의 기억을 찾기 시작한다.

42일 전 그날 윤 서기는 거위집 한 씨의 둘째 딸이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째 딸에게 자초지종을 묻는다. 첫째 딸은 둘째 딸이 문동병자인 앞집 술매 부부(술매집)서 데려온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가출을 한 것이라고 말한다.

윤 서기는 뒷간에 빠졌던 항 씨를 만난다. 윤 서기는 집을 나가 묘판에 숨어 있던 한 씨의 둘째 딸을 만났지만 놓치게 된다.

첫째 딸은 자신도 문동이의 자식이라 여기고 자신들의 비극의 원천을 없애기 위해 술매집에 불을 지른다. 첫째 딸은 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술매집 아낙을 애타게 부르며 통곡한다. 술매집 아낙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한 씨의 첫째 딸은 사실 술매집 아낙의 딸이었음이 밝혀진다.

윤 서기의 기억을 다 들은 후 구 서기는 윤 서기의 결근계를 다시 작성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충청도 시골 마을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현장감과 인물의 사실성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처녀라는 인물이 자신이 문동이의 자식이 아닐까 하고 고민하는 내적 갈등이 드러나긴 하지만, 사건이 진행될수록 등장인물의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이 글은 상징적 사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윤 서기가 결근한 이유를 구 서기에게 말하며 과거의 사건으로 들어가는 구성을 취함으로써 현재에서 과거로 사건의 흐름을 역전시키고 있다. '문동병'은 비극적 운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이 글은 인물 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물의 내면 의식을 드러낸 독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장면마다 윤 서기와 대화를 나누는 인물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사건을 전달하는 인물은 윤 서기이므로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윤 서기가 “꺼매라우, 오석인가 보네, 그럼, 대리석으로 말을 해쌍드만.”이라고 말한 것은 단지 대리석으로 만들 줄 알았던 추모비가 오석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것일 뿐, 추모비가 세워지는 것 자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윤 서기의 대사 “나 보고 절하는 것이 이 사람 일과여.” 등을 통해 윤 서기가 개간 허가 내는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해 한 씨가 고마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한 씨의 둘째 딸이 막내 동생이 앞집 문동이네에서 입적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앞집에서 왔냐고 묻고 앞집을 보기만 해도 무서워하며 자기가 문동이가 아닐까 얼굴을 만져 보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둘째 딸은 자신도 앞집 문동이네에서 입적되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윤 서기와 임 선생이 만난 때는 6·25 전쟁 때 반동분자로 몰려 공산군에 의해 등기소 건물에서 불태워져 죽은 동네 어른들의 제삿날로, 임 선생의 대사 “큰집이 제사라.”를 통해 그의 친척 중에도 등기소 화재 사건 때 희생 당한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당숙 되는 어른이 아버지의 제삿날에 내려와 ‘형님 같이 못 꼬집어내고 혼자 살아 나왔다고, 면목 없다고, 제삿날이면 내려와서 사랑방 차지하고 사금파리로 얼굴을 긋’는다는 윤 서기의 대사를 통해 당숙 되는 어른의 자책감을 짐작할 수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구 서기는 윤 서기가 ㉔에서 어떤 경험을 하여 42일 간 결근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㉔의 회상 공간으로 윤 서기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윤 서기가 ㉔에서 고통을 겪은 일은 드러나지 않으며 그 고통을 ㉔에서 치유하려는 모습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현재 윤 서기와 구 서기는 면사무소, 즉 ㉔에 있지만, 42일 전의 일을 밝히기 위해 과거의 공간인 ㉔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

③ 현재의 윤 서기와 대화하던 구 서기는 윤 서기에 이끌려 과거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사건을 바라보는 관찰자에 머물 뿐 과거의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④ 윤 서기는 ㉔에서 과거 자신이 만난 인물인 임 선생, 한 씨 등과 대화를 나누는 동시에 현재 자신이 만나는 인물인 구 서기와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

⑤ “큰애하고 하는 소리는 넘한테 건네지 마세.”에서 윤 서기가 경험한 과거의 사건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04 작품 변용과 형상화

윤 서기가 한 씨를 “사람은 생불이구만.”이라 평가하는 것, 윤 서기가 개간 허가를 받을 때 도와준 일을 한 씨가 과분하게 감사해한다고 여기는 것 등을 통해 윤 서기는 한 씨를 뒤흔뒤흔이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윤 서기가 한 씨에 대해 말하는 ㉔에서 못마땅하고 귀찮아하는 말투와 표정으로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㉔은 공산군에 의해 등기소 건물에서 100명이 넘는 동네 어른들이 불타 죽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도 죽

었으므로, ㉠에서 윤 서기가 억울하고 분노하는 어조와 흥분한 몸짓으로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 ㉠은 한 씨가 열네 살밖에 안 된 둘째 딸이 가출한 것에 대해 말하는 부분으로, 착잡하면서도 근심 어린 표정으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은 처녀가 자신이 동생을 내보냈음을 말하는 부분으로, 이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당하다고 확신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담담한 어조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다.

㉥ ㉠은 둘째가 문동이 집을 보면서 공포에 떨고 자다가도 문동이 아닐까 하여 얼굴을 만지며 처녀를 노려보는 것에 대한 무서움, 또는 자신도 문동이 집의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무서움이 느껴져야 한다. 따라서 공포감으로 인해 떨리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다.

실전 12

시나리오

본문 159~1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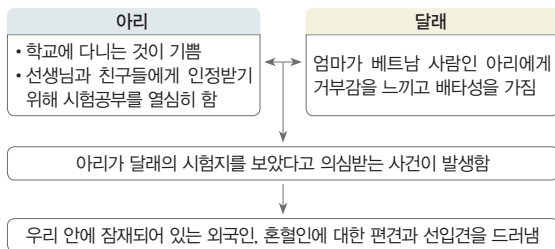
01 ④ 02 ② 03 ②

[마주 보며 웃어 _ 연미정, 이해정]

해제 이 글은 드라마 대본으로 돈을 벌기 위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살던 후엔이 자신의 딸 아리와 함께 한국 사람인 창권과 그의 딸 윤서와 다문화 가정을 꾸리면서 겪는 일화를 다루고 있다. 해당 지문은 아리가 시험을 대비해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까지 아리가 친구의 시험지를 보았다고 의심하는 에피소드를 그려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인 후엔과 혼혈아인 아리가 느끼는 소외감과 갈등을 잘 보여 준다.

주제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소외와 갈등

특징 다문화 가정의 증가라는 현재의 사회 상황을 반영한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 들떠 있는 아리를 보며 후엔은 흐뭇한 마음으로 아리의 가방과 학용품들을 준비한다. 학교에서 처음 시험을 보게 된 아리는 선생님과 반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아리의 점수가 높게 나오자 달래와 미란(담임 선생님)은 아리가 달래의 시험지를 보았다고 의심한다. 아리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확신한 미란은 아리를 다그치지만 아리는 강하게 항변한다.

창권의 이모, 아리의 삼촌, 윤서도 아리가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보았다고 의심하고 후엔까지도 의심하지만, 후엔은 울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리의 결백함을 믿는다.

아리는 자신의 참고서, 문제지, 학습지, 교과서를 집에서 모두 가져와 미란의 책상에 쏟아 놓고, 미란은 아리가 열심히 공부한 흔적을 발견한다.

미란은 아리가 남의 시험지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리를 완전히 믿지는 않는다. 후엔은 반 아이들이 아리의 신발을 숨기고 놀리는 것을 발견하고 슬퍼한다.

01 인물의 심리 및 태도

S# 11에서 아람은 아리와 반갑게 인사하며 대화하고 있으나, 이를 본 달래가 거부감을 드러내자 눈치를 보며 결국 달래를 따라 아리를 외면하고 가게 된다. 아리는 달래와 아람의 태도에 의아해하고 있으므로 달래와 아리 사이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아람이 달래와 아리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달래는 시험을 보기 전, S# 11의 학교 운동장에서부터 아리에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S# 13의 복도에서 아이들은 수군거리다가 아리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있는데, 앞뒤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아리가 달래의 시험지를 봤다고 생각하여 냉정하게 대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③ 아리가 달래의 시험지를 봤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솔직하게 말하기를 바라는 미란에게, 아리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⑤ 미란은 심각한 얼굴로 아리와 달래의 시험지를 비교해 보며, 답을 지운 자리의 흔적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된다. 이에 미란은 아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확신하며 아리를 추궁한다.

02 작품 변용과 형상화

<보기>에서 한 시퀀스를 이루는 장면들의 시간과 장소는 대체로 연속적이거나 상호 관련되어 있어서 배경의 통일성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S# 10의 시간은 밤이고 장소는 아리의 집이며, S# 11과 S# 12의 시간은 오전이고 장소는 학교이므로 시간의 연속성은 드러나지만 동일한 시간을 배경으로 삼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S# 10~S# 14는 아리의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에피소드가 시작되고 끝나는 구성단위이자 몇 개의 장면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퀀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③ S# 11~S# 14는 학교 운동장, 교실, 복도라는 서로 관련이 있는 장소를 배경으로 삼고 있으므로 <보기>에서 제시한 대로 장소의 상호 관련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④ S# 10에서 아리는 졸음을 참아 가며 열심히 공부하였기 때문에 S# 14에서 억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보기>의 설명처럼 한 시퀀스 안에서 한 장면이 다른 장면의 이유로 작용하며 인과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장면은 대체로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므로, 학교 운동장에서 교실로 장소가 이동하며 장면을 구분한 것을 볼 수 있다.

03 인물의 심리 및 태도

[A]에서 미란은 아리가 달래의 시험지를 보고 답안을 작성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미란은 자신도 어릴 때 답을 보고 쓴 적이 있었다는 과거의 경험을 들어, 실수는 처음에 했을 때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며 아리가 잘못을 시인하도록 회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미란이 아리와 서로 양보하여 타협하거나 서로의 의견을 잘 어울리게 한 절충안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③ “아까 선생님도 봤어.”에서 자신이 관찰한 바를 제시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리가 모르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④ 미란이 아리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유발하며 설득하고 있지는 않다.

⑤ 미란이 아리를 의심하는 이유는 나름의 논리적 이유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미란이 해박한 지식을 내세우지는 않는다.

- 01 ③ 02 ⑤ 03 ⑤ 04 ② 05 ③ 06 ⑤
07 ④ 08 ③ 09 ⑤ 10 ②

[01~04]

[탈향 _ 이호철]

해제 이 작품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월남하여 궁핍한 피란살이를 하던 고향 친구들이 고향에서 벗어나 탈향에 정착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전후 실향민의 황폐화된 삶과 그 속에서의 다양한 대응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소설의 제목인 '탈향'은 살아가기 위해 고향이라는 과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개인으로서는 현실과 마주하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각성을 의미한다.

주제 실향민의 비애

특징 • 전후 실향민의 실존적 문제를 다룸
• 간결한 문체로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제시함

한눈에 보기

‘나’		
• 인물들과 인물을 둘러싼 현실을 관찰함 • 탈향에 뿌리를 내리고 ‘탈향’할 것을 결심함		
두찬	광석	하원
• 말수가 적고 무뚝뚝함 • 탈향에 적응하지 못함	• 말이 많고 사고적임 • 탈향에 적응하려 함	• 여리고 다른 사람에게에 의지함 • 현실감이 없음

◆ 장면 IN 줄거리

한 마을에서 살다가 1·4 후퇴 때 함께 월남한 두찬이, 광석, 하원이, ‘나’는 부산에서 궁핍한 피란살이를 한다. 기거할 방이 없어 화창간을 전전할 정도로 어려운 삶이지만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 함께 이겨 내자고 맹세한다.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어려워지자 광석이는 현실적인 삶을 찾고, 두찬이는 이런 광석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두찬이와 광석이는 생활력이 부족한 ‘나’와 하원이를 귀찮게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광석이는 화재에서 실족하여 팔이 잘리고, 결국 죽게 된다.

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점차 자신을 되돌아보고, 현실에 절망하던 두찬이는 ‘나’와 하원이를 버리고 사라진다.

‘나’ 역시 함께 살아가자고 말하는 하원이를 버리고 도망갈 궁리를 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는 사건에 참여하고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는 인물이며 두찬이, 광석, 하원이를 관찰하여 서술하는 서술자의 역할도 한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주로 현재의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과거와 교차하여 제시하거나 이를 통한 장면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고향을 떠난 인물의 행동과 각자의 성격은 나타나 있으나, 삶의 내력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두찬이가 광석이를 외면하고 떠날 때 의성어를 활용하여 공동체가 무너지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밝고 역동적인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주로 ‘나’의 입장에서 서술하며 다각적인 사건 구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3점 길잡이

〈보기〉는 ‘탈향’에 나타난 시대적 배경과 그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인물들의 인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연결하여 이해해 본다.

광석이의 주검을 두고 일을 나가는 ‘나’와 하원이의 모습은 전쟁 중 피란민의 척박한 생활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를 탈향의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① 두찬이는 광석이의 사고를 어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는데, 이는 네 사람의 작은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나’는 어린아이같은 하원이에 대해 미안함, 책임감, 부담스러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이는 단지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없고 스스로 살아가기도 벅차다는 것을 느낀 실존적 욕망으로 볼 수 있다.
③ 탈향은 과거의 공동체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부산 토박이들과 어울렸던 광석이의 행동은 피란지에서의 현실적인 정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나’는 공동체적 삶에 연연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나’ 역시 자신 나름대로의 탈향을 하게 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03 인물의 심리 및 태도

‘나’가 광석이에게 두찬이가 떠나버린 것을 알리지 않고 병원에 갔다고 말한 것은 부상으로 위독한 광석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라는 근거는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나’, 두찬이, 하원이는 광석이가 토박이 반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남 바라보듯 바라보며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② ‘나’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나’가 하원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㉔의 뒷부분에서 ‘나’는 광석이의 죽고 안 죽고가 자신과 상관없다며 무감각해한다. 그러면서도 귀향했을 때 땀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㉔은 ‘나’가 이러한 자신의 생각에 자조감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광석이를 걱정하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하원이의 모습에서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04 속담 및 한자 성어

㉔에서 광석이는 다쳐서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른 것으로,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는 ‘명재경각(命在頃刻)’이다.

- 오답 풀이** ① ‘자승자박(自縛自縛)’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얽혀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광석이는 사고를 당하여 위급한 상황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③ ‘노심초사(勞心焦思)’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운다는 뜻이다. 하지만 ㉔에서 ‘나’는 광석이의 곁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 광석이가 죽고 안 죽고는 알바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④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은 죽은 후에야 약방문을 짓는다는 뜻으로 일을 그린 후에 아무리 뉘우쳐도 소용없다는 말이다. ㉔의 광석이가 몸을 움직이는 것은 살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일 뿐, 사고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⑤ ‘수주대토(守株待兔)’란 한 가지 일에만 얽매어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다쳐서 몹시 아픈 상황에서도 두찬이를 찾는 광석이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05~07]

[금방울전 - 적자 미상]

해제 동해 용왕의 아들 해룡과 남해 용왕의 딸 금령(금방울)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탈을 벗은 금방울이 해룡과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내용의 고전 소설이다. 여주인공이 금방울의 모습으로 신이한 능력을 지니고 활약한다는 점에서 전기(傳奇)성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여주인공 금방울의 적극적인 활동과 애정의 성취는 당시 여성 독자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제 금방울이 시련을 극복하고 부귀공명을 얻음(해룡이 금방울의 도움을 받아 괴수를 퇴치함)

특징 • 여성 영웅의 활약을 그리고 있음
• 전래 설화의 주요 모티프가 수용됨(난생 설화,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계모 설화, 변신 모티프 등)

한눈에 보기

해룡의 고난과 시련	위기 극복
변 씨의 계교로 죽을 뻔함	타고난 비범함으로 불에 타지 않음
산중에서 길을 찾지 못함	금령이 나타나 도와줌
짐승(금돼지)이 달려들어 해치려 함	금령이 대신 잡아먹힘
금령을 구하려 갔다가 짐승과 대면함	미인이 준 보검으로 짐승을 무찌르고 금령을 구함

◆ 장면 IN 줄거리

명나라 초엽에 장원이라는 한 선비가 해룡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나 피난길에 헤어지게 된다. 이때 도적인 장삼이 해룡을 구한다. 한편, 김삼랑의 처막 씨는 죽은 남편의 혼과 동침해서 금방울을 낳는다.

금방울은 어머니를 도와 온갖 어려운 일을 해낸다. 장원 부인이 병을 얻었는데 금방울이 부인의 생명을 구해 준 뒤로 금방울은 장원 부인과 막 씨 사이를 오가면서 사랑을 받는다.

하루는 금방울이 장원에게 난리 중에 잃은 해룡의 모습을 그린 족자를 가져다준 뒤 어디론가 사라진다. 해룡은 장삼이 죽은 후 그 아내 변 씨의 핍박을 받는데, 그때마다 금방울이 나타나 그를 도와준다.

결국 해룡은 변 씨 집을 나와 산중으로 갔다가 금돼지를 만나는데, 금방울이 해룡 대신 금돼지에게 먹힌다. 해룡은 금돼지를 죽여 금방울을 구하고 또 납치된 공주와 시녀들을 무사히 구출하여 부마가 된다.

막 씨와 장원 부인에게 돌아간 금방울은 껌질을 벗고 선녀가 되고, 황제는 금방울을 황후의 양녀로 삼아서 해룡과 결혼시킨다. 해룡은 두 부인을 거느리고 영화를 누리다가 두 부인과 함께 승천한다.

05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여자들은 해룡이 나타나 짐승을 없애겠다고 하자 공주의 꿈을 떠올리고는 신기해하면서 해룡에게 짐승을 없애 줄 것을 청하고 있으므로 여자들이 해룡을 의심하거나 일단 믿는 척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금령은 해룡이 길을 찾지 못하자 나타나 길을 알려 주고 있으며, 짐승이 나타나 해룡을 해치려 하자 대신 잡아먹힌다.

② 해룡은 악귀가 금령을 삼키자 어찌할 줄 몰라 탄식하지만, 공중에서 나는 목소리를 듣고 금령의 은혜를 떠올리며 금령을 구하려 간다.

④ 해룡은 변 씨의 간교 때문에 불에 타 죽을 뻔했지만, 변 씨를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장삼의 은혜와 정이가 더욱 깊다는 글을 벽에 써서 남겼다.

⑤ 변 씨는 남이 알까 염려하여 해룡이 쓴 글을 지웠다고 했으므로 자신이 해룡을 죽이려 한 것을 남들이 알 것을 두려워했다고 볼 수 있다.

06 작품의 종합적 감상

공중에서 들려온 소리는 해룡이 금령을 구하기로 마음먹게 하는 장치로, 전기 소설에 나타나는 비현실적 내용에 해당한다. 해룡의 목소리이거나 비현실계에서 현실계로 넘어오는 신호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금선수부'는 금돼지가 사는 곳으로 비현실계로 볼 수 있다.

② 변 씨의 계교 때문에 불에 타 죽을 뻔한 사건이나 금돼지가 공격한 일은 모두 <보기>에 언급한 위기의 반복으로 볼 수 있다.

③ 공주의 꿈에 나타난 선인은 해룡이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며 신분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해룡이 천상계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해룡의 어린 시절 고난과 위기의 반복,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영웅 소설의 전형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07 소재의 의미와 기능

㉠ 뒤의 사건 전개를 통해 공주 낭랑의 꿈이 곧바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시하여 독자에게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공주는 금돼지에게 납치되었다가 해룡에게 구조되는 인물로 신이한 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꿈에 '누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이 이유가 되어 인물이 새로운 고난에 처하게 되는 내용은 작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꿈에서 사건의 발생 시각을 알려 주고 있으나 공주가 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⑤ 공주의 꿈에 공주와 해룡이 전생애 인연이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금령, 공주, 해룡의 과거 사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8~10]

[만선 - 천승세]

해제 만선을 꿈꾸는 어부 곰치를 통해 인간의 강인한 집념과 도전 의지를 사실적으로 그린 희곡이다. 제목 '만선'은 곰치의 꿈이자 삶의 목표로, 만선에 대한 곰치의 집착은 결국 파멸을 불러오게 된다. 어촌이라는 공간과 사투리에서 느껴지는 토속성을 바탕으로 자연과 맞서 싸우는 도전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인간의 강한 집념과 도전

특징 인간과 자연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이 잘 드러남

한눈에 보기

임제순(선주)	곰치	구포댁
부당한 계약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함	만선에 대한 집념으로 불리한 계약을 함	아들이 배 타는 것을 불안하게 여김

◆ 장면 IN 줄거리

칠산 바다에 부서 떼가 물러들자, 곰치는 며칠만 더 부서를 잡으면 선주 임제순에게 빚을 다 갚고 배도 한 척 장만할 수 있으리라는 꿈에 부풀다. 그러나 임제순은 남은 빚을 다 갚기 전까지 배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한다.

배가 없어 미칠 듯한 곰치는 임제순이 요구하는 대로 다음 날까지 빚을 갚겠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바다로 나간다.

곰치는 만선의 꿈을 이루지만 거센 풍랑으로 배가 뒤집혀 잡은 고기와 아들 도삼이, 딸의 애인인 연철이를 모두 잃고 자신만 구조된다.

임제순은 빚을 갚으라고 곰치를 위협하고 구포댁은 아들의 죽음을 알고 정신이 이상해진다. 만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곰치는 남은 어린 아들을 어부로 만들려 하고, 이에 구포댁은 어린 아들을 살리고자 배에 태워 육지로 보낸다. 한편 애인을 잃은 슬슬이는 슬픔에 목을 맨다.

08 작품 변용과 형상화

임제순은 곰치와 계약을 마친 후 ‘한동안 손을 들고 잔뜩 위엄을 부리고 섰다간 서서히 퇴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무대 가장자리에서 다른 인물들을 지켜보라는 지시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곰치가 촉박한 계약 날짜에도 불구하고 임제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아 곰치의 어려운 형편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물, 돛, 다래끼 등을 낚은 것으로 준비하는 것은 적절한 지시이다.
- ② 구포택은 ‘침울한 표정’으로 등장하여 곰치에게 “무담씨 속이 지랄 같아서”라고 말하고 있다. 구포택의 이러한 심정을 고려할 때 구포택과 술술이가 천천히 입장하는 것은 적절한 연출이다.
- ④ 가난한 어부의 집이므로 초라한 집이 배경으로 제시되는 것은 적절하다. 또 마당에서 임제순과 곰치가 계약서에 지장을 찍고 있으므로 적절한 연출에 해당한다.
- ⑤ 곰치, 도삼이, 연철이는 뱃사람이므로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 줄 수 있도록 분장하는 것은 적절한 연출이다.

09 인물의 심리 및 태도

[A]에서 임제순은 곰치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배를 다시 묶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임제순은 곰치의 행동을 조롱하고 있지 않다.
- ② 어제 합의하였으니 계약날이 어제라며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만일의 상황을 가정하지는 않았다.
- ③ 임제순은 곰치가 계약을 주저하자 계약을 다 파기하고 배를 묶겠다고 하고 있다. 이를 상대방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임제순은 곰치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임제순은 곰치가 당면한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하거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10 작품의 종합적 감상

3점 길잡이

〈보기〉는 ‘만선’에 반영된 당시 어촌의 분위기와 선주 대 어민의 갈등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곰치가 임제순의 부당한 계약에 응하며 출항을 서두르는 것은 끝내 만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②처럼 곰치가 만선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 오답 풀이** ① 임제순은 어제 곰치와 합의한 것을 근거로 내일까지 배 샅을 치르라고 하고 있는데, 〈보기〉에 따르면 이와 같은 빚 변제 조건은 부당한 계약의 전형이라고 하였다.
- ③ 구포택은 도삼이가 배 타는 것을 말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도삼이가 집안 꼴을 언급하며 배를 타는 것은 〈보기〉에서 지적한 못 가진 자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임제순의 부당한 계약 조건을 곰치는 “배 풀어 준 것만도 오지게 생각”한 다음 “원망하면 못 써!”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곰치의 모습에서 〈보기〉에 나타난 부당함을 관습처럼 받아들이던 어촌 마을의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도삼이는 “이번 계약이 무너져도 자기는 이익잉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제순이 못 가진 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의고사 2회

산문 문학

본문 169~175쪽

- 01 ① 02 ④ 03 ② 04 ④ 05 ③ 06 ⑤
07 ⑤ 08 ⑤ 09 ⑤ 10 ⑤

[01~03]

[회색 눈사람 _ 최윤]

해제 이 글은 197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여대생이었던 주인공이 회고 형식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는 소설이다. 20여 년 전의 ‘나’는 우연한 계기로 지하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 무명의 조직원으로 이적물 출판하는 일을 돕게 된다. ‘나’는 중심 일원이 되지는 못하지만, 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모르는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나누려는 삶을 살아간다. 외로움과 무기력함에 침체된 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희망을 가지는 모습을 통해 자유가 탄압받던 시절의 사회와 그러한 사회를 살았던 개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주제 불안한 시대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려는 삶의 의지

특징 • 독백적 어조와 문체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함

• 당대 억압받던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냄

한눈에 보기

가난한 여대생인 ‘나’

민주화 운동 세력인 ‘안’

무명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안’의 지하 운동을 도우면서 ‘안’을 좋아하게 되는 ‘나’

◆ 장면 IN 줄거리

‘나’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가 ‘나’의 여권을 가진 여성이 뉴욕에서 굶어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20여 년 전의 일을 떠올린다.

20여 년 전의 ‘나’는 가난과 외로움에 허덕이던 대학생이었다. 우연히 인쇄소 주인 ‘안’을 알게 된 ‘나’는 ‘안’이 지하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조직의 일원으로 지하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준 초청장으로 여권을 신청한다. ‘나’는 당국의 검열과 조사가 심해지면서 지하 조직이 들리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인쇄소의 일을 도우며 ‘안’을 좋아하게 된다.

어느 날 조직이 발각되고, ‘안’은 김희진이라는 여자를 ‘나’에게 보내며 ‘나’의 여권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보낸다. ‘나’는 김희진에게 자신의 여권을 주어 미국으로 보낸다.

세월이 흐르고, ‘나’는 시골로 내려가 어느 교수의 일을 도우며 살고 있다. ‘나’는 지난 일을 떠올리며 아픔을 느낀다.

0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혼자 말하는 듯한 독백적 어조로 자신에 처한 상황과 내면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인쇄소와 ‘나’의 집이라는 두 공간이 드러나 있고, 주말이 지난 후라는 시간의 흐름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장면이 자주 바뀌지 않는다.
- ③ 서술자인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대비나 변화한 시대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이 글에 ‘안’과 ‘나’의 대화가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시간·공간에 상징적 의미를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더 이상 조직에 관련된 일을 하지 말라는 ‘안’의 말에 대한 ‘나’의 반응이 드러나 있으나, 이 일로 ‘안’과 ‘나’의 직접적인 갈등은 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나’의 시각에서 전달되며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인쇄소의 일에서 손을 떼라는 '안'의 말에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자존심을 세우며 조만간 이 나라를 떠날 예정이라고 말한다. 즉 '나'는 '안'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털어 놓은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인쇄소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인쇄소 일에서 손을 떼라는 '안'의 말에 모욕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출판과 관련한 '안'의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나'는 '안'이 쓰고 있는 글을 훔쳐본 적이 있었고, 연속 방송극을 쫓아가는 심정으로 그 진행을 금금해했다고 서술하였다.
 - ③ 일찌감치 지하 조직의 일에서 손을 떼라는 '안'의 말에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 ⑤ '나'는 인쇄소에서 '안'과 '안'의 조직을 돕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어떻게 밤을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3점 길잡이

이 글에는 197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문학 작품이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한다.

인쇄소에서 자정이 넘게 일하는 것은 부당한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모여서 진행되는 투쟁과 관련된 일이므로 이를 노동 착취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검열과 조사가 극에 달했다는 것에서 1970년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던 시대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일이 터지면 학교 생활, 안정된 직장 생활, 결혼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로, 지하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삶이 평탄치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 ④ '안'은 미래에 좀 더 자신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하 운동을 한다고 말한다. 즉, '안'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하 운동을 하는 것이다.
 - ⑤ '안'과 '정'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을 통해 지하 운동이 비밀스러운 일임을 예상할 수 있다.

[04~07]

[소대성전 - 작가 미상]

해제 이 글은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전쟁에 출전해 큰 공을 세운 영웅 소대성의 이야기를 다룬 고전 소설이다. 일반적인 영웅 서사 구조의 골격을 따르고 있으며, 주인공은 뛰어난 병법과 도술을 통해 영웅성을 발휘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 준다. 또,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이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지상계의 싸움이 천상계의 싸움을 대리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제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소대성의 일대기

특징 • 전기(傳奇)적인 요소가 드러남

• 영웅·군담 소설의 모티프를 수용하여 부분적으로 변용한 한눈에 보기

소대성	호왕
호왕과 일진일퇴의 결투를 벌이며, 호왕의 계책에 빠져 한때 위기에 처하지만 풍백의 도움을 받아 극복함	전쟁을 벌여 천자를 위협하는 인물로, 소대성을 잡기 위한 계책을 세우고, 군이 위기에 처하자 즉각 대응함

◆ 장면 IN 줄거리

명나라 병부 상서의 아들로 태어난 소대성은 어려서부터 비범하였으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유리걸식을 하는 등 고생을 한다.

어느 날 이 승상이 꿈을 꾸어 소대성을 만났는데 영웅의 기상을 지녔음을 알아보고 소대성을 집으로 데려온다.

소대성은 이 승상의 딸과 혼인을 약속하게 되지만 이 승상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자 혼인을 반대하던 이 승상의 부인과 아들들이 소대성을 죽이려 자객을 보낸다. 이에 소대성은 도술로 자객을 피하고 집을 나간다.

세상을 떠돌던 소대성은 청룡사에서 노승을 만나 병법과 도술을 익힌다. 호국이 침략해 오자 대성은 노승으로부터 칠성검을 받고, 죽은 이 승상과 어느 노인의 도움으로 각각 보신갑과 청룡마를 얻어 출정하게 된다. 대성은 북방 호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함으로써 큰 공을 세운다.

전쟁에서 공을 세워 노국왕으로 봉해진 소대성은 이 승상의 딸 채봉과 인연을 맺고 선정을 베풀어 행복하게 산다.

04 사건의 전개 양상

소대성은 자신이 호왕의 간계에 빠진 것을 알았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풍백을 부르고 있으므로, 살아남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호왕이 선우를 죽인 자를 찾는 데에서 알 수 있다.
 - ② 호왕과 결판을 내지 못한 소대성은 모세종의 말에도 계속 분해하고 있다.
 - ③ 호왕은 본진으로 돌아와서 소대성의 능력에 놀라며 "이제는 모계를 생각해 내서 그자를 잡아야겠다"고 하며 계책을 세워 결투에 나서고 있다.
 - ⑤ 소대성은 팔문금사진을 빠져나왔으나 적군들이 금세 일자장사진으로 바꾸어 견고하게 공격에 대비하는 것을 보고는 본진으로 돌아왔다.

05 인물의 심리 및 태도

호왕은 소대성이 팔문금사진에서 갇힌 것을 알고는 진을 일자장사진을 바꾸어 전투에 임한다. 소대성은 이것을 알고는 호왕의 재주에 탄복하고 본진으로 돌아간다. 이를 통해 소대성이 비록 적장이기는 하지만 호왕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소대성은 도망치는 척하는 호왕에게 속아 그 뒤를 따라 적진에 들어갔다가 위기에 빠졌으므로 일부러 호왕에게 속아 간 것이라 볼 수 없다.
 - ② 소대성은 호왕이 나중에 화가 될 것이라며 호왕과 싸우려 나갔는데 이는 자신의 공을 위해서가 아니며 나라를 위한 충성심이 드러난 것이다.
 - ④ 소대성은 호왕을 가벼이 생각하지 말라는 모세종의 조언을 듣지 않았으며 모세종이 북을 쳐 호왕과 승부를 내지 못하자 이를 아쉬워하고 있다.
 - ⑤ 하늘을 대신하여 호왕을 처리하겠다고 말하여 호왕을 대적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06 배경의 의미와 기능

소대성은 호왕과 싸우기 위해 오랑캐의 '진문'을 깨고 진영 안으로 스스로 들어간다. 또한 호왕이 펼친 일자장사진의 견고함을 보고는 스스로 '본진'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소대성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들어간 공간이다.

- 오답 풀이**
- ① ㉠과 ㉡은 모두 현실 속의 공간이다.
 - ② ㉠에서 소대성은 호왕의 계략에 빠져 위기감을 느끼게 되지만, ㉡은 호왕의 견고한 진세를 보고 돌아온 곳이므로 우월감을 느낀다고 볼 수 없다.
 - ③ ㉠과 ㉡은 모두 소대성과 호왕의 싸움의 양상에 따라 이동하게 되는 공간이므로, 사건의 우연성과는 거리가 멀다.
 - ④ ㉠은 소대성이 풍백의 도움을 받아 오랑캐의 군사들을 무찌른 공간이나, ㉡은 호왕의 견고한 진세를 보고 돌아온 곳이므로 ㉡에서는 영웅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

07 속담 및 한자 성어

‘기호지세(騎虎之勢)’란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소대성과 호왕은 싸움을 멈추고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으므로 기호지세의 형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위풍당당(威風堂堂)’은 ‘웅재나 기세가 위엄 있고 뒤편한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로, 소대성이 호왕을 꾸짖는 대목에 어울린다.
 - ② ‘구상유취(口尙乳臭)’는 ‘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라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이 유치함을 이르는 말이다. 호왕은 소대성을 “어미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젖먹이로구나”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다.
 - ③ ‘용호상박(龍虎相搏)’은 ‘용과 범이 서로 싸운다’라는 뜻으로, 강자끼리 서로 싸움을 이르는 말이다. 명군과 호군을 대표하는 소대성과 호왕은 수십 합을 겨루었는데도 승부가 나지 않았으므로 강자끼리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소대성과 호왕의 결투는 승부가 결정 나지 않았으므로, ‘역량이 서로 비슷 비슷한 위세’라는 의미의 ‘호각지세(互角之勢)’로 평할 수 있다.

[08~10]

[토지 _ 박경리 원작/이형우 각색]

해제 이 작품은 총 5부 16권으로 된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 중 제1부를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한국 근대사라는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민족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작품으로, 소설의 제1부는 경상남도 하동의 평사리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지주인 최참판 가문의 몰락과 조준구의 재산 탈취 등 농촌의 해체 과정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을 그리고 있다.

주제 근대 격동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삶과 애환
한눈에 보기

최 참판댁의 안주인 윤씨

- 김 서방네를 행랑으로 보내고 준구 내외에게 뒤채를 내줌
- 준구와 홍씨의 태도를 탐탁지 않아하며, 서희가 집의 주인임을 분명히 함

갈등

준구와 홍씨

- 서희가 지내는 별당을 차지하고 자 하는 욕심을 부림
- 윤씨의 시어머니의 조카임을 내세워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고자 함

◆ 장면 IN 줄거리

구한말 최 참판댁의 윤씨 부인은 남편을 잃고 절에서 불공을 드리다가 훗날, 동학당의 접주(接主)가 되어 사형을 당하는 김개주에게 겁탈을 당한다. 그녀는 이 사건으로 환이라는 아들을 낳는다. 동학당에 참가했던 환은 구천이라는 이름으로 최 참판댁에 찾아들어 몸을 숨긴다. 그는 자신의 출생과 이복형인 최치수의 부인인 별당 아씨와의 사랑으로 괴로워하다가 별당 아씨와 함께 지리산으로 도망친다. 최치수는 구천과 별당 아씨를 찾기 위해 지리산을 헤맨다. 그러나 별당 아씨는 환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환은 연곡사로 돌아간다.

한편, 자신의 신분상 제약에 불만을 품고 있던 귀녀는 최 참판댁 사람이 되기 위해 최치수에게 접근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귀녀는 일이 틀어지자 사람을 매수하여 최치수를 살해하고 자신이 임신하였음을 내세워 최씨 집안의 대를 이으려는 음모를 꾸민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에 의혹을 가진 윤씨 부인은 침모 봉순네의 귀뎌으로 귀녀의 자백을 받아내고,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죄값을 치른다.

최치수가 죽은 후 조준구는 부인 홍씨와 곱추인 아들 병수와 함께 먼 친척인 최 참판댁에 찾아든다. 그는 최 참판댁의 재산을 노리지만 윤씨 부인의 힘으로 인해 수월하지 않다.

호열자와 흥년으로 인해 윤씨 부인과 김 서방, 침모 봉순네 등 많은 사람이 죽자, 살아남은 조준구는 최 참판댁을 차지한다. 고아가 된 서희는 집안을 지키기 위해 조준구 일가와 맞서지만 상황은 조준구에게 이롭게 돌아간다.

조준구의 행패에 불만이 쌓인 마을 사람들은 의병을 일으켜 최 참판댁의 재물을 탈취하고 조준구 내외를 죽이려 하지만 그들을 찾아내지 못한다. 서희는 할머니 윤씨 부인이 남겨 준 재물을 지니고 간도로 떠난다.

08 인물의 심리 및 태도

[A]에서 윤씨는 자신의 지시에 반발하는 준구에게, 준구가 자신보다 손아랫사람임을 일깨우면서 불편하다면 서울로 돌아가라는 강경한 태도로 응대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윤씨에게 먼 곳에서 찾아온 것을 말하며 동정심을 호소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있지는 않다.
 - ② 준구는 윤씨의 시어머니의 혈족으로, 이러한 혈연관계를 내세워 윤씨에게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준구는 윤씨와 혈연관계가 아니며 단지 먼 친척이므로 친척에 대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 ③ 준구는 뒤채로 나가라는 분부는 거두고 서희가 있는 별당을 거처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윤씨가 뒤채를 수리했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할 도리를 다한 것이라는 의미이지 타협점으로 이를 제시한 것이 아니다.

09 작품의 종합적 감상

S# 122의 갈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준구의 소극적 면모는 발견할 수 없다. S# 122에서 준구는 윤씨의 위세에 놀리기는 하지만, 자신의 요구를 분명한 태도로 밝히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더부살이를 하러 왔음에도 화려한 치장을 하고 나타난 홍씨는 미래의 집주인인 서희가 머무르는 별당을 탐낸다. 이를 통해 홍씨는 허영심이 많고 이기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② S# 120의 대사를 통해 S# 119와 S# 120 사이에는 윤씨가 김 서방에게 행랑으로 거처를 옮길 것을 지시하는 장면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S# 120의 김 서방의 대사를 통해 김 서방이 윤씨에게 순종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S# 120과 S# 121 사이에 윤씨가 김 서방을 시켜 준구 내외의 거처를 뒤채로 옮기라고 한 지시가 드러나지 않지만, S# 122의 대화를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10 작품 변용과 형상화

준구가 머물게 될 뒤채는 지금까지 김 서방네가 살던 곳이다. 윤씨는 S# 122에서 김 서방이 좋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뒤채를 하인들의 거처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윤씨는 준구 내외를 위해 뒤채를 수리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뒤채를 비좁으면서도 넓고 허름한 가옥으로 섭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홍씨는 자신이 아녀자임을 근거로 사랑을 꺼리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사랑은 주로 바깥주인이 거처하거나 남자들이 머무르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공간적 특성에 맞게 소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② 홍씨가 별당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이유는 딸이 시원하고 연못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당은 허영심이 많은 홍씨가 욕심을 낼 만큼 아름다운 공간으로 섭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현재 집안의 가장은 윤씨이다. 따라서 양반 집안의 가장이 머무르는 곳에 맞게 격식과 품위가 느껴지는 공간을 섭외하는 것이 좋다.
 - ④ 행랑은 주로 하인들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김 서방댁이 뒤채를 떠나 행랑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볼 때 뒤채보다 넓고 허름한 공간으로 섭외하는 것이 좋다.